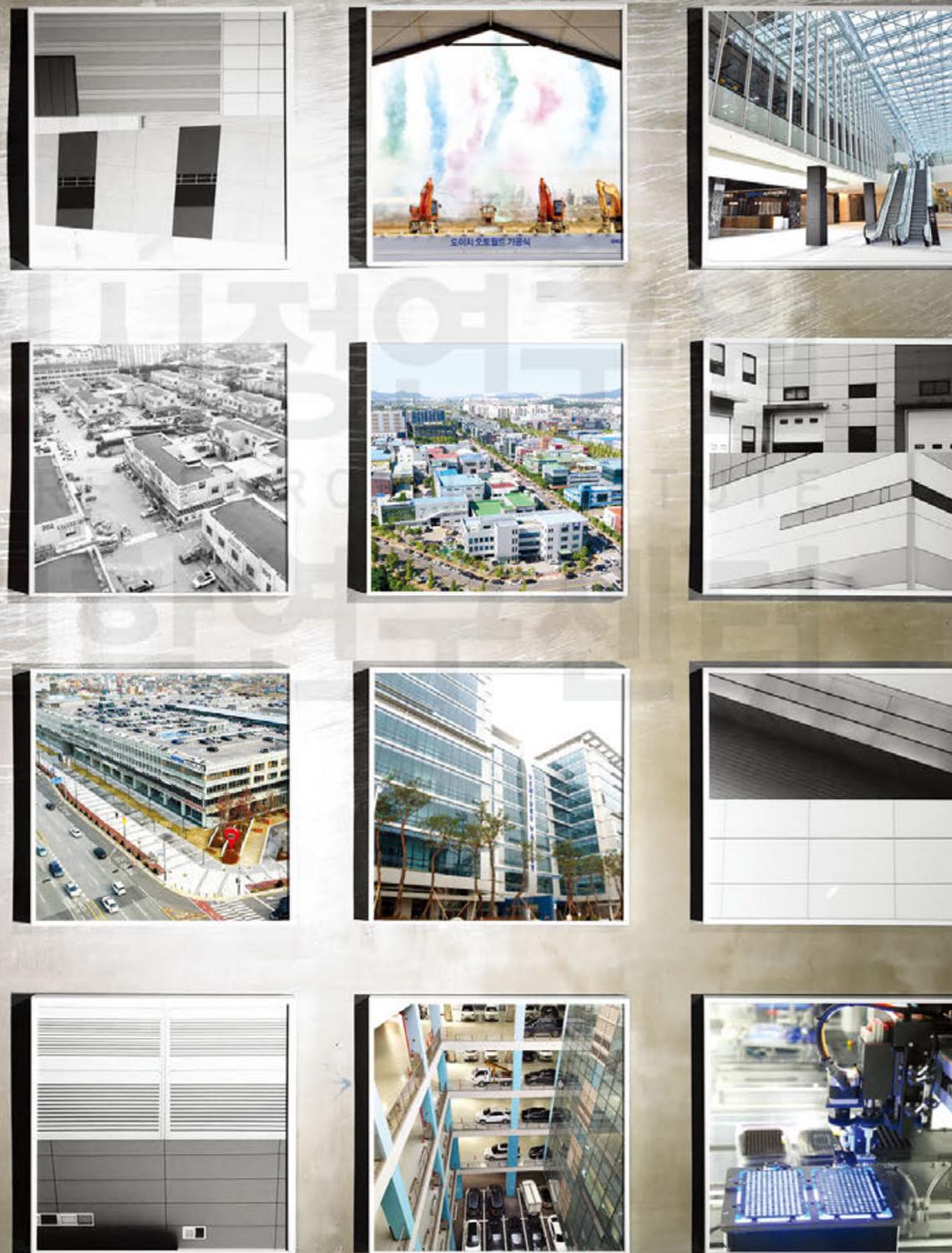


# 고색동

2 수원시 대표 산업지대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19

# 고색동

2 수원시 대표 산업지대

# Gosaek 고색동

2 수원시 대표 산업지대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소

**수원특례시**

**SRI** 수원학연구소  
수원특례시

Gosaeok  
고색동

2 수원시 대표 산업지대

SRI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SRI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 1 고색동 개발과 주민들의 대응

<b>01 고색동청년회, 마을의 변화를 이끌다</b>	강신혜
고색동 청년들, 마을의 변화를 위해 모이다	007
마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첫걸음	014
마을의 단합을 위해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다	022
개발 바람 속 마을 살리기	031
<b>02 고색동개발위원회,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다</b>	설명희
고색동 일대에 들어선 비선호시설의 문제	039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개발	059
고색동개발위원회의 역할	068
<b>03 생태교통문화마을을 향한 3년의 여정</b>	김연미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고품생태교통문화마을협회의 탄생	075
과거를 이어 미래로 보내다: 협의회 활동 사례	083
고품질생태교통문화마을협회의 끝, 그리고 다시 시작	113

## 2 고색동의 산업 발전

<b>01 고색동 벽돌공장</b>	홍현영
수원 최초의 벽돌공장, 수원요업공장	119
수원요업공장에서 동보연안로	121
영신연와의 설립과 발전	128
한국에 하나 남은 영신연와 호프만가마	138
<b>02 수원종합공구단지, 공구유통업에 활기를 불어넣다</b>	윤정인
수원종합공구단지의 조성	151
수원종합공구단지의 공간구조	160
수원종합공구단지의 운영	172
갈등을 넘어 수원을 대표하는 공구단지로	177
<b>03 자동차서비스산업의 메카, 고색동</b>	김형아
서수원 지역에 자리 잡은 중고차매매단지	183
수원 중고차시장의 초창기 풍경	188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위기와 뜻밖의 호황	195
수원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성장	199
수원 중고차시장의 성장을 위한 노력	211
<b>04 수원시 최대 산업단지, 수원멀티플렉스</b>	김정환
첨단산업단지 수원멀티플렉스의 조성	223
수원멀티플렉스의 현주소	234
수원멀티플렉스의 풀어야 할 문제와 여러 가능성	271

# 고색동 개발과 주민들의 대응

01 고색동청년회, 마을의 변화를 이끌다

02 고색동개발위원회,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다

03 생태문화마을을 향한 3년의 여정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 SRI

## 01

## 고색동청년회, 마을의 변화를 이끌다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 개발의 빛과 그늘 속에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들어오며 청년회라는 이름은 차츰 사라지고 있다. 청년회 모임의 연령대 증가는 수도권 인구나 비수도권 인구, 도시와 농어촌 인구수의 극명해진 차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1990년대 고색동은 마을에 대한 고정된 인식과 경제 발전의 흔들림 속에 새로운 개발의 바람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수원 시민들의 생활에는 필수적이지만 환경문제를 안고 있거나 기피시설로 여겨져 불편을 주는 시설들이 고색동을 비롯한 서수원에 모여들었다. 이런 지역 현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을의 젊은 구성원들은 1991년 12월 고색동큰말청년회를 결성하였다.

1990년대 이후 고색동을 둘러싼 문제들은 청년회를 시작으로 풀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농촌 복합 마을로서의 면모를 지닌 고색동에서, 청년회의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 이에 그동안 청년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고색동 사람들』과 청년회에서 활동한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색동 청년들, 마을의 변화를 위해 모이다

고색동청년회는 1991년 12월 ‘고색동큰말청년회’라는 명칭으로 결성되었다. 이 시기에 큰말에는 이미 청년회 모임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이 조직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고색동청년회 새 헌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주민들(『고색동 사람들』 1996년 8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고색동큰말청년회 결성을 주도했던 심재현(제2~3대 회장)은 형식적으로 유지될 뿐인 기존 청년회의 무기력함을 보고 새로운 청년회 결성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심재현 60대 되시는 분들이 청년회장, 청년회가 형식적으로 있더라고요. 당시 지자체(지방자치제도)가 91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여기 자문위원을 하시던 노인이 시의원 하시는데, 지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전에 화장터가 올라오는 사전도 있었고,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서수원) 너무 낙후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한번 모이자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91년도 11월 달에 그대 창단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2월에 반쪽을 했어요. 여기가 지역사회다 보니까, 호응도 괜찮아 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시작을 했죠. 기수별로 쪼개 가지고.

더구나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마을의 원로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지역 현안이나 낙후된 마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도 실망하였다고 한다. 청년회 제2~3대 총무를 역임하며 정관을 만드는 등 실무적인 토대를 마련했던 이영성은 청년회 출범 배경과 영농조합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1950~1960년대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을 위해 모범적으로 활동했던 세대에 이어, 30년 아래인 자신들의 세대가 '지역 현안의 해결'이라는 적극적인 목표를 갖고 청년회를 결성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영성 60년 70년대 막 이렇게 갔다가, 80년대까지 됐나. 옛날에는 그 농사인하고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 이제 직장 다니고 막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청년회가 그냥 없어진 거지. (생략) 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막 60 넘고 그러니 할 사람이 이제 없어서 92년도에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포인트는, 고색동 작은말이 아니라 큰말. 왜 자꾸 큰말만 얘기하냐면, 옛날에 작은말은 동네가 없던 데라. (중략)  
 조사자 협동조합장을 하셨나요?  
 이영성 네. 원래 60대 70대에서 하다가, 그냥 한 30년 밑으로 내려왔지.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어쨌든, 옛날에 했던 거, 동네 역사 막 이런 걸 제가 정리를 하게 됐어요.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고색동 큰말 전경  
 (고색동큰말경로당 제공)



조사자 그걸 명동조합에서 하신 거예요?

이영성 청년회라고 다 연결돼 있는데, 청년회 초창기 그 정관이 명동조합장을 상임 고문으로 모시고 동네 제일 큰 어른으로 모실 정도로 정관에 그렇게 돼 있더라.

조사자 청년회에서 이제 이 사업장 큰 어른 모시고 그분이 상임으로 계시고.

이영성 상임고문 계시서 총회 할 때도 모시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다 제가(당시 30대 중반, 1998년) 이제 명동조합장이 되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지. (웃음) 아무튼 그래서 청년회는 그 당시에 활동을 이제 그 래도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많이 했지. 그때부터 이쪽 지역에 산업단지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수인분당선이라고 그러는데. 수인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우리가. 그다음에 저기 그 분포 시설 이거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 분노하고 이제 음식물 처리시설은 나중에 그랬지.

이영성은 청년회가 ‘큰말’ 주도로 조직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당시 “작은말은 동네가 없던 데라” ‘큰말’이 붙은 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았다.

고색동큰말청년회는 “고색동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식을 함양하며 회원 상호 간의 단결과 선후배 간의 친선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회원 연령은 25~40세로 정하였다. 이들이 “선후배로 친선을 도모해야 할” 대상은 ‘큰말’과 ‘고색초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였다. 실제 고색동큰말청년회는 ‘고색초등학교’ 출신의 ‘큰말’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따라서 청년회 자료에서 회원 이름 옆에 나이가 아닌 숫자가 쓰여 있는 경우는 고색초등학교 졸업기수를 뜻한다.

하지만 고색동큰말청년회라는 명칭은 3~4년 정도 사용되다가 사라지고 ‘고색동청년회’로 불렸다. 1991년 설립 당시 25~40세는 1952~1967년생들로, 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관계를 맺던 시기에는 큰말이 고색동에서 가장 컸고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말=고색동’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작은말과 뒷말 출신들도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1987년 탑동에 속했던 지역(새터와 까막골)이 고색동으로 편입되고, 외지인들이 대거 입주해 오던 상황에서 ‘큰말’청년회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역 현안들이 고색동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큰말’이라는 명칭은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다.

창립 당시 10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한 고색동청년회는 고색초등학교 기수대표(15명 정도)와 임원진(집행부)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고색초등학교 졸업기수 기준 선출된 기수대표는 “회장 불신임안 상정권, 감사 지명권, 신입회원 의결권, 임시총회 소집권” 등의 권한을 가졌다. 임원진은 회장, 총무, 서기, 부서장(행사부, 섭외부, 상조부, 조직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매년 청년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임원을 선출하는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수인선 관선구 고색동 원정 청년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고색동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식을 함양하며, 회원 상호간의 단결과 선 후배간의 친선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회 원

제 3 조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연령은 25 ~ 40세 까지로 한다.
- (2) 고색동 관내에서 출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및 외부에서 거주하면서 고색동교를 졸업한 자.
- (3) 의회에서 허락한 사람이 임의회고자 합의는 2인이상 거주하면서 고색동 출신회원 3인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여 기수대표회의에서 임의여부를 의결한다.
-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을 지지하는 자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 4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종의의외 활동에 적극참여하고 회칙, 결의사항 준수, 회비납부등의 의무를 갖는다.

### 제 3 장 장 직

제 5 조 (구성) 본회는 보다조직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청동회장(초창기)의 지도와 직책을 맡으며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 (1) 기수대표 : 고색동교 졸업생 기준으로 25~40세 까지 각 기수별 대표로 구성한다.
  - 회장의 불신임안 상정권
  - 감사의 지명권
  - 신입회원의 의결권
  - 임시총회 소집권
- (2) 감사 : 기수대표회의 3인을 선출한다.
- (3) 그 밖은 : 본회의 운영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3인 이내의 고문을 둘수 있으며 2인중은 회장단에서 지명하여 기수대표회의서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 제 4 장 임 원

제 6 조 (총무와 경수) 본회는 회의 조율을 높이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 (1) 회 장 1명
- (2) 총 무 1명
- (3) 서 기 1명
- (4) 부서장 4 명 (행사, 섭외, 상조, 조직부장)
- (5) 각 부서별 단장명

제 7 조 (관인과 책임) 본회의 임원들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본회의를 대표하고 모종의의를 운영하여 임원의 임명권, 해임권을 갖는다.
-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회의일 제정을 관리하고 회장 유고시 그임무를 대신한다.
- (3) 서기 : 본회의 회의록작성 및 회의의 취지, 동서, 공문등을 담당한다.
- (4) 행사부장 : 회장의 명에 의하여 본회의 개최를 행사할 담당한다.
- (5) 상조부장 : 회장의 명에 의하여 본회의 조식을 담당한다.
- (6) 조직부장 : 회장의 명에 의하여 본회의 조직을 담당한다.

제 8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도으로하여 헌임할수있으며 회장사외는 임기연장이 6개월 미만이면 권한대행이 임무를 수행하며 임기연장이 6개월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그 한에 달기도 한다.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고색동청년회 회칙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1년만 청년회장을 하게 하였다.

심재현 그때 줄다리기 복원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저만 93년과 94년에 두 번 했고, (청년회 장을) 1번씩만 한 사람이 했어요. 우리 이 지역이, 한 사람이 될 말으면 그냥 그때 딱 때까지 그냥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특히 옛날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그게 아주 심했어요. 이제 지역에 이장, 통장이건 될 말건, 농지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그걸 하나 맡으면 안 와. 그래서 우리는 철칙이, 가끔씩 한 사람이 1년만 하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면서 같이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 갖고 청년회장들이 한 16명까 지 배출이 됐으니까.

제 9 조 (선출 및 재선) 임원의 자격은 제3조에서 규정된 정기간 정하여 회장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후보추출) 본회의 회장선거에 임부보달 후보는 총회에서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5인 이상의 회원 추천서를 받아야하며 1인이 추천할 경우 5인 이상 회원의 지지필요성이 있어야 후보등록할수 있다.

제 11 조 (헌법) 본회의 회장이 불신임의 사유로 본회의의 임의결의로 헌법시 개정과 같은 단락을 할수 있다.  
(1) 기수대표 7인이상의 임시총회를 요구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불신임을 할수기.  
(2) 회원 30인이상의 임시총회를 요구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불신임을 할수기.  
(3) 회원 30인이상이 회장에 사임 요구시  
(4) 회원 30인이상이 회장에 사임 요구시  
제 12 조 (보궐선거) 회장이 불신임되어 유고시 임원간 투표로 차등해임되어 기수대표회의서 대표를 선임 1개월 이내의 임시총회를 소집 임원선출 구성한다.

### 제 5 장 회 의

제 13 조 (정기총회) 매년 1월2주 일요일로 정하며 비록 소집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 사업결산 및 재정결산기회수입, 회칙개정 변경하고 회장은 3주전에 총회공고를 하여야한다.

제 14 조 (특별회의) 특별 회의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면 사전에 3주전에 회장을 소집하고 회장을 임명한다. (회장은 정정권을 있으나 발언권은 없으며 그 기수대표를 통하여 결정하여 한다.)

제 15 조 (임시총회) 본회의 운영상 긴급할 사항이 있을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3주안에 소집공고를 하여야하며 그 인정방법과 조칙은 정기총회의 같다.  
(1) 회장이 직권으로 소집  
(2) 기수대표 7인이상이 회장에 사임 요구시  
(3) 회원 30인이상이 회장에 사임 요구시  
제 16 조 (임원회의) 회장의 직권으로 필요시 소집

### 제 6 장 제 정

제 17 조 (회비) 본회의 회원은 각 기수대표에게 연액 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총무에게도 가능하다. 그의 행사시 기부, 인조 등으로 제정 받는다.

제 18 조 (지출) 본회의 장이 지출은 회장 책임하여 총무가 담당하며 회장의 책임은 회장이 진다.

제 19 조 (감사) 본회의 재정감사는 기수대표회의서 선출된 3인의 감사가 담당하며 매년4월(3.6.9.12월)의 결산과 결산하여 이상 유무를 기수대표에게 통보한다.

### 제 7 장 운 영

제 20 조 (총상권) 본회의에서 정지되지 않은 본회자 발생시 총상권에 따라 회장이 기수대표회의서 결정한다.

제 21 조 (피선거권) 본회의 임원 후보가 있을경우 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2 조 (권리회) 본회의 가입을 원하지만 헌법시 개정과 같은 단락을 하여 본회의에 가입할수있다. (회장은 정정권을 있으나 발언권은 없으며 그 기수대표를 통하여 결정하여 한다.)

제 23 조 (회칙의 개정) 회칙 개정 시 3인이상의 추천서로 본회의의 임의결의로 헌법시 개정과 같은 단락을 할수 있다. (회장은 정정권을 있으나 발언권은 없으며 그 기수대표를 통하여 결정하여 한다.)

이렇듯 초창기에는 고색초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고색동 '큰말 토박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게 작동하였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청년회에서 활동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조사자 혹시 그 당시에 마을로 이사 오시는, 유입되는 분들도 청년회에 들어올 수 있었나요?  
 심재현 나처럼 받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강하게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고색 초등학교 출신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전에는 외부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방법대는 무조건 다 열어 둔 거죠.

표1 고색동청년회 임원진

연도	임원진
1993	회장 심재현, 총무 이영성
1994	회장 심재현, 부회장 신건철, 총무 이영성, 행사부장 김덕규, 섭외부장 방상희, 경조부장 엄선용, 조직부장 서영철, 편집부장 조창호, 서기 강철규
1995	회장 김덕규, 편집부장 김병희
1996	회장 김천배, 부회장 이영성, 총무 김병희, 행사부장 황종률, 행사주무 김인철·김웅진, 섭외부장 백선기, 조직부장 김원진, 상조부장 미중용, 서기 강철규, 편집부장 심재경, 고문 김기태·김덕규
1997	회장 최희연, 부회장 백선기·이영성, 총무 김병희, 행사부장 황종률·황희·김인철, 조직부장 김원진, 상조부장 미중용·박성원, 편집부장 심재경, 섭외부장 정경석, 서기 박현호·강철규, 체육부장 김웅진, 고문 김기태·김덕규·김천배
1998	회장 백선기, 부회장 서상돈, 총무 강철규, 행사부장 이성구, 조직부장 백은기, 섭외부장 박현호, 상조부장 이수원, 서기 윤종배
1999	회장 이성복, 부회장 김원진, 총무 김인철, 상조부장 황희, 서기 이적준, 섭외부장 박장원, 행사부장 최해철
2000	회장 이성복, 부회장 심재경, 총무 김인철, 행사부장 송기만, 조직부장 황종률, 상조부장 백은기, 섭외·편집부장 박장원
2001	회장 김인철, 총무 박장원, 행사부장 이철우·최해철·송기만, 조직부장 강철규, 상조부장 박성원
2006	회장 이진원, 부회장 강철규, 총무 강상영, 행사부장 이상범, 조직부장 박성현, 섭외부장 정찬규, 서기 현영익, 회계 김춘화(여), 평강교회 청년회 정인영
2015	회장 전근배

비고: 고색동청년회 임원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고색동 사람들」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1994년과 1998년 고색동청년회 임원진

## 2. 마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첫걸음

### 1) 자율방범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심재덕 시장과 함께 동네 순찰을 하는 방범대  
(『고색동 사람들』 1997년 12월)

고색동청년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초기에 마을에서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자율방범 활동이었다. 밤늦게 마을을 오가는 청소년과 직장인들의 안전을 위해 1993년 조직된 자율방범대는 고색동 남성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활동 자격을 개방하였다. 1990년대 『고색동 사람들』에는 자율방범대 모집 안내와 대원 명단 및 연락처가 실려 있어 당시 활동과 규모를 짐작케 한다.

1993년 자율방범대원 모집 내용을 보면 고색동에 거주하는 20~40대 남성으로 20일에 한 번씩 오후 9시 30분에서 다음 날 2시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1993년 12월과 1994년 1월 일정표에 따르면 대체로 7명이 한 조가 되어 20개 조 140여 명이 방범활동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방범대는 20대가 28%, 30대가 55%, 40대 이상이 17%를 차지하였는데, 마을을 떠나 생활하는 청년회원들이 시내와 서울에서 내려와 활동하기도 하였다.

김천배 방범대 했을 때도 (웃음) 저 친구가 대장하고, 거의 200명가량 나온 거 같아요. 조를 짜 가지고. 지금 마을교과 이사장 하는 친구도 후배인데 우리 조원이었고, 돌아오면 아주 그냥 생인날 같이 그냥. 심재현 제일 많을 때가 230명인가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도로변에 가게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안 들어오면 동네 기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 뭐, 이발소 하든 뭐 하든 카셋타 하든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한 230명 정도 됐었어요.

김천배 교류도 되고 그렇죠.

심재현 이제 방범대도 다름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시골이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야경’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북을 두드리면서 항상 동네를 돌았어요. 밤에. 여기 지킨다고. 근데 어린 기분에든 그게 그 소리를 들으면 되게 안정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범대도 그런 취지로 우리가 했던 거고, 일단 우리



고색동큰말방범대 3주년 기념식(『고색동 사람들』 1995년 10월)

가 버스정류장에서 가지고 경광등 키고 있으면, 성범죄 사건이건 뭐건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고. 그 청소년들이 그때는 다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다 붙어지는 구조였고 지금은 커져서 정류장이 두 군데 세 군데 생겼지만, 그때는 거기가 좀 이렇게 다 한 군데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12시 넘어서, 시곗말로 ‘야자’도 있었고, 그 시곗 말로 ‘공순이’들도 많고 이래 가지고,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1998년 청년회 회장을 했던 백선기는 2000년대 들어 방범대장을 오랫동안 맡아 하였다. 당시 사비까지 들이며 의욕적으로 방범대 활동을 하였고, 큰말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를 확장해 갔다. 그러한 노력과 활동이 계기가 되어 현재의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백선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서 의무이 저기 해서 그 청년회장 하고, 그니까 저는 참 희한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회장 끝날 무렵 돼 가지고 방범대장을 맡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범대장을 맡다 보니까 사람도 없어, 돈도 없어, 인원이 그때 당시 제가 방범대장을 했을 때 한 100명을 데리고

## 고색동 큰말 자율 방법대

대 장 : 강 수근 (291-1217)

부 대 장 : 심 재현 (292-7937)

1교	2교	3교	4교	5교	6교	7교	8교	9교	10교	11교	12교	13교	14교	15교	16교	17교	18교	19교	20교
최영길	박대은	이재학	김영태	안정규	이희남	박영희	박문용	김원배	김원희	김영훈	홍기원	최민지	김재훈	김재현	김성원	박성태	장동기	박재태	
김민서	최근식	서영환	박성희	김은재	김영희	최지민	김희원	박재현	김영희	이성진	김영호	김재민	박수현	김순배	홍대규	신병남	김정태	김기태	
박현수	서영준	홍성훈	김영환	서승준	박성기	박재현	박요진	김영희	박지민										
박진수	서영준	김민서	김영태	김정규	김영준	홍기원	서영환	김영희	김영희	이성진	김영호	김재민	박수현	김순배	김정태	김정태	김정태	김정태	김정태
김지훈	김재현																		
김영희																			
이정민	노사훈	박근식	김영태	김정규	김영준	홍기원	서영환	김영희	김영희	이성진	김영호	김재민	박수현	김순배	김정태	김정태	김정태	김정태	김정태
이희성	박근식	김영태				이희성	심재현	주지민	신영환	박지민	김재현	박지민	김정태						

사무실 연락처 : ☎ 291-7661

고색동큰말자율방법대 조직(『고색동 사람들』 1994년 4월)

있었어요. 수원에서 최고 많이.

조사자 청년층이 많았나요?

백성기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막 끌어들이고 해 가지고, 그대 당시 는 제가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 그냥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어떤 행사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하면 제가 가서 부조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뭔 도와줬으 면 하느냐.”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와서 “좀 도와 달라.” 그래서 고색동에서 4년 3개월인가 방 법대장을. (중략) 방법대장 끝나고 개발위원장 저기하면서, 또 여기 방법대 권선구 연합대에서 와서 “좀 도와 달라.”고 그래서 또 연합대로 와서. 그러니까 이 방법대 하면서 제가 바깥에 눈을 빨라 뜯 거죠. 그래서 권선구에 와서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 권선구의 여러 지역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 역은 이걸고, 이걸고 보니까 자꾸 저도 배우고 그런 거죠. 권선구 연합대장을 7년을 하고 끝날 무렵 되니 까 옆태영 시장이 “수원시로 와서 좀 해 달라.” 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고색동 방법대원 모집 플래카드(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 2) 마을신문 『고색동 사람들』 발행

고색동청년회는 마을 현안을 둘러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고색동 사람들』이라는 신문을 발간하였다. 1992년 기수대표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및 의식 개혁을 위하여 신문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역의 불편사항, 청년회원들의 근황 및 홍보, 자율방법대 일정 및 근무 현황, 지역 내 행사 및 경조사, 고색동 역사 및 단체·인물 소개 등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기로 하고 8명의 편집위원을 구성하였다. 경비는 청년회에서 부담하고 광고물 게재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부정기 간행물로 가능한 한 2주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당시 청년회장이었던 심재현은 『고색동 사람들』이 “청년회지의 성격과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신문 성격”을 갖도록 하였다.

근래에는 마을신문 발행이 흔한 일이지만 1990년대에는 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마을의 공지사향이나 청년회의 활동을 전하는 용도를 넘어 마을의 현안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며 문제의 해결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공론의 장(場)으로서 마을신문을

창간호  
1993.12.15.

# 고색동사람들

신토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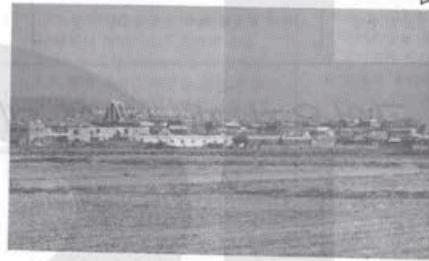
고색동 사람은 할  
시장 개방을 반대  
합니다.

고색동 큰말 청년회 발행 발행인:심재현 편집인:조창호 사무실 고색동 마을회관 전화: 291-7661광고문의 294-3877

## 내년4월 일반주거로

평동판내(고색, 오목, 평동)가 주거전용에서..

그 동안 평동판내 주민의 숙원사업인 일반 주거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평동 개발위원회의 한길수 위원장과 고색동 청년회 심재현 회장에 따르면 11월 22일 이송대 시위원과 함께 수원시 도시 계획 국장(남우철)과의 면담에서 금년 말까지 시안을 마련 내년 4월 까지 전용주거에서 일반 주거로 용도 전환 되면서 건축을 할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는 것이다.  
이에 두사람은 지역 주민들 앞에서 확실히 다짐 할 것을 요구.  
12월 14일 오후3시에 평동 새마을금고(본소) 2층에서 도시계획 국장을 초청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관심 있는 주민은 참석하시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속산 시현장에서 바라본 고색동 전경>

### 주요기사

고색, 오목전동에 공업지역 이전.....	2.3면
수인선 전철화 동네관통에 문제 많다.....	5 면
장간축하 글 고색동 편집위원.....	6.7면
청년회 방편대소식 및 청년회 정기총회.....	7.8면

# 축 창 간

## 축 간

당  
신  
의  
건  
강  
을  
조  
기  
회  
와  
함  
께

[ 고색동 사람들 ]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고색동 조기회 일동

고색동 조기회

문의전화: 291-3774  
(덕성공업사)

회장 : 한정현  
부회장:강덕규  
홍무:윤종만

발행하는 것은 매우 새로운 방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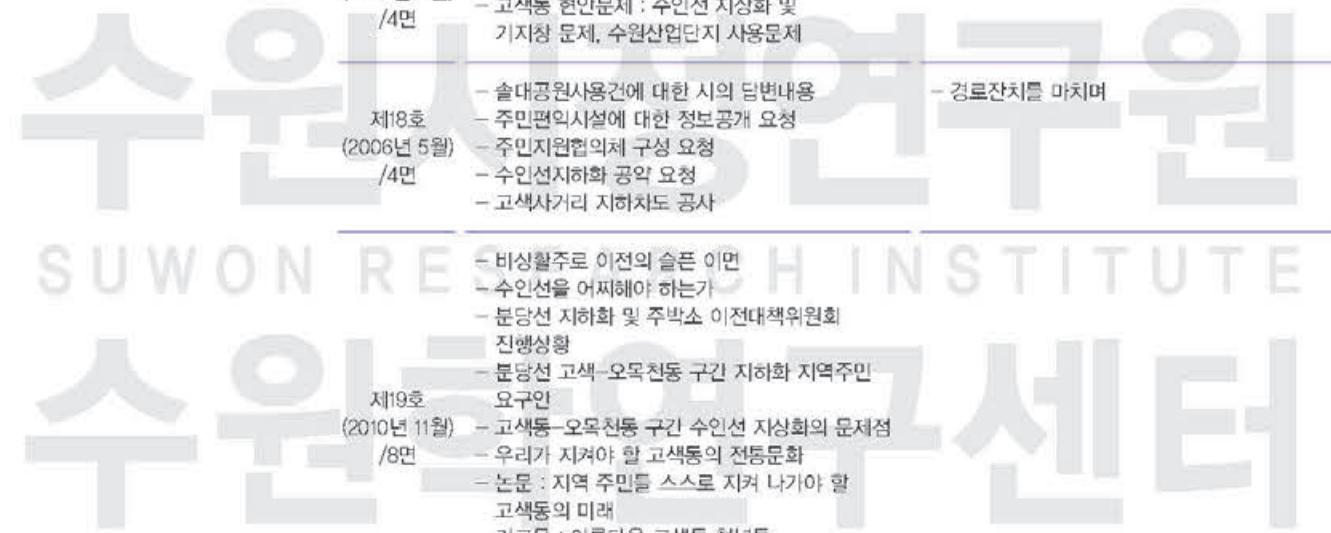
『고색동 사람들』은 1993년 12월 창간되었고, 2015년 제25호까지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간행 주기는 1년에 1~3회 정도로 매우 불규칙하였고 2001년 제16호가 발간된 후 한동안 휴간되었다. 집행부의 관심과 역량, 마을의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했지만, 『고색동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지역 현안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중시하였다. 둘째, 청년회 활동에 따르는 각종 행사와 운영의 수입·지출 내역 공지가 지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초창기에는 마을 내 기관이나 단체, 지역 인사에 대한 지면이 많았다면 2006년 재간행 후에는 마을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넷째, 초기에는 대체로 주민들이 기사를 쓰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간행 이후에는 외부의 전문가나 정치인 등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표4 고색동청년회 발행 마을신문 『고색동 사람들』(1993~2015)의 내용

구분	주요 기사	기타 소식
제1호 (1993년 12월) /8면	- 내년 4월 일반주거로 - 고색, 오목전동에 공업지역 이전 - 수원시 공업용지 재배치에 대한 공청회 - 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수인선 전철화 동네관통 문제 많다	- 만나봅시다 : 동장 민호식 - 지역, 청년회 소식란 : 개발위원회 소식, 공업지역 이전에 대한 공청회, 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
제2호 (1994년 1월) /12면	- 서수원 지역개발 주민설명회 - 기사수첩 : 뒷북치는 사람들 - 발인대 : 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 작은 이야기 : 사라진 고향 - 만나봅시다 : 영농회장 김종윤(현), 유종훈(전)	- 동민 체육대회, 청년회비, 자율방범대 결산내역 - 별터신문고 - 지역, 청년회 소식란
제3호 (1994년 2월) /8면	- 기획논단 : 평동새마을금고의 문제점 - 주민서명에 감사드립니다 : 공업유치 반대, 수인 전철 지하요구, 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지역소방도로) - 만나봅시다 : 평동새마을금고 이사장 홍순정(전), 박재선(현)	- 동회에서 전해드립니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 - 지역, 청년회 소식란 - 새마을금고 저축은 훨씬 유리합니다(광고) - 별터신문고 : 청년회 정기총회, 청소의날 제정
제4호 (1994년 4월) /7면	- 수원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공람 : 고색동이 일반 주거 및 준주거로 변경 - 기획논단 : 공업단지 막아야 한다 - 수인철도 사라진다 - 지역을 빛내는 사람들 : 평동새마을금고	- 의류판매 3일장 - 자율방범대 개편, 척사대회 결산 - 마을금고 상품안내(광고)
제5호 (1995년 10월) /4면	- 협계열차 이전 추억 속으로 - 수원공군비행장 민항기 취항 절대 안 된다 - 기획논단 : 서수원권의 환경과 보존개발 (글 염태영) - 고색동 민속줄다리기 수원시민의날 식전행사로	-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 - 고색동 큰말 자율방범대원 모집 - 별터게시판 : 인구주택총조사, 경로승차권 지급제도, 일손돕기지원센터운영, 화흥문화제 및 체육대회 안내

구분	주요 기사	기타 소식
제6호 (1996년 1월) /4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인선 확장, 분당선 연장, 수원노선 시 독자결정으로 추진</li> <li>- 수원공군비행장 비행소음 측정</li> <li>- 기획논단 : 지역개발 이렇게 생각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옹기종기어린이집</li> <li>- 빌터계시판 : 고색국교 앞 육교 설치, 수인선 60년 영육의 마감, 평고교 해체 후 새 다리 놓는다, 동행정 안내</li> </ul>
제7호 (1996년 4월) /12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논단 : 고색동 민속줄다리기 놀이의 유래</li> <li>- 열린세상 : 심재현 시의원 의정소식-평동관내 노인정 의료방문, 평고교 신축, 평동 가로망 계획 수립, 평동 자연부락취락지구 실행, 오목천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체육공원으로, 공업지역에 관한 주민공청회</li> <li>- 4·11총선을 맞이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줄다리기, 척사대회 결산보고</li> <li>- 구 쓰레기매립장 화재</li> <li>- 동화소식 : 국회의원 선거</li> <li>- 기차길옆 오막살이(소식란) : 고색조기축구회, 고색자율방범대, 새마을문고</li> </ul>
제8호 (1996년 8월) /6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논단 : 지역 특성을 살리는 개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li> <li>- 듣고 싶습니다 : 지역 현안에 대한 고색동 개발위원장과과의 대답</li> <li>- 개발위원회 조직기구표 및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의 미소 : 환경의 날 백일장 수상작</li> <li>- 소식란, 알림란 : 평동관내 동민체육대회, 고색초등학교 축구부, 고색청년회 및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방범대사 이취임식</li> <li>- 동화소식란</li> </ul>
제9호 (1997년 4월) /4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논단 : '97줄다리기</li> <li>- 수원(고색) 줄다리기에 참가하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대원아파트 분양(광고)</li> <li>- 청년회장 취임 및 이임 인사, 척사대회, 당직보수, 고색청년회 바자회</li> </ul>
제10호 (1997년 8월) /4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소각장의 문제</li> <li>- 이모저모 : 황소개구리만의 뜻인가</li> <li>- 육교, 이대로 좋은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동 관내 4개동 체육대회, 방범대, 청년회 단합대회, 바자회</li> <li>- 사랑방 : 노인잔치</li> <li>- 옹기종기 어린이전 개원 6주년 기념 축제 한마당</li> </ul>
제11호 (1997년 12월) /4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교에서 위험하게 노는 아이들</li> <li>- 동민체육대회(개선 필요)</li> <li>- 방범대장 취임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산-대한-태산아파트 입주자 환영</li> <li>- 평동사무소 준공식 소식</li> <li>- 고색동 풍물굿패 두레 청단</li> </ul>
제12호 (1998년) /8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색동의 역사 및 유래</li> <li>- 인사말씀 : 고색동영농조합장 · 조합의 연혁</li> <li>- 칼럼 : 21C 우리 지역의 모습은</li> <li>- 아파트 소식 : 대한아파트 공사사항</li> <li>- 새마을공고 : 역사와 회관 신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색동 민속줄다리기(척사대회) 결산보고</li> <li>- 농협 고색지소 개소</li> </ul>
제13호 (1999년) /4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세에 물려질 우리의 가락</li> <li>-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우리 지역은</li> <li>- 도시화에 따른 범죄예방 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안내 : 율놀이, 민속줄다리기, 직거래 장터</li> <li>- 고색축구회 안내</li> <li>- 청년회 : 수인철도 서명건</li> </ul>
제14호 (1999년 5월) /6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겁게 배우고 바르게 행하자</li> <li>-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꼭 알아 둘 사항</li> <li>- 환경호르몬 인류를 위협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평지하차도우회도로 보상</li> <li>- 수인철도 지하화 요구 서명</li> <li>- 고색초 개교 50주년</li> <li>- 물류단지 내년 본격 추진</li> <li>- 고색초, 고색중 운영위원회 구성</li> </ul>

구분	주요 기사	기타 소식
제15호 (2000년 6월) /8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줄다리를 마치며</li> <li>- 이착륙 기계용 거주 불가 서수원권 주민 생존권 투쟁</li> <li>- 더 이상 못 참겠다 주민들 서명 돌입</li> <li>- 고색초등학교 개교 50주년</li> <li>- 4·13총선은 오는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소식, 인터넷 설치</li> <li>- 지신빌기 지원내역</li> <li>- 민속줄다리기 결산</li> </ul>
제16호 (2001년 3월) /4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색동 민속줄다리기</li> <li>- 고색동 민속줄다리기 행사에 부침</li> <li>- 고색동청년회의 10년, 그 이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 평동장 프로필</li> <li>- 고색동 게임단지 조성, 수원역고가로 공사</li> </ul>
재간행 1호 (2006년 6월) /4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고문 : 노인회장, 영농조합장, 고색동성당 신부, 고색평강교회 목사</li> <li>- 고색동 현안문제 : 수인선 지상화 및 기차장 문제, 수원산업단지 사용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 공고</li> </ul>
제18호 (2006년 5월) /4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솔대공원사용건에 대한 시의 답변내용</li> <li>-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li> <li>-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청</li> <li>- 수인선지하화 공약 요청</li> <li>- 고색사거리 지하차도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잔치를 마치며</li> </ul>
제19호 (2010년 11월) /8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활주로 이전의 슬픈 이면</li> <li>- 수인선을 어찌해야 하는가</li> <li>- 분당선 지하화 및 주박소 이전대책위원회 진행상황</li> <li>- 분당선 고색-오목천동 구간 지하화 지역주민 요구인</li> <li>- 고색동-오목천동 구간 수인선 지상화의 문제점</li> <li>- 우리가 지켜야 할 고색동의 전통문화</li> <li>- 논문 :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고색동의 미래</li> <li>- 기고문 : 아름다운 고색동 청년들</li> <li>- 3단계 조성공사 오염토양 채취 후 진행사항</li> <li>- 나의 어릴 적 먹던 맛있는 물</li> </ul>	
제23호 (2013년 4월) /8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색동 사청나무 그늘터 열리다</li> <li>- 고색동 솔대마을 꿈을 그리다</li> <li>- 1인시위 200일의 기록</li> <li>- 아이가 행복한 세상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li> <li>- 고색동 사청나무 운시민 봉사센터</li> <li>- 고색동 산업 4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청나무 마을 그늘터 개소 찬조금 명단</li> <li>- 고색동 발전위원회 2012년 지출내역</li> <li>- 고색동 발전위원회 발대식 및 고색동청년회장 이취임식 찬조금</li> <li>- 사청나무 그늘터 사용내역</li> </ul>
제25호 (2015년 5월) /8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대 고색동청년회 회장에 취임하며</li> <li>- 수원시 거버넌스 정책 실험과 성과 그리고 서수원의 미래</li> <li>- 특별기획 : 고색역에 계획 중인 행복주택 어떻게 하나</li> <li>- 수원시의 마을만들기와 향후 나아갈 방향</li> <li>- 수인선 2공구 구간 공사의 개요</li> </ul>	



『고색동 사람들』은 그 역할이 종료되어 폐간되었지만, 이 신문이 남아 있기에 우리는 마을에 대한 고민과 정열로 뜨거웠던 그 시대 고색동 청년들과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1996년에 청년회 사무실을 새 컨테이너로 이전하여 현판식을 가졌으며, 1997년에는 한 기동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창단 기념식에 고색동청년회 간부가 방문했던 사실,<sup>2</sup> 마을 풍물굿패가 창단되어 공연을 가졌다는 내용도 알 수 있다.<sup>3</sup>

또한 1998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비디오플레이어와 냄비 세트를 선물하였는데, 그 이유가 줄다리기가 끝나고 받은 비디오테이프를 플레이어가 없어서 보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듯 『고색동 사람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변화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 3. 마을의 단합을 위해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다

고색동청년회가 주력했던 4대 행사는 칩사대회, 줄다리기, 동민 체육대회, 4개 동(고색동, 평동, 오목천동, 호매실동) 체육대회였다. 내용은 다르지만, 모든 행사의 기본성격은 마을의 단합과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동민 체육대회’는 매년 가을에 개최되었고, 2000년대 후반까지 열렸는데, 동네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컸던 행사였다. 체육대회는 청년회가 주관하지만 동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부녀회와 영농회, 아파트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천배* 청년회는 체육대회 같은 거 계속하면, (중략) 아파트별로 다 팀이 나오고. 아파트 방송해서, 부녀회에서 밥하고, 동네 팀도 나오고. 그래서 아파트 거기 다 교류가 됐어요, 청년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종목도 다양하게 부녀경기도 하고 마라톤도 뛰고 해가지고 막 뛰고, 아주 뭐 그 시절에 보면, 그때 참 재미있던.

김천배는 조기축구회를 하고 마을 활동까지 하느라 둘째 아들 돌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하였고, 아내에게 월급도 제대로 가져다주지 못하여 지금도 이 일화가 회자되곤 한다. 그만큼 청년회 활동에 열성을 다하였으며, 재미도 있었다.



1993년 고색동 칩사대회(고색동큰말경로당 제공)



1995년 추석에 고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체육대회(『고색동 사람들』, 1995년 10월)

척사(擲沙)대회는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줄다리기 행사 전에 열렸던 윗놀이 대회로, 1994년부터 개최하였다. 줄다리기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참가를 독려하고 마을 예산을 모으기 위한 척사대회도 커져 갔다. 모두 청년회와 마을 주민들, 식당들의 후원을 통해 1990년대 중반 당시 상품들은 컬러TV, 자전거, 금반지, 구두티켓 등으로 화려하였다.<sup>4</sup> 이후 줄다리기와 함께 수원시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 체육대회와 척사대회가 마을 주민들이 모이고 단합하는 데 기여했지만, 무엇보다 큰 반향을 얻은 것은 줄다리기였다. 줄다리기는 예전부터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빌며 개최하던 행사였다. 음력 정월 8일을 전후로 용줄을 손질하고, 풍물패가 가가호호 돌며 지신밟기를 한 후, 도당에서 당제를 지내고 나면 풍물패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줄다리기를 하였다.<sup>5</sup> 큰말 줄다리기는 1986년까지 마을에서 이어졌는데 1987년 화홍문화제에서 시연한 후 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단되었다.

심재현 10월 15일에 하는 화홍문화제<sup>6</sup>라고 있었어. 지금은 날짜가 좀 바뀌었는데, 그 화홍문화제를 운동장에서 항상 도민 체육대회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1987년) 시에서 시연행사를 하자 해서 거기를 참여



1997년 한가위 맞이 동민체육대회 시상장면(『고색동 사람들』, 1997년 12월)

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거 (줄에) 비를 맞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줄다리기에 대한 (의의가) 약간 퇴색되어 가고 있을 때였어. 그게 옛날처럼 흥하지는 않았을 텐데. 게다가 보니까 누가 줄도 기대고, 이저다 보니까, 거기 갖다가 말려서 태워 버리고.

김천배 줄이 썩었어요. 비 맞아 가지고. 다 썩었어.

심재현 우리는 그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다시 복원하자 그대 가지고.

이에 고색동청년회는 마을 전통의 공동체 문화인 줄다리기를 복원하기로 하고 1994년 노인회의 고증을 받아 벗짚으로 전통적 형태의 줄을 만들었다. 또한 마을 주민 중 참가자를 모집하여 몇 개월에 걸쳐 지신밟기와 민속 줄다리기를 연습하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줄다리기는 8년 만인 1995년 2월에 재연되었고, 그해 10월 14일에 다시 수원시민의 날 식전행사로 시연되기도 하였다.<sup>7</sup>

또한 1997년 지신밟기와 줄다리기를 토박이들로 고색농악단을 창단하였다. 고색동청년회는 줄다리기를 복원을 함께하며 더 가까워졌다.

김천배 두 달 동안은 다, 직장 다니고 했으니까, 새벽에 와서 하우스를 지어 놓고, 새끼 딸는 기계를 사다가 놓고 계속 틀고. 뭐 이것저것 계속 ...

심재현 다행히 노인 분들이 다시 복원한다 그러니까.

김천배 고증을 해 주셨지.

심재현 그녀가 우리가 설득한 게 없다면, 어른한테(지금은 돌아가신 분들)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전통이 깨지니까 도와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새끼 만드는 데 기부해 주시고 해서 돈 별로 안 들고, 이게 다 복원해서 우리가 막걸리만 ...

김천배 인건비도 안 들인 거지. 청년들이 방에 모여서 다 일해서. 그냥 술이랑 막걸리랑 만들어 놓고, 훗날이래서 지면 그 지는 돈으로 (웃음) 훗날이 두 달 동안 했지.

옛날에 줄다리기 중에는 “동네에 장이 다 없어질 정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붐볐다고 한다. 줄다리기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뿐만 아니라 인근 고색초등학교와도 연계하여 개최되었고, 모두가 마을 행사를 체험하는 장이 되었다.

결혼 후 1987년부터 고색동으로 이주하여 고색초등학교 어머니회를 거쳐 고색개발위원회 활동을 했던 최금옥은 당시 학생 봉사단 활동과 더불어 줄다리기 후 풍경을 설명하였다.

최금옥 고색동에는 유서 깊은 고색동 민속줄다리기 들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그쪽에도 경유



1987년 화흥문화제에서 시연된 후 소실된 고색동 민속줄다리기 용줄 (수원박물관 제공)



1995년 정월 대보름 민속줄다리기 복원(고색동큰말경로당 제공)



1995년 정월 대보름 행사 후원자와 후원금(고색동큰말경로당 제공)



고색동청년회의 노력으로 복원된 고색동 민속줄다리기(1997년, 수원박물관 제공)

를 하게 되고, 학생 봉사단을 이끌게 된 거죠. 왜 봉사단을 이끌냐 하면, 지역에서 거기 반찬, 국수라든  
가 이런 걸 공짜로 줘요. 2천~3천 명, 고날 하루들.

조사자 줄다리기 때죠?

최근 줄다리기 때. 그러면 세빔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야. 하다못해 음식 치우기라도 해야 되고. 애들 봉  
사활동으로 접수도 주고.

‘어떤 전통’이라는 이름의 뿌리는 차츰 사그라들어, 그 필요가 없어지면서 잊히기도 한  
다. 고색동 사람들은 민속줄다리기와 지신밟기, 고색농악, 당고사와 도당굿 등 사라져 가  
는 마을 공동체 유산들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결국 고색동 민속줄다리기는 수원시 향토유  
적 제9호로 지정되었고, 수도권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속행사라는 점에서 수원시뿐  
만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민속줄다리기는 2007년까지 고색동청년회에서 주관하다가 2008~2011년에는 고색개



고색전통농악보존회(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발위원회에서 개최하였다. 하지만 행사 주최를 둘러싼 갈등으로 2012~2015년에는 행사가  
중단되었고 2016년부터는 고색민속줄다리기보존위원회가 이어 가기로 하였다. 고색농악  
은 고색전통농악보존회 등이 계승하고 있다.

현재 고색민속줄다리기보존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성은 다른 지역에서 만들거나  
꾸미는 축제가 아닌, 마을에서 하던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영성 마을에서 우리가 돈 걸어서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자기들이 어디 나가자 그대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다들 십시일반 돈 내고 막 하던 전통이 있어서. (생략) 그대  
서 민속 관련된 학생들이나, 대학원 박사과정 받고 막 이런 사람들, 나를 찾아와요. (생략) 예전 그  
대로 하니까. 이게 중요한 자요지.

2014년 고색향토문화전시관<sup>8</sup>의 개관은 지금까지 내려온 지역문화를 전승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시관에는 고색동의 역사부터, 고색영농조합, 고색줄다리기, 고색동의 비전까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수원과 고색동 일대의 역사에 대한 특강도 개최<sup>9</sup>하는 등 지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문화학교 주관 프로그램으로는 2021년 현재 요가, 모듬북, 커피강좌를 열고 있다. 그리고 전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비록 전시관 운영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있었지만, '마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고색동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런 부딪침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동네의 일을 누가 하고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에 점점 소원해진 시대이기에, 마을에 대한 애정은 마을을 위해 발로 뛰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동네 사람들의 만남과 문화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업의 이름으로 변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것이다.

고색향토문화전시관(2014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 4. 개발 바람 속 마을 살리기

1980년대까지 동수원에 비해 도시화의 진전이 더디고 수원의 지역에서 주변부로 여겨졌던 서수원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개발지로 대두되었고, 고색동도 다양한 개발 이슈가 발생하였다.<sup>10</sup> 이에 고색동 주민들은 고색동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의 방향을 주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 전체를 포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1995년 '고색동개발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출범 당시 개발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도시 산업화로 인한 고색동 개발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민생활 편익도모 및 쾌적한 환경보전 등 동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sup>11</sup>이었다.



오목천동 쓰레기소각장(「고색동 사람들」, 1997년)

2000년대 들어 고색동청년회 인원이 줄어들고 그 역할이 분산되어 운영됨에 따라, 청년회의 마을 행사 주관은 차츰 줄어들었다. 대신 고색동청년회 사람들은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1990~2010년대에 고색동 주민들이 당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원비행장, 수원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기피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악취·환경오염 문제, 둘째 수원산업단지 조성 및 수인분당선 개설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고색동에 있는 소각장의 미비한 시설과 오염물질 배출, 수원비행장 소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악취 등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악화시켰고, 고색동을 기피할 동네로 인식하게 했다. 개발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백선기는 이런 문제들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당시를 이야기하였다.

백선기 저도 이제 개발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진짜, 수원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고색동, 평동, 오목천동을 얘기하면 못사는 동네! 비행기 소음 많이 나는 동네. 또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는 동네, 이걸로 아주 유명했어요.





모르겠다, 내가 스스로 추측할 정도로다가 안개가 자욱하게 겹치. 옆에는 뚝 깎잡아요. 위생처리장이라고. 분노처리장이야. 근데 지금은 저렇게 해놨지, 그 당시에는 다 노출돼 있어요. (중략) 그런데 이게 많이 깨진 데가 많아. 그러면 이제 저기다 나 빠트리겠다. 이런 거 깎잡아요. 어 이게,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위생처리장 이렇게 도로 하나를 두고, 그러니까는 건물 안에 도로에 있는 도로든이고. 애 여기 애 여기.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거지.

한편 수원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고색동은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되었다. 산업단지는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고색동 사람들의 삶을 그 기저에 흔드는 것이었고 특히 고색동청년회는 환경오염문제를 제기하였다.<sup>14</sup> 이 문제는 수원시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원산업단지에는 환경오염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체의 입주가 제한되었다. 또한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시설의 운영을 감시하도록 요구하였다.<sup>15</sup>

또한 수인선 확장과 분당선 연장은 지역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채 철도청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수원시에서 자체 노선안을 중앙에 요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즉 철도청 노선대로 건설될 경우 전철 노선과 국도 노선이 불과 100~200m로 근접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회노선 마련이 요구된다. <sup>16</sup> 이와 함께 수인분당선 지하화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이 추진을 놓고 수원시와 갈등을 겪다가, 2013년 3월에 최종적으로 수인선 수원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확정하였다. 당시 청년회에서 전근배와 김이중 등이 참여한 '수인선 지하화 대책위원회'가 2012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하였다. 시위 후 "국회의원들이 국정질의를 하고 수원시장이 현장 방문을 하고



수인선 전철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고색동 사람들』 1993년 12월)

행정공무원들이 알려고 노력하고 주민들이 기뻐<sup>7)</sup>했다고 한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2013년 4월 말에는 '주민감사잔치'도 개최하였다.

이렇게 고색동 사람들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마을의 이모저모를 해결해 나갔다.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들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고색동에서 이렇게 역동적인 주민자치가 행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궁금해진다.

**이영성** 그래서 개발도 늦게 됐지만은. 이왕 늦게 되는 건 잘 되게 하려고 많이 움직인 거지. 전체적으로

**조사자** 고색동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된,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영성** 그것도 전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줄다리기를 할 때도 이리로 와서. 80년대 이럴 때. 인근 여기 아까 조합 만든 사람들 거의 다 왔거든. 화성 이전 데서 30개 동네가, 풍물패가 온 정도였으니까. 할 때 그런 것도 전통인 거고.

**조사자** 농사를 여기가 크게 지으시고.

이영성의 구술이 주민 모두의 생각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잘 되게 하려고”라는 말 속에 고색동 사람들 모두의 열망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동네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일상들은 전통으로 기억되고, 이것이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다시 사람들을 모으게끔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에 대한 애착은 고색동이라는 지역이 더 묻히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요소가 되었다. 고색동청년회는 마을 사람들의 소통과 화합을 담당하면서 체육대회나 노인 행사, 마을 방범대 활동 등을 활발히 벌였지만 점차 그 힘을 잃어 갔다. 하지만 잠시 주춤했던 청년회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 속에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2020년대 이후 청년회는 어떤 변화를 맞고 있을까? 마을 공동체라는 ‘큰 나무’는 새로운 가지들을 접붙이기도 하고, 그 가지들은 같은 즐거움을 공유하고, 즐기는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 선배들이 그랬듯 앞으로 고색동청년회는 튼튼한 뿌리를 공유하며 더 많은 가지를 뿜고 더 아름다운 꽃을 틔우기를 바란다.

# 수원시정연구원

##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 고색동은 1963년 수원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수원 토박이'보다는 '고색 토박이'로서의 정체성이 강할 것이다. 한편, 토박이에 대한 일반 국민 견해를 보면 '어버지'로부터 이 지역에 살아가 '토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외연하기, 인성 살기, 명신주기, 영글줄타 넘기지 않기'와 같은 실천지침 사이에서 격동한 교향을 추구하는 것이 토박이와 전통 사회의 운영 원리로 작동되면서 공동체적 마을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마을 사회상을 추정할 수 있다.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제11권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173쪽과 368쪽 참고)
- 『고색동 사람들』 제9호, 1997년 4월, 1면.
- 『고색동 사람들』 제10호, 1997년 11월, 3면.
- 『고색동 사람들』 제3호, 1994년 2월 18일, 1면; 『고색동 사람들』 제7호, 1996년 4월 1일, 6면.
- 김용국 외, 2017, 『수민선변 공동체문화 연구』, 경기연구원, 103~104쪽.
- 청흥문화제는 1964년 이후 개최되어 온 수원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2000년부터는 '수원화성문화제'로 개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고색동 사람들』 제5호, 1995년 10월 1일, 1면.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276에 위치한다. (<http://gosaekhm.k/Default>).
- 박영희, 『수원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고색동 이야기』, ([http://gosaekhm.k/community/news\\_read.php?id=87&no=6](http://gosaekhm.k/community/news_read.php?id=87&no=6)), 2015.3.29.
- 정부매, 2014, 『수원의 도시경관 변화』, 『수원시사 제2권 :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293쪽 참고.
- 『고색동 사람들』 제8호, 1996년 8월, 4면.
- 『고색동 사람들』 제6호, 1996년 1월 1일, 2면.
- 『고색동 사람들』 제15호, 2000년 3월, 3면.
- 『고색동 사람들』 제2호; 『고색동 사람들』 제4호 참고.
- 『고색동 사람들』 제18호, 2006년 5월 16일, 2~3면.
- 『고색동 사람들』 제6호, 1996년 1월 1일, 1면.
- 『고색동 사람들』 제23호, 2013년 4월 13일, 4면.

# SRI

고색동개발위원회,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CITY POLICY RESEARCH CENTER  
수원시정연구원

전통적으로 자연환경에 기대어 살며 인구가 많지 않던 서수원 지역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비행장,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등의 기피시설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관 주도로 들어섰다. 그 결과 서수원 지역은 각종 소음과 악취, 오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고색동 주민들은 이러한 난관을 헤쳐 가고자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동시에 주변 지역과도 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갔다. 그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색동 개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1. 고색동 일대에 들어선 비선호시설의 문제

### 1) 수원분뇨처리시설 개선 요구

고색동과 오목천동 사이 황구지천에는 일명 '똥창고'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분뇨 수거차량이 분뇨를 그냥 버리고 갔다고 한다. 이에 고기 잡고 미역 감던 황구지천이 오염되었고, 악취가 났다. 1977년 시에서 고색동 897-7번지(당시 오목천동 85-2)에 만든 분뇨저장탱크는 시멘트로 만든 저장탱크일 뿐 제대로 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그



황구지천 주변(고석동 897-7)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1990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고석동 897-7번지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1977년, 수원박물관 제공)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수원시는 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 수원시분뇨종말처리장(현 수원시위생처리장) 설치를 결정하고 1981년에 준공하였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57번지(현 고색동 621번지) 일원에 설치된 처리장은 1만 532㎡의 부지에 140㎡/일 처리용량의 시설을 갖추었다.

그러나 수원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시설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1991년 5월 21일 『한겨레』에는 화성군 태안읍 배양리와 기안리 일대 주민 1,000여 명이 수원분뇨처리장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분뇨를 인근 황구지천에 마구 흘려보내 하천은 물론 16만여 평의 논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악취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심재현 옛날에 여기에 분뇨처리 이전 경 다 여기다 쏟아 부었던 건데, 우리가 그걸 정지시켰는데도, 버릴 데가 없으니까 또 몰래 와서 버리고 했어요. 열태명 시장이 당시에는 환경운동을 했어요. 나랑 잡목해 가지고 (분뇨나 폐수 버리는 사람들) 잡고 그랬어요. 아 당시 열 시장이, 저 젊은 친구가 좋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어요. 환경운동센터가 1994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환경운동센터 초창기 멤버가 된 거예요. 당시 열 시장이 여기가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체육 공간 같은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분뇨저장탱크에 분뇨를 버리는 분뇨수거차량 (1977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분뇨종말처리장

수원시분뇨종말처리장(고색동 621번지) 조감도



1980년 수원시분뇨종말처리장(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1992년 수원시의회 보사재정위원회 의원들의 분뇨처리장 방문(수원박물관 제공)

수원하역구센터

특히 1990년대 서수원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고색동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뇨처리장 시설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명성 청년회에서 분뇨처리장 이전 것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요구하고. 냄새나는 거 잡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전에는 분뇨도 황구지천 거기다 버렸으니까. 원래 시멘트로 만들어진 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굳어지고 청소나 관리가 잘 안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최근에 악취 신고가 들어오면 새벽에도 달려가고 그랬는데, 분뇨처리장이 지금은 저렇게 해놨지만, 예전에는 다 노출돼 있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여기다가 다 넣어 놔. 그냥 이게 수십 개야. 그니까 여기서 냄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많이 깨진 데가 많아요. 거기 빠져도 아무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이게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위생차가 같이 이렇게 도로 하나를 두고. 그러니까 그 악취가 어디서 오는 건지 서로 미루는 거예요. 분뇨처리장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는



1981년 분뇨종말처리장(고색동 621번지)



1987년 분뇨종말처리장



2000년 위생처리장(고색동 621번지)



2023년 위생처리장(고색동 623-1번지)과 음식물자원화시설(고색동 621번지)

냄새라고 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버리는 거예요.

처리장은 총 340m<sup>3</sup>/일 규모로 개선되었고, 2002년 12월 500m<sup>3</sup>/일 규모로 처리용량 증설이 인가되었다. 그러나 처리장의 면적은 2003년 12월 20일 수원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고색동 623-1번지로 주소가 바뀌고 9,850m<sup>2</sup>로 축소되었다.

수원시는 2012년 말부터 136억 원을 들여 고색동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 말에 완공하였다. 현대화된 분뇨처리시설은 악취 발생시설을 지하화해 밀폐시키고 신기술을 도입한 탈취기를 설치하는 등 악취 제거에 성과를 가져왔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기존의 노천 분뇨처리시설은 철거하였다. 이처럼 현재의 분뇨처리가 쾌적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된 데는 고색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과 감시 활동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 2)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 문제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3년 인가되었는데, 수원시분뇨처리장이 설치되었던 고색동 621번지(3만 4,287m<sup>2</sup>)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이어 2006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시설을 준공하였다.

표 1 수원시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

시설명	수원시음식물자원화(퇴비)시설	수원시음식물자원화(사료)시설
위치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길 432(고색동)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길 432(고색동)
부지면적	13,408m <sup>2</sup> (연면적 2,505m <sup>2</sup> )	10,0525m <sup>2</sup> (연면적 2,080m <sup>2</sup> )
시설용량	50톤/일	160톤/일
처리방식	호기성 퇴비화	건조 사료화
가동연도	2003년	2006년
위탁운영	서울식품공업(주)	서울식품공업(주)
2013년 기준 운영실적	음식물 처리량 : 14,017톤 일 평균처리량 : 45톤/일(가동일수 310일) 퇴비 생산량 : 817톤	음식물 처리량 : 47,780톤 일 평균처리량 : 154톤/일(가동일수 311일) 사료 생산량 : 3,054톤
악취 방지시설	세정식 스크라바-4대, 바이오필터-6대 처리용량 : 1000m <sup>3</sup> /min	세정식 스크라바-2대, 바이오필터-2대 처리용량 : 450m <sup>3</sup> /min

출처 : 수원시음식물처리시설(<http://suwon.energysoft.co.kr>)

그러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되면서 고색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함을 겪게 되었다. 처음에는 악취가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자다가 악취가 나서 깨어나는 등의 고통을 받았다. 점점 심해지는 악취에 주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백선기** 제가 개발위원장을 2006년도에 하면서, 음식물 정화시설은 무조건 냄새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최금옥 씨하고 저하고 몇 명에서 울산, 춘천, 경기도 광주. 다 돌아다니면서 거를 수집을 한 거죠. 우리는 폐쇄보다는 대신에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걸 갖다가 시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걸 어디 지역에서 받아주겠느냐. 혐오 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냄새는 확실하게 제거하게 하자. 이제 그런 쪽으로 잡아가지고 움직인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자는 쪽으로 했죠. 그 냄새가 어디까지 날아 왔냐면 서부경찰서 뒀어까지 났었어요. 제가 고색동 태산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창문을 못 열어 놓고 자요. 아파트에서 거기까지가 2km는 될 텐데, 자다가 깨 정도로 심했어요.

당시 고색동개발위원회 회장 백선기와 총무 최금옥은 직접 발로 뛰면서 자원화시설 문제를 수원시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원화시설도 직접 방문하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갔다. 고색동개발위원회는 환경부와 법제처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질의를 통해, 2007년에 저산·대산·대한·우림 아파트 동 대표 및 개발위원회 위원을 발기인으로 고색동개발위원회에 에너지 자원화시설 피해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의회 사무국과 수원시청 청소과장을 면담하면서 주민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피해주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4월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8월까지 4,24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법률시행령 개정 청원접수를 하였다.

주민대책위원들은 울산시 중산동 자원화시설을 견학하고, 악취가 보고되면 바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2007년 6월에 고색동자원화시설 퇴비화시설 발효조 공사 현장을 찾아 발효조 2기 설치와 1기당 처리 규모가 30톤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 사무관을 면담하고 현행 '폐촉법'이 불합리한 제도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정을 통해 주민지원을 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는 성과가 있었다.

2008년에는 수원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고색동 소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 지원



2003년 수원시음식물퇴비화시설(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06년 수원시음식물사료화시설 준공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위생처리장을 2003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퇴비화시설

① 음식물 반입동 ② 음식물 전처리동 ③ 발효동 ④ 후숙동 ⑤ 선별 및 제품저장 ⑥ 수처리시설 ⑦ 탈취시설



2006년 준공한 음식물사료화시설

①~② 음식물 반입구 ③ 음식물 처리동 ④ 수처리시설 ⑤ 탈취시설 ⑥ 편의시설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주민청원을 접수하였다. 여기에는 고색동 주민 4,240명의 서명 날인과 해당 지역 시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었다.

주민청원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되면서 고색동 소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일일 평균 15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있지만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sup>1</sup>

마침내 2008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자원화시설 탈취시설 보수 및 교체작업이 진행되었고 실질적인 악취는 미비하게 검출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9년 1월에는 주민요구사항을 접수할 주민대표 3인을 위촉하였고, 주민대표 3인은 연구용역팀과 협의를 거치면서 150톤 이상의 음식물 반입은 불가하게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시 발생 분은 반입 불가, 신규 복지관 설립, 주민감시단 근무, 피해지역 주민 보상 등도 협의하였다. 해가 바뀔 2010년에는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110만 수원시민이 나누어야 할 고통을 고색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만큼 제대로 된 주민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자원화시설과 청소과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원화시설 운영을 점검하였다. 고색동청년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1년 2차에 걸쳐 수원시에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악취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고색동 주민들은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17년 6월 고색동개발위원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다시 방문하기도 했다.<sup>2</sup> 수원시에서도 이 문제가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고색동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수원시의회 상생발전특위에서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증설 시에는 일 100톤의 음식물을 더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음식물자원화시설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고색동 마을 주민과 수원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떠올랐다.

수원시는 고색동을 비롯한 서수원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으로 2006년 12월에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을 개관하였다. 비록 이것이 고색동 주민들 개인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 하더



음식물자원시설 주민대표 방문

라고, 주민 전반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편익 시설은 고색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건강, 교육, 문화생활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수영장, 체력단련실, 실내 스크린 골프 등이 가능한 생활체육, 성인 정규강좌, 일일/단기 특강, 어린이/청소년 강좌, 유아와 엄마랑 강좌 등의 평생교육과 주민 지역 성장을 위해 온 동네 함께 배움터, 서수원 문화플리마켓 등의 지역문화 프로그램과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고색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sup>3</sup>

*백선기* 그 편익시설은, 고색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와 걱정이요. 피해 보상을 그걸로 해준 거예요. 수영장, 헬스장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고색동 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인들이 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 5만 원이라고 하면, 고색동 주민은 한 2만 원인가 얼마 내고 이용을 해요. 운영은 YMCA에서 해요.

### 3)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과 이전 요구

고색초등학교는 1980년 문교부에서 농촌형 시범급식학교로 지정하여 다른 학교에 비해 일찍 학교 급식이 시행되었다. 사실을 확인할 순 없지만, 고색동 주민들은 이것을 수원비행장과 연결하기도 한다. 고색동이 수원 공군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여 그 혜택으로 급식을 일찍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교실 창호도 교체해 주었다고 한다.

고색동청년회에서 발행한 신문 『고색동 사람들』 제5호에도 수원 공군비행장 관련 기사가 실렸다. “민항기 취항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 민자당 이호정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원 공군비행장에 민항기를 취항하고자 추진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수원 비행장 민항기 취항 시민결의대회를 결성해 해당 지역 시의원과 참석자들의 비난을 샀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시의원인 심재현은 민항기 취항에 반대하면서 서수원 지역 14만여 명이 심각한 소음 공해에 시달릴 것이라고 염려했다. 마침 이 의원의 민항기 취항 건의안은 국방부와 건설교통부가 군사작전 운용 및 군사 보안상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긴 하면서 보류되었지만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들의 염려가 점점 커졌다.<sup>4</sup>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도 소음, 대기 오염 그리고 교육 등의 문제를 염려하여 기존 비행장의 소음 공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1995년 11월 1일~5일까지 5개 지점을 선정해 항공기



1951년 수원비행장(NARA 제공)

소음도를 측정했는데, 결과는 5개 지점의 평균치가 김포공항 주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공항 일대에 학교 시설이 거의 없으나 수원은 다수 존재하고 있어 교육 여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민항기 취항은 도시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대기 오염의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및 수원 시내 도심의 생활권 근거리에 위치한 공군비행장의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한편, 1996년 당시 심재현 의원은 고색동 지역 청년들과 함께 서수원 일대에 대한 비행기 소음 문제를 측정하고 김포 비행장보다 더 심각한 소음 공해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수원 지역 시의원 7명으로 민항기 취항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했다.<sup>6</sup>

그러나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랐으므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원비행장 위치도(구글지도)

문제가 아니었고 주민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마을 주민들의 연대와 대응은 지난한 과정이었다. 뉴밀레니엄 2000년이 도래했어도 해결은 아직도 멀게 느껴졌다. 주민들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서수원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고색동 주민들은 지난 반세기가 넘는 동안 군용 항공기 소음에 시달렸던 상황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를 계속해서 다져 나갔다.

마침내 2000년 3월에 수원시의회가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과 경제적 손실 평가를 근거로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보상특위)'를 결성하였다. 기초단체의원들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분단 이후 계속해서 비행장 소음으로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도시환경을 더 이상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보상특위의 구성은 그 의미가 컸다. 심재택 수원시장은 서수원 지역으로 나가거나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해 왔으며 보상특위 활동을 통해 서수원이 개발되도록

# 수원 공군 비행장 민항기 취항 절대 안된다.

“소음공해 희생 일방적 강요”

민간항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비행장을 민간항공기 취항을 위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원지역 주민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며 취항을 원천봉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수원비행장은 수원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위치해 있어 취항 시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원 공군비행장 비행소음 측정

· 김포공항 주변지역보다 소음정도 심각 ·

(단) 김포공항 주변 지역과 수원 공군 비행장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도 현황

측정 지점	소음도	측정 지점	소음도
김포구 조양동	72	영동	86
김포구 오창동	80	서양동	82
구로구 고척동	77	구로동	82
양천구 신월동	80	고척동	81
김포구 내방동	70	조각동	89
평균	78	평균	80

(단위: WECPNL)

수원비행장주변지역에서는 민항기 취항에 따른 소음 공해, 교통 혼잡 등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김포공항 주변지역에서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항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비행장을 민간항공기 취항을 위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원지역 주민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며 취항을 원천봉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수원비행장은 수원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위치해 있어 취항 시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원공군비행장 민항기 취항 반대 기사

『고색동 사람들』 1996년 10월

# 수원공군비행장 소음 문제 기사

『고색동 사람들』 1996년 1월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당시 고색동 출신의 대책위원장 심재현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도 피해보상을 받는데 항공소음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음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은 정부에 대해 주민들은 수원역과 남문 등 시내 곳곳에서 ‘소음 피해 보상추진을 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기로 했다.

또 법규상 군용항공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 손해배상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뿐만 아니라 보상특위는 보상방법에 대해 주민 개개인의 손해배상이 아닌 정부 차원의 서수원권 개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개발을 통한 도시발전을 통해 주민 전체의 편익과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수원비행장이 수원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위한 시설인 만큼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크게 목소리를 내었다.<sup>7</sup>

드디어 2011년 대법원은 군용비행기의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또한,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항 초기에는 소음공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시민보고대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09년 수원비행장 피해조사용역 최종보고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비행장과 맞닿아 있는 고색동(김승일 제공)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음의 기준을 측정해 기준이 넘으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서수원 지역 주민은 법률소송대리인을 통해 접수를 하고 소음 측정과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았다. 고색동 지역을 포함한 탐동 등은 법률소송대리인을 통해 접수를 하고 소음 측정과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sup>8</sup>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해당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초등학교 교장,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 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150여 명의 학부모 등이 모였다. 소음에 따른 수업 평가의 어려움, 운동장 체육 수업의 어려움, 새 쫓는 대포 소리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 전투기가 낮은 높이로 날아갈 때 창문과 책상이 흔들리는 게 느껴져 불안해한다며 아이들의 생존권,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좋은 환경이 오길 바랐다.

또한 수업 중 소음으로 교사의 교육내용 전달이 불가능하고 수업이 끊어지며 발표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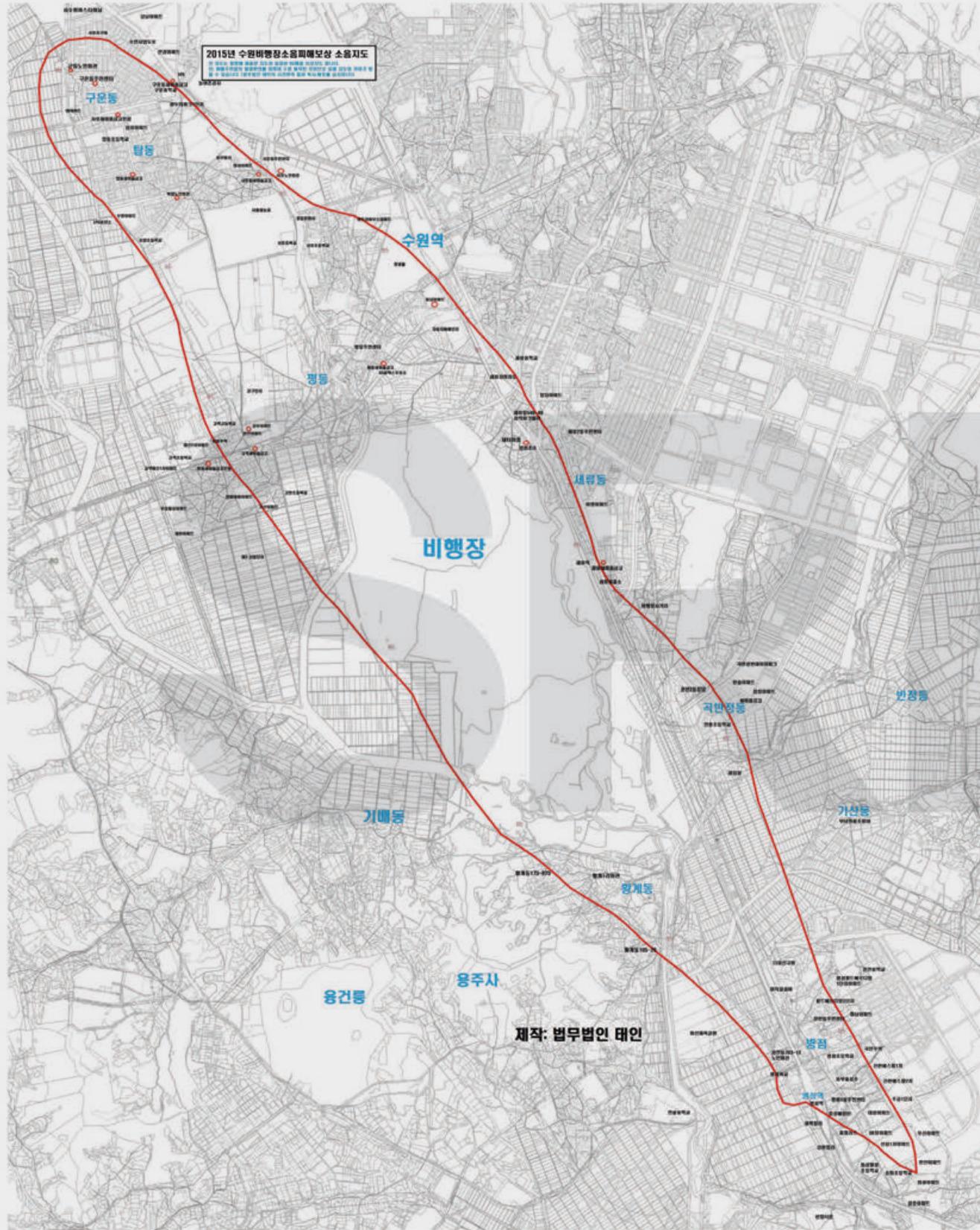
시에도 소음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학생들이 산만해지고 발표 의욕이 상실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영어 듣기평가 시 항공기 소음으로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시 항공기가 지나가는 굉음과 항공기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공포감을 갖는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피해 학교에 방음창 설치 및 보강을 추진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창호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의 환경 개선공사와 체육관 설립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이처럼 비행장 소음 공해에 피해를 입는 학교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대해 갔다.

고색동청년회에 소속되어 이 문제에 동참했던 이영성은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전한다.

이영성 이제 이게 국방에 관련된 거라,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음 피해 쪽으로 간 거예요. 이전은 뭐 계속 원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근데 보상도 여기 이렇게 표시된 파란선 안에 있는 사람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피해가 적은데도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피해가 큰 데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국방부가 하는 거예요. 용어를 비행안전구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데들 들어 건물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낮다(저층) 그러면 거기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각인은 피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음이 관철돼서 소음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일부 보상받는 거지요. 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지원받고.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지을 때 건물도 소음 막아야 했으니까요. 특히 고색동에서 소음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죠. 초등학교 강당에 모이고 그랬으니까. 시작은 90년도 후반에 했는데 대책위원회 소음 피해 쪽으로는 2000년도 초에 했어요. 고색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이 2003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공청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소음 피해 쪽은 그때 한 거지요. 그래서 개인 가구당 한 서너 차례 받았어요. 고색동 평동 서동 탐동 다 거기 3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다 받았어요.

이처럼 지속적인 고색동 주민들과 서수원 주민들의 노력은 마침내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기지의 이전을 승인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예정지로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가 선정되었다. 비행기 소음에 몇 십 년간 시달린 주민들은 전투비행단의 이전을 환영하며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군공항 예정지가 속한 화성시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군공항 이전 계획은 실행되지 못한 채 4년 넘게 표류 중이고, 고색동을 포함한 서수원 주민들은 소음과 공해 피해를 그지 견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이 문제는 국방부가 제 6차 공항 종합계획에서 화성시에 경기 남부 민간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하면서 다시 해결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기대감이 크다. 게다가 수원시도 화성시에 들어서는 경기 남부 민간공항의 사업비와 교통, 환



2015년 작성된 수원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 배상지역



2014년 수원 군공항 이전건의서 접수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센터

경 등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는 해결이 되는 듯하다.

## 2.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개발

### 1) 수인선 전철 지하화<sup>1)</sup>

1994년 고색동 마을신문에서 고색동청년회 임원 일동의 “주민 서명에 감사드립니다.” 기사가 눈에 띈다.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색동의 현안에 대해 서명에 참여한 것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다. 고색동 주민들이 공업단지 유치나 수인선 전철 복선화 및 마을 관통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지만,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기관의 편익주의적 발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그러면서 주민이 필요한 곳에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이 필요한 곳에 주민이 필요한 것은 원치 않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sup>1)</sup> 이러한 입장 표명은 지방 정부의 권한이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그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중요한 대목이다. 고색동에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 온 것은 주민연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진단과 성찰은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7년 수인선 복선전철사업이 기존 수인선 부지를 사용해 지상으로 건설한다는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수인선 지하화의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랐고 고색동 주민들도 대응을 시작하였다. 고색동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 주민들은 고색동-오목천동 구간 수인선 지상화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였다.

먼저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역철도사업이 수원시민의 편리한 삶을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지상으로 관통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희생을 강요받는 것이 된다.

또한 제대로 된 환경평가나 주민공청회도 없이 계획된 수인선 지상 관통은 누구를 위한 철도사업인지 되물었다. 그리고 주차소 설치 문제를 언급하면서 야간의 정차, 소음, 미관 저해, 지역 단절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인 우림아파트 옆에 주차소를 세우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sup>12</sup>

수인선 지하화를 위해 주민들이 연대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 사회단체, 정치인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191일 동안 지속한 1인 시위는 전체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폐선된 수인선 철길



지상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고색동 차량기지 조감도

2010년 출범한 수인선 지하화 대책위원회 3년간의 여정에서 수많은 실무회의,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와 더불어 1인 시위까지 함께한 주민들의 연대는 고색동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절실함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sup>13</sup>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20년간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2013년 수인선 지하화가 결정되었다. 고색동을 포함한 수원시 구간 공사 추가 비용을 수원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하여, 수인선 전철 고색역을 지하에 건설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색동 주민을 포함해 오목천동 등 주변 지역의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회를 비롯한 고색동 주민들이 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한 결실이었다.



수인선 지하화 및 주차소 이전 대책위원회 진행상황 ('고색동 사람들', 2010년 11월 23일)



수인선 지하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고색동 사람들』 2013년 4월 18일)

이영성 기준에 수인선 철도가, 우리는 국유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으니까 철도공단 땅이 많아요. 옛날 철길 땅을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관심을 가졌고, 그게 쪽 이어져 내려왔죠. 철도공단 얘기는 지하화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기술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청년회 할 때부터 김기태, 심재현부터 쪽 내려가면서 계속 청년회에서는 지하화 이거를 관심 갖고 공청회도 열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김이중씨가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지하화 운동을 했죠. (중략) 3,000억 더 든다는 건 1,600억 든 걸로 대안을 제시했죠. 청년회에서 세부적인 일은 다 한 거예요. 서류해서 철도공단 시에다 올려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철도시설공단이 있는 대전까지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가서 만나서 같이 시에 가서 또 시설 관리하는 팀에서 같이 추진했고 시, 철도공단, 여기 수인선 대책위원회, 청년회가 많이 중심이 돼 있지. 또 우리가 공청회에서 이런 거 얘기하고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럴 수원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시찰을 나가서 당시 청년회장하고 나하고는 시장하고 철길 위에 걸으면서 이제 설명도 해주고, 물론 1인 시위도 많이 했어요. 대안 제시하고 이런 거를 청년회에서 많이 준비해서 했지. 우리 같은 사람은 좀 그런 걸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대안 제시가 되니까 대화가 된 거예요.

이영성은 수인선 지하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토박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도 토박이로 고색동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수인선 지하화와 같은 지역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움



수인선 지하화 구간(『경향신문』 2013년 3월 11일)

# 수원시정연구회 SUWON CIVIL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센터

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대안 제시가 힘들었을 것이고, 애초 계획대로 수인선이 지상으로 지났다면 고색동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수인선 지하화 문제를 다루는 주민들의 생각은 단순한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섰다. 수인선 건설이 주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음 피해를 최소화해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과 좋은 환경을 가장 우선에 두었다.<sup>14</sup> 이러한 모습 속에 고색동의 성숙한 주민 의식과 강한 행동력을 엿볼 수 있다.

## 2) 지하수 공급 피해 보상

1990년대 중반부터 고색동 마을 주변으로 태산·대원·대한아파트 같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공사로 일부 지역에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고색동개발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사에 이 문제를 항의하고 보상까지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아파트 건설로 몇몇 가구들의 물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자 개발위원회에서 아파트 측과 보상비를 협상하고 아파트 측이 제시한 금액 500만 원보다 많은 1,000만 원을 받아냈다고 한다. 그리고 아파트 공사로 인해 물이 줄어든 가구는 수도공사 기본비용 70만 원 중 50%인 35만 원을 지원하고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하였다.<sup>15</sup>

백선기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하를 파다 보니 지하수가 고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해주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개발위원회가 나서서 협의해서

물 안 나오는 데는 보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개발위원회가 아파트 시공사에 가서 지역개발부담금을 좀 내라고도 했죠. 그 돈을 가지고 경로잔치든지 동네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지역 주민에게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민지도 일어나고, 공사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부담해라. 그렇다고 지금 같이 몇 천만 원씩 그러는 게 아니라 2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모아서 어버이날 행사, 경로당에 어르신들 다 계시니까. 또 줄다리기도 하니까 줄다리 비용도 해주고, 개발위원회에서 그렇게 다 운영을 했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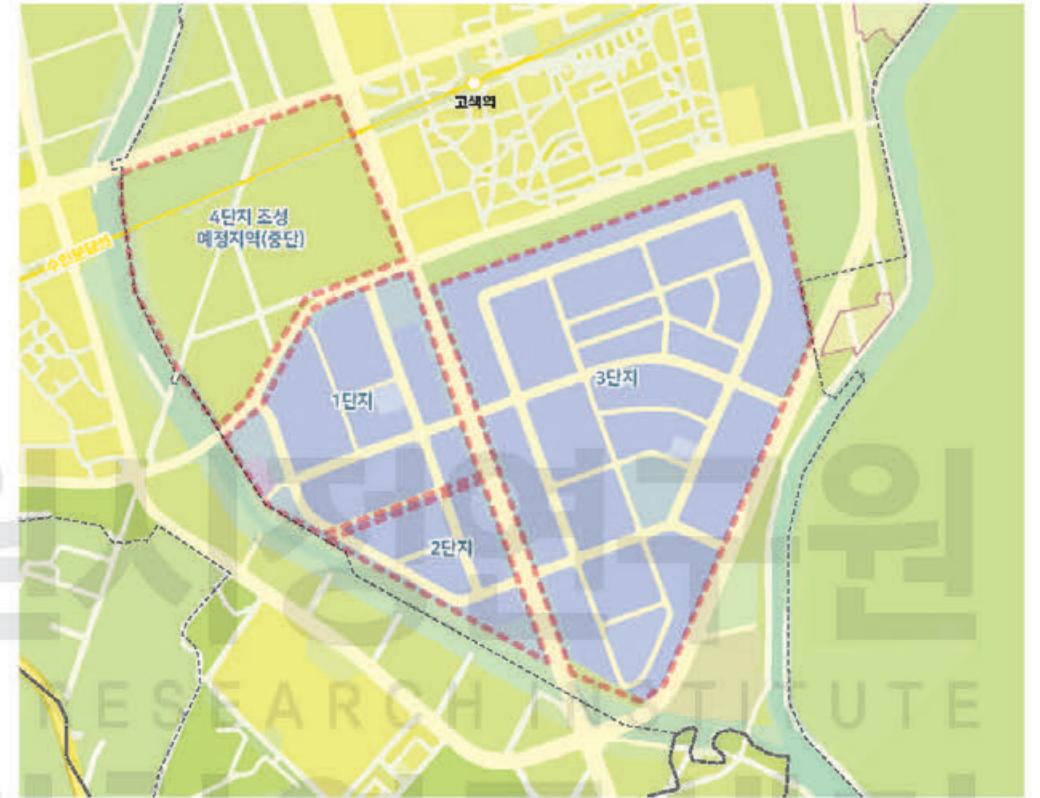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 주민들은 지하수 문제 외에도 소음이나 먼지,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참아야 했다. 그래서 고색동개발위원회는 건설사에게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후원을 요청하였고, 후원금은 마을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청년회와 부녀회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조출한 잔치를 벌였다는 고색동 마을지 기사를 보면, 개발위원회에서 후원해 할아버지들께는 비디오를 선물했고 할머니들께는 냄비 세트를 드렸다고 한다. 줄다리가 끝나고 촬영 영상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드렸는데 경로당에 비디오가 없어서 영상을 볼 수 없으므로 선물했다고 한다.

### 3) 산업단지 4단지 조성 반대

고색동 남쪽에 위치한 수원산업단지는 원래 고색동 일대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땅이었다. 그러나 2003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5만 7,511㎡(38만 395평)의 농지가 산업단지로 탈바꿈하였다. 조원동에 있던 한일합섬이 1990년대 섬유산업의 사양길로 공장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고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 고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에 포함돼 공업지역의 증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일합섬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고색동에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고색동 농경지가 공업지역으로 바뀌던 때는 벼농사의 수익성이 낮아서 눈을 처분하고 싶어 하는 노년층이 다수였기에 자신의 농토가 산업단지로 수용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였던 것 같다. 그러나 수원산업단지(1~3단지)가 조성되고 나니 후회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지하수도 오염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산업단지 내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무너졌다.

중보들공원 체육시설 사용을 두고 산업단지와 고색동 마을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원래는 서로 협의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졌기 때문이다. 고색동 주



수원산업단지(1~3단지)와 4단지 조성예정지역(중단)

민들은 지역신문에 기사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

**심재현**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고색동 주민들은 시냇가로 아주 개털이 됐어.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많이 했다는 것도 없고 고색동 지역공동체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김천배** 우리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찬성할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조건으로 내건 거는 주민들의 취업, 우리 농경지를 빼앗기니까 동네 발전기금 이런 거 해주기로 했는데 공무원들이 다 바뀌고 하니까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4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2013년 3월 수원시는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해 효율적인 업종 배분과 다양한 업종 유치를 통해 서수원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4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2017년 12월까지 사업비 700억여 원을 들여 1단

# 고색동 산업 4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보고

언제 붙었는지 동네 도로가에는 노인회, 부녀회 이름으로 산업 4단지 조성 공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했고 그동안 부정적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산업 4단지 조성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고색동 청년회에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13년 3월 27 수원 시청 대강당에서 있었던 2003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에서였다. 필자는 지난해 120여 일 동안 2030도시계획 마을분과위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이후로도 수원시의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4단지 조성계획(안)으로 노인의 고성이 오가고 강성영 어르신과 지주들이 전하는 입장을 들으면서 고색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속상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7일에 제주 박용선씨를 포함한 고색동 산업 4단지 조성공사를 반대하는 지주모임인 비.대.외.합행부본들이 청년회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진행상의 문제/표현방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러한 예기의 중요 내용은 산업 4단지 조성 계획 반대에 고색동 청년회가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고색동 청년회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유보하고 고색동 대외 협의회기구인 고색동 발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기하기를 약속하고 발전위원회의 발의회의에서 비.대.외.분들의 입장 표명을 듣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석단 발전위원장님께 위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음날 4월 8일 수원시청 공청회 발표를 찾아 고색동 4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취재하고 돌아왔다.

-이러 내용은 고색동 청년회에서 정식 공문을 통한 사항으로 받은 내용이 아닌으로 대외적 하단/본문 자료 및 민청사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법적 책임에 대하여서는 인용자에게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크게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산업 4단지 조성 계획 배경과 조성 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며 두 번째는 4단지 조성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민청 지주)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우선 산업 4단지 조성 계획의 시작은 1966년에 처음 경기도 도시 기본계획에서 공업단지 조성 계획이 나왔고 2008년 11월 (203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수원시 동쪽(상성전차 인근) 지역을 상업 주거 용지로 용도 변경과 산업배후 사업도 활용하고 수원 서남부 지역(고색동 4단지 예정지)에 공업용지를 확보해 이전한다는 계획에 의해 4단지 조성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원시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2008년 당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는 입장이고 서수원 주민(지주)들은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대립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2008년 11월 당시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공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서는 서수원 지역 주민들 누구도 이런 공청회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이 위신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당시 해당 자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었던 만큼 당시 시장은 의도적으로 서수원 지역 주민들에게 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감추었다고 판단되며 4단지 조성 공사 예정지에는 여김없이 축간(가들의 지주)이 진행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 시장에서 수원시의 입장을 물어보면 사업비 700억 여 원을 들여 산업 1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원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18만5천㎡ 규모로 건립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개발 타당성 조사와 개발계획 수립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제정 사항가, 산업단지 심의 등을 거쳐 2015년 1월 착공하고 2017년에 4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발영위제한구역 지정도와 조지조사 작성, 광량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을 개발영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유보된 상황입니다.

물론 수원시의 입장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외부 기업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수의사업임에는 틀림없는 일입니다.

향후 수원시는 산업 4단지 조성을 통하여 전자,정밀기계 등 '신성장 녹색산업 임플'의 공장용지 수요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중요하고 또한 좋은 일이지만 소통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행정을 꿈꾸는 지금의 민선 5기의 수원시가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에 대하여서는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지주)들은 당연히 수원시에서 계획하는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알 권리가 있으며 특히 산업 4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색동 일원의 지역 주민들에게는 조성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재차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과정의 부족함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 갈등의 끝은 또 다른 지역 주민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아무리 과거의 일이었다 해도 귀책사유가 있는 수원시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년 전의 도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아는 지역주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평생 농사만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당시의 고색동 부모님들에게 20년 후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말은 너무 먼 얘기입니다.

무지하고 순박하던 그 분들에게 2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 과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시장에서 수원시민의 권리(재산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하여서는 수원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그 아픔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서는 고색동 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시한 번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지면을 통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12일 수원산업단지 4단지 조성사업 철회 요청 집회

지 인근에 18만 5,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sup>16</sup> 고색동 주민들은 이 계획에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일견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토박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고색 마을을 빙 둘러 가두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기에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너무 커서 쉽사리 찬성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색동개발위원회와 오목천동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산업4단지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를 열고 2013년 5월에 '수원산업4단지 조성 반대 촉구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4단지가 조성되면 마을이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막혀서 삶의 환경이 나빠지며 마을이 아래쪽을 뺀어 갈 수도 없다는 것을 크게 우려해 반대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결국 4단지 조성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백선기 개발한다고 해서 나셔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하고 싸운 거지. 그래서 막은 거죠. 4단지는 동네를 여기에 놓고 생각을 해봐라. 이쪽에도 산업단지, 저쪽에도 산업단지인데 4단지까지 들어오면 동네를 완전히 가둬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나마 그쪽에 4단지 조성이 안 된 거죠.

### 4) 창업지원주택 유치 반대 서명운동

2017년 『경기일보』는 수원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김정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고색역 광장 활용에 관해 지적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사화하였다. “수원시는 수인선 지하철 공사 시작 전인 2013년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통해 고색역 상부 공간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를 고색역 광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아마 말 없다가 갑자기 올 1월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복합타운을 추진하겠다고 해 당장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sup>17</sup>

고색동 주민들도 이 문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시에서 결정한 사안을 우리가 반대

수원산업단지 4단지 조성 계획을 다룬 기사(『고색동 사람들』, 2013년 4월 18일)

한다고 철회되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고색동개발위원회에서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창업지원주택 유지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일은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백선기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백선기** 그때부터 또 뛰어나는 거죠. 뛰어나면서 평동 이쪽 시의원이 아니라 다른 데 시의원들은 불러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걸 한다고 하는데, 15층짜리 2개를 갖다가 하면은 동네를 완전히 가로막고 심각한 주차난도 예상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막아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이거 아니다. 그대가지고 의원들도 나서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일부 의원들은 좋은 것 아니냐고 했지만 우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영태당 수원시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저는 그걸 싫습니다. 고색동 재개발을 계속하면서 15층이 들어가면 같이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다. 근데 지금 재개발이 해지되었는데, 그 앞에다가 15층짜리 두 개만 올라가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게 맞다. 저한테 알았다. 시에서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장님한테 감사해요.

### 3. 고색동개발위원회의 역할

고색동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책 결정이 낡은 혐오 기피시설의 찌꺼기들이 오랫동안 고색동을 괴롭혀 왔다. 악취, 소음, 공해는 유명처럼 맴돌며 사람들의 코를 잡게 하고 귀를 아프게 했으며 눈을 따갑게 했다. 이제 이 문제들은 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어 주민들의 고통은 다소 완화되는 듯하다. 그러나 동시에 꼭 조명되어야 할 것은 큰 정책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오랜 연대와 실천일 것이며, 마을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염려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한다.

고색동 주민들이 여러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데는 마을조직의 역할이 있었다. 큰말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회, 그리고 청년회를 비롯한 여러 마을조직의 통합체인 개발위원회가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고색동개발위원회는 1990년대 증반 소방도로 개설, 수인선 지하화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나의 기구를 통해 추진한다는 데 중론을 모아, 노인회·부녀회·청년회 등의 마을조직을 한데 묶어 구성된 주민단체이다.

**백선기** 90년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개발위원회 명칭을 왜 사용하게 됐느냐 하면, 고색동에 이제 단체가 굉장히 많아졌죠.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각자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개발위원회라는 단체로 묶어서 여기서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동네 행사서부터 모든 걸 여기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심재현** 처음에 청년회가 주축이 되었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 윗 단계에, 청년회나 방범대나 다른 조직을 어우를 수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개발위원회를 만들었죠. 선배들도 이제 전부 포함시키고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로 개발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마을의 현안들도 다 같이 함께 다룰 수 있고요.

1995년 3월 4일 고색농협 조합장 및 동네 원로, 동장, 소방대원, 부녀회장단, 청년회 등 고색동 각 단체의 임원 30여 명의 회의로 개발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배가 초대 개발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조직 구성은 개발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 상임고문, 고문, 개발위원, 자문위원, 자문단체(노인회 및 부녀회)로 하였다.<sup>10</sup> 개발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체육대회·줄다리기·척사대회 등 마을 행사의 모든 기금은 개발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하였다.

고색동개발위원회는 마을의 개발을 추진하는 조직이라기보다 마을을 대표하는 조직, 일종의 대동회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의 여러 현안에 있어 외부와 대화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개발’이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받기도 한다.

**신호정** 그전에 개발위원회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그 무슨 개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개발위원회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전체가 묶여서, 딴 데는 대동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성격인 거예요. 대동회 명칭과 똑같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평동 관내에는 평동개발위원회, 오목천동개발위원회, 고색동개발위원회 이 3개 개발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이 개발위원장들이 가장 어른다. 동네일을 하나씩.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연마을의 전통이 아직 남아 있는 고색동은 마을 주민들의 관계가 하나의 큰 친족 집단처럼 가깝게 지내다 보니 고색동 토박이가 아닌 외지인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다소 보수적이었다고 한다. 고색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개발위원회는 회원이 모두 고색동 토박이였다. 이런 특성 탓에 고색동개발위원회는 타지 출신 주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고색동에서 줄곧 생활한 토박이들은 기존의 마을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편이었고, 타지 생활을 경험한 토박이 중에는 고색동의 새로운 주민, 즉 이주민들도 마을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있었다.

고색동개발위원회 최초의 타지 출신 회원인 최금옥은, 1980년대 후반 연안아파트에 전입하면서 고색동 주민이 되었다. 최금옥은 자녀가 고색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2002년까지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교류를 시작했다고 한다. 학부모 가운데 고색동 토박이들이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결국 개발위원회 가입을 권유받기에 이르렀다. 2006년 고색동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된 백선기는 최금옥이 고색초등학교 학부모회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눈여겨보고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렇게 최금옥은 타지 출신으로서로는 처음으로 2006년 9월 고색동개발위원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고색동개발위원회 회원들은 토박이가 아닌 최금옥이 개발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였다. 심지어 그동안 최금옥과 친분을 쌓고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회원 가입을 탐탁지 않아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백선기가 위원장에게 허용된 재량으로 최금옥이 개발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백선기** 저는 바깥에 생활을 많이 했어요. 바깥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고색동과 다른 지역의 차이도 알게 되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자. 당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자. 그래서 최금옥 씨하고 머리를 많이 맞췄죠. 그런데 최금옥 씨가 개발위원회 들어올 때 처음에 설움도 많이 받았죠. 근데 잘 지금도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건 부분이에요. 개발위원회 회의들 하는데, 내가 총무라고 인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반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보증을 할 테니 걱정 말라.”고. 그 때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건데. 그 사람이 이 정확시설 문제만들은 아마 전국에서 토론하면 이길 사람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

**최금옥** 그때는 어머니회에 출마하지 않고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출마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학교라는 건 지역사회랑 무관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면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때 만났던 분이 백선기 씨였어요. 청년회장이셨을 때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지역사회랑 연계가 되잖아요. 학교는 이제 그렇다치고, 전개가 이렇게 되다 보니, 지역이 낙후되는 과정을 같이 살펴봐게 되었어요. 근데 2006년도에 백선기 씨가 개발위원장이 된 거예요. 되시면서 저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총무를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 개발위원회 들어와라. 근데 개발위원회는 말 그대로 원주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외부인들이 그동안 들인 적이 한 번도 없던 데예요. 제가 딱 첫 회의를 할 때 거기에서 여기 회의하는데 “왜 왔느냐? 남의 동네에.” 외지인이라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선기 씨가 “내가 개발위원장 재량으로 끌어들이는 인원이 있는데 그 재량으로 오게 되었으니 다른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백선기 씨가 저한테 말한 게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원했다면 좋은지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5개년 사업계획을 짜내게 돼요. 그 5개

년 사업계획을 이제 10개년으로 하게 되고, 또 단계별로 나누게 되었어요. 장학사업부터 시작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황구지천 개발, 이전 식으로 제가 그걸 좀 짜주게 되었죠. 이게 마음에 드니까 그 채택을 백선기 개발위원장이 하고, 우리가 지금 지역의 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으니 이것을 이끌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토박이가 아니라며 개발위원회 활동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최금옥의 마을에 대한 열정과 일에 대한 능력을 보고 더 이상 외지인이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백선기는 개발위원장으로 토박이들과 타지 출신 주민들이 계속해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백선기** 그전에는 80년대, 90년대 하면은 원주민이 한 70~80% 됐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던 말이에요. 원주민은 지금 10%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내 것만 고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개발위원장을 하면서 당시에 재산, 대원 뭐 상무, 태산차, 2차, 대한 그쪽 단체장들. 그쪽 아파트 자치회장들 다 끌어들이던 거예요. 그래서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저 그렇게 하고 외부인들 끌어들이라고 동네 선배들한테 혼났죠. 굉장했었어요. 나 목도 많이 먹고 그래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색동은 동네 안에 아파트로 둘러싸인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사람들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 그래서 제가 개발위원장 하면서 아파트, 소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보면 다 아파트 사람들이에요. 아파트 사람들을 자치회장에 다 넣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지역을 위해 도와 달라, 도와 달라 해가지고 체육대회들 그때는 참 재밌게 잘 했었지. 목을 먹은 양정.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그렇게 생기니까 회의한다고 잠깐 좀 나오시라고 하면 다들 인사천리 나와서 같이 논의하고, 체육대회도 그렇고요. 개발위원회에서 주최한다고 해서 개발위원회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논의해서 끌고 하나씩 잘 재밌게 잘 했었어요.

최금옥은 고색동개발위원회 가입 당시는 타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색동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점차 거리를 좁혀 갔다. 최금옥의 마을에 대한 열의와 진정성 그리고 토박이들의 인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경계를 허물 수 있었다.

토박이와 외지인, 안과 밖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던 고색동개발위원회는 2010년 고색동 줄다리기보존회 결성을 기점으로 구성원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고색동 줄다리기를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위해 줄다리기보존회를 법인화하여 고색동개발위원회 안에 두게 되었다. 그런데 고색동개발위원회의 중심축으로 활동하던 청년회가 잠시 흐지부지되었다가 조직을 재건하면서 줄다리기보존회 주도권을 두고 개발위원회와 의

견이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수원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으로 건립된 고색향토전시관을 고색동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는데, 사단법인 개발위원회는 토박이 조직인 본래의 개발위원회와 다른 것이 되었으므로 토박이들의 개발위원회를 다시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두 개의 개발위원회가 공존하게 된 셈이다.

고색동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뭉쳐서 녹여내는 과정을 거치며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 새로운 갈등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잘 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색동개발위원회의 의미와 목적은 초대 개발위원장의 말에도 잘 녹아 있다.

개발위원장은 봉사하는 직입니다. 동민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일을 잘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해를 해 주고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 주시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신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는 함께 돕고 고민하면서 내 일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1. 『CNBNEWS』 2008년 2월 11일.
2. 『고령동』 제3호.
3. 서수원주민편의시설(<http://www.wsoci.or.kr/>).
4. 『고색동 사람들』 제5호.
5. 『고색동 사람들』 제6호.
6. 『고색동 사람들』 제7호.
7. 『고색동 사람들』 제15호.
8. 『고령동』 제12호.
9. 『고령동』 제14호.
10. 수원선 지하화 대책위원장의 면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11. 『고색동 사람들』 제3호.
12. 『고색동 사람들』 제19호.
13. 『고색동 사람들』 제23호.
14. 『고색동 사람들』 제17호.
15. 『고색동 사람들』 제8호.
16. 『경부일보』 2013년 1월 3일.
17. 『경기일보』 2017년 4월 11일.
18. 『고색동 사람들』 제8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 1.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의 탄생

빈잡한 수원역 부근을 조금만 벗어나 서쪽으로 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느새 인가 한적하고 탁 트인 지대가 나온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고층아파트나 화려한 빌딩보다는 오밀조밀한 상가와 학교, 그리 높지 않지만 정겨운 느낌의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삼삼오오 모습을 드러내는 곳, 굽이쳐 흐르는 냇물과 산업단지가 자리한 그곳에 고색동이 있다.

살짝 흐린 어느 날 방문했던 고색동의 경관은 그곳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논밭을 밀어내고 갑작스럽게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생겨난 여타 신도시들과 달리, 고색동은 세월이 흐르면서 남긴 자취를 쭉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단층 혹은 2층짜리의 나지막한 붉은 벽돌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가 하면 최신식 원룸 건물들이 골목 한켠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동네 골목들도 많이 정비되어 1970년대 민속줄다리기가 열렸던 골목보다 더 넓고 반듯한 직선도로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살짝 좁고 굽어 있는 골목을 엿보면 사이사이 갈림길로 다정하게 지붕머리를 맞댄 단층집들과 뒷밭이 보인다.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상점들과 학교,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고 조금 더 한적한 곳에는 산업단지가 공원을 사이에 두고 동네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 도시의 역사가 고색동에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다.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이하 고평플협의회)는 이와 같은 고색동의 역사와 문화를 단순히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을 넘어 주변 마을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의 더 나은 모습



고색동(김승일 제공)

오목천동(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 수원학연구센터



고색동 큰말 주택가



고색동 작은말 상가



오목천동 온정마을



오목육교



고색동 큰말



고색동 태신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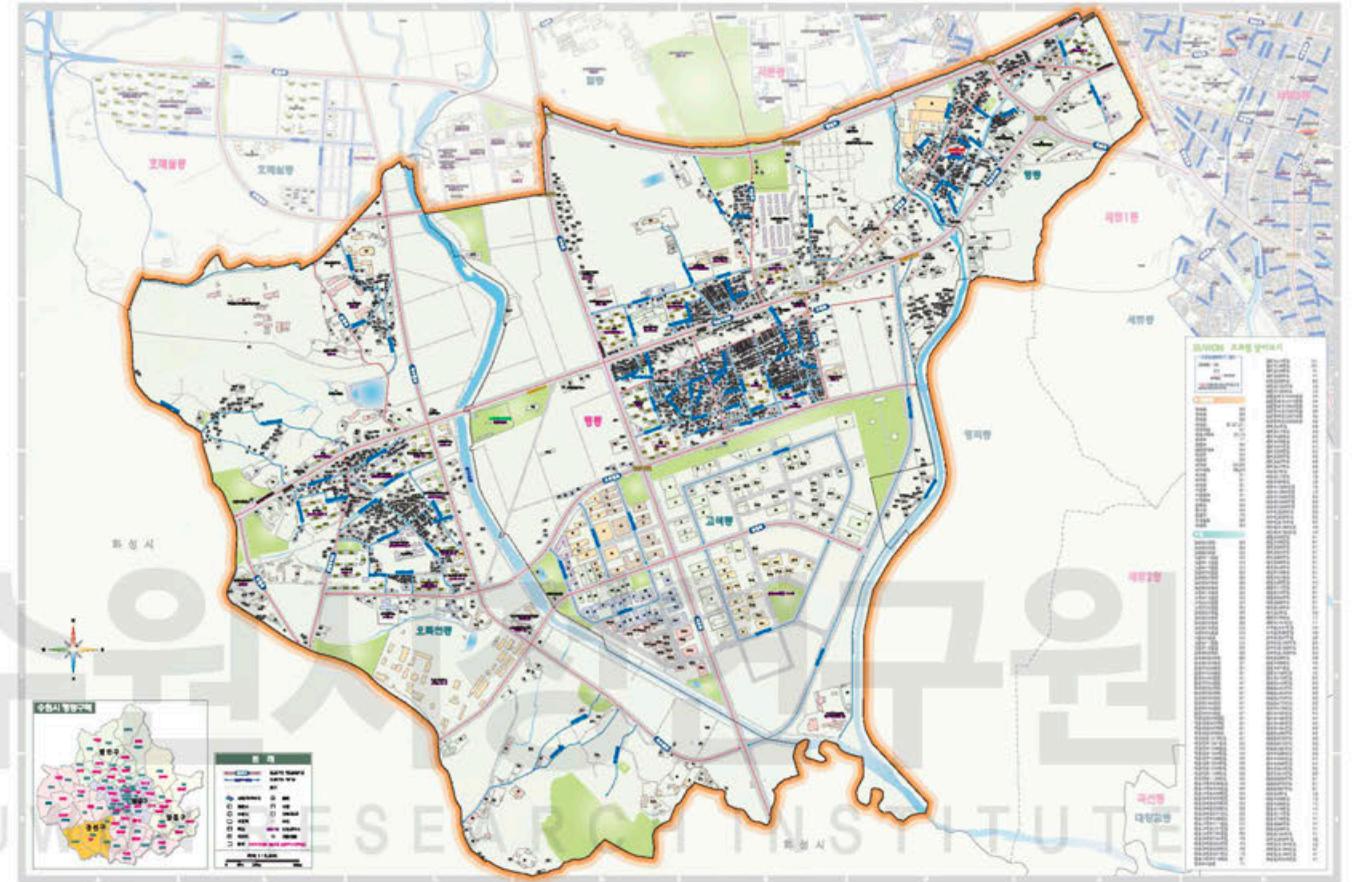
오목천동 상가



오목천동 푸르지오아파트



평동(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지역인 고색동, 오목천동, 평동



평동 상가



평동 거리



평동 동남교에서 바라본 개천



평동 마을

을 향해 나아가는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을 문화특화지역 공모사업(문화마을형)에 선정하였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꾸린 모임인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가 그해 11월 27일부터 개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소박하고 조용한 서수원 지역의 고색동과 평동, 오목천동이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특화지역 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이 지역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다양한 민속 문화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특히 풍작을 기원하는 동시에 군사훈련의 일환이기도 했던 '고색민속줄다리기' 및 그와 한몸처럼 연결된 민속의례인 '고색도당굿'은 지역 주민들의 전통문화 회복 노력에 따라 1990년대에 복원된 이후 20년 넘게 이어져 오는 대표적인 지역문화자원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고유의 전통문화는 지역 발전을 위한 '브랜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협궤열차 운행 중단 및 수인선 지하화로 인해 지상에 남겨진 오래된 철길과 철도 부지는 훌륭한 교통체험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6년 8월 18일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 전체 주민회의



2016년 8월 25일  
창립총회 상정을 위한 정관 만들기



2016년 9월 5일 창립총회



2016년 11월 27일 사무실 개소식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 창립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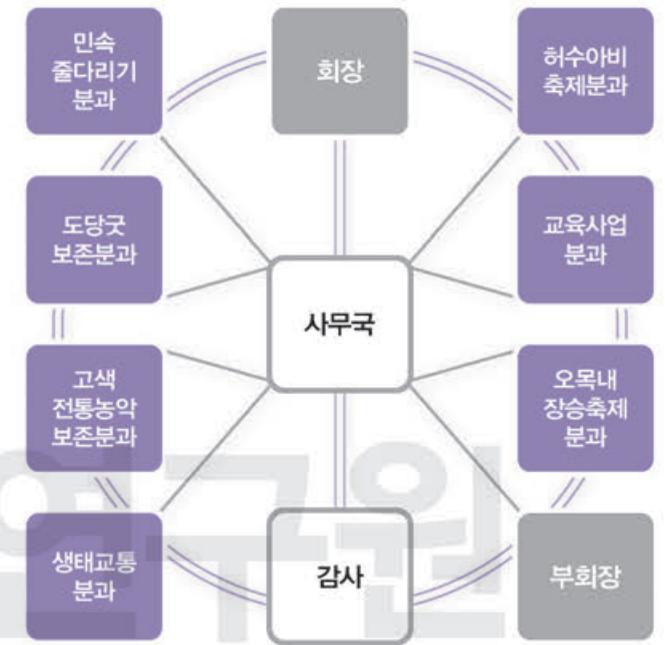
이에 더하여 마을의 젓줄이었던 황구지천을 비롯하여 풍부한 생태환경 자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들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 이미지를 정립,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 역량도 향상하겠다는 것이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 사업 취지이다.

이에 따라 고평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5명과 감사 2명, 그리고 16명의 평동(행정동)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2016년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문화행사,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2016년 총 4개 분과로 이루어졌던 운영위원회는 2017년 총 9개 분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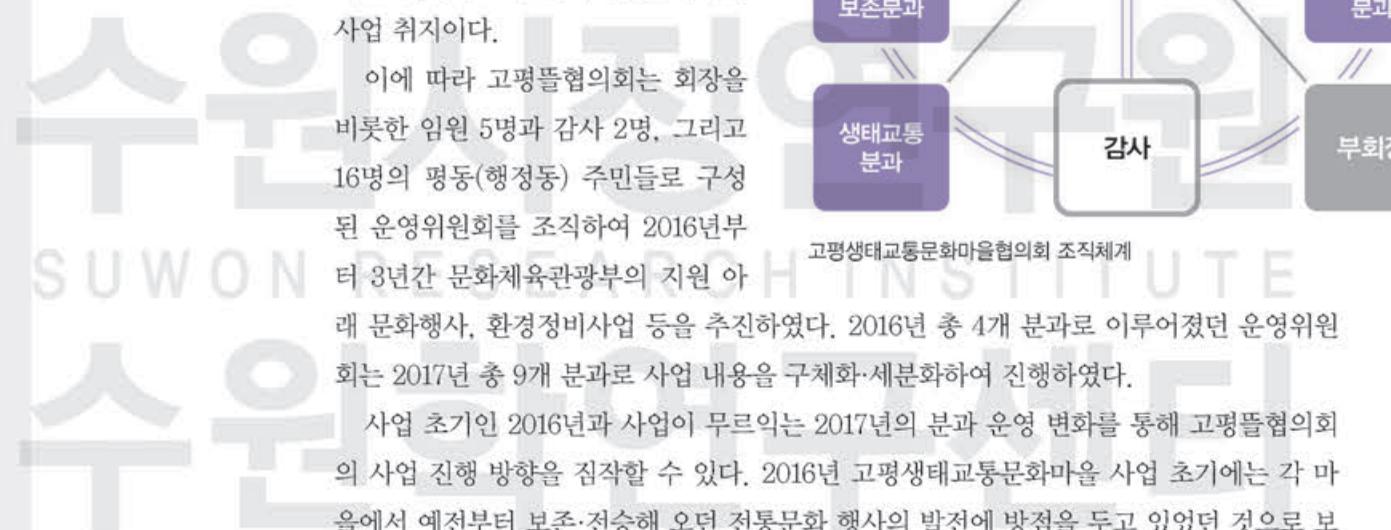
사업 초기인 2016년과 사업이 무르익는 2017년의 분과 운영 변화를 통해 고평협의회의 사업 진행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2016년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 초기에는 각 마을에서 예전부터 보존·전승해 오던 전통문화 행사의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평협의회는 고색전통농악보존분과, 고색민속줄다리기분과, 오목천동허수아비축제분과, 고색도당굿보존분과 이렇게 총 4개의 분과를 구성하여 반 년간 전통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총회나 개소식, 마을 탐방을 제외하고 당해 10월 23일 개최된 '우리가락과 함께하는 도심 속 전통타작한마당'(고색전통농악보존분과), 11월 4~5일 '오목천동 허수아비축제'(허수아비축제분과), 11월 6일 '고색도당굿'(고색도당굿보존분과, 자체예산 집행)이 2016년 운영 첫해 주요 사업이었다.

2017년 고평협의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아래 분과가 9개로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전년도의 전통문화 중심 4개 분과에 더하여 오목내장승보존분과, 고색생태교통분과, 오목생태환경분과, 공모사업분과, 교육사업분과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고평협의회의가 전통문화만이 아니라 생태환경·교통 분야의 문화 사업에 집중하고 주민들의 자치 및 교육 역량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 조직체계





2017년 8월 21일 고평협의회의 입시총회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듯하다.

고평협의회의는 그 이름대로 여러 개의 마을과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결합되어 있다. 당시 고색동개발위원장이 사업 총괄을 맡고 그 산하에 사단법인 고색개발위원회, 고색전통농악보존위원회, 고색도당굿보존위원회, 허수아비축제추진위원회, 수인선음악회 추진위원회, 사랑의 119운영위원회(부녀회), 고색동청년회, 자율방범대 고색1지대 등 각기 다른 성격과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앞서는 지역 사회 자치단체들의 협의체인 것이다.

또한 고색동과 평동, 오목천동이라는 세 개의 마을이 하나의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고평협의회의의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신호정* 처음에는 저희도 고색동으로만 하려고 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한 부락만은 안 되고 두 마을이 연합해야 한다고 해서 (중략)고색과 오목천이 합쳐지게 된 거예요. (중략) 고색의 도당굿도 있지만 평동에도 도당굿(벌말도당굿)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 평동도 함께하게 된 거죠.

# 수원시정연구원

## SUWON CITY POLITICAL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원

당시 사업 총괄을 맡았던 신호정 회장의 진술을 참고하면,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은 사업 대상을 공모하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와 행정동인 '평동'으로 함께 묶여 있던 세 개의 법정동(고색동, 오목천동, 평동)이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운데 함께 낙후된 자신들의 고장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게 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고색동을 비롯한 이 지역 일대는 위생처리장(분뇨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소위 '혐오시설'들이 밀집해 있으며, 수원공군비행장이 가까이에 있어 전투기 소음문제는 물론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원시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고색동개발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 단체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분뇨처리장 등에서 흘러나오는 악취 등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도 변변한 문화 인프라도 없는 지역에서 환경문제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 고유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는 물론 새로운 체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지역 환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여 시작된 것이다.

## 2. 과거를 이어 미래로 보낸다: 협의회 활동 사례

### 1)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고색동 민속줄다리기와 고색도당굿

2016년 사업이 시작될 때 중점을 두었던 것은 각 마을이 보유하고 있던 전통문화 행사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에서 지원한 의례 행사들로는 고색동 민속줄다리기와 고색도당굿, 고색전통농악 등이 있다. 여기서는 각 민속행사에 대한 고평협의회의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다 1980년대 중반부터 백이 끊겼던 고색동 민속줄다리기 행사는 1995년 고색동 청년회에 의해 다시 복원되었다. 이 행사는 수원시 향토 유적 제9호로 지정될 정도로 유서 깊은 전통 의식으로, 1년에 한 번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마을 행사였다.

2017년 11월에는 이 행사에 사용되는 줄을 새로 만드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2009년에 만들어진 줄을 그동안 쪽 사용해왔으나 2013년 집중호우로 인해 줄 보관 창고가 침수되면서 못 쓰게 된 것이 새 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고색동 민속줄다리기 행사에 사용되는 줄은 일반적인 가느다란 밧줄이 아니다. 무려 길이 30m, 둘레 1m에 달하는 크기의 줄은 오로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벗짚을 정성껏 꼬아

만든 것이다. 이 지역은 농사를 짓던 들판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벼농사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벧짚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움은 물론, 벧짚 꼬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수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던 차에 민속줄다리기에 사용할 줄을 다시 만드는 행사는 사라져 가는 전통 민속문화의 경험을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특별히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줄을 별도로 만들었다. 어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바라보기만 하던 아이들에게도 직접 줄다리를 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들의 마을에 남겨진 전통문화에 더 친밀하고 익숙해지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때 만든 아이들을 위한 체험용 줄은 2017년 12월 9일 고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의 시연으로 이어졌다.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징검다리'를 놓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사라져 가는 전통 농경문화를 기억하는 자리에는 비단 고색동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점차 젊은이들이 외부로 일자리를 찾아 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무거운 줄을 뿔 수 있는 장정이 필요했던 것도 있지만, 고품질협의회는 토박이 주민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에서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이들 모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최금옥* 우리가 줄다리기를 했을 적에 (중략) 공군이 인근에 있잖아요. 우리 10전투(비행단). 지원 받아서 공군들이 나왔어요. 공군이 나와서 민복 다 입고 줄을 맺어요. (중략) 정말 멋지게 했어요. 어르신들은 이제 뒤에 계시고 시민들에게 (참여하게) 하고, 공군들은 앞에서 딱 민복 하얗게 입고 그렇게 했고.

이처럼 주민들이 모여 여러 날 꼼꼼하게 벧짚을 꼬아 만든 줄은 현재 고색향토문화전시관의 줄 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COVID-19가 유행하면서 현재 고색동 민속 줄다리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주민들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정성껏 만든 두 개의 줄은 방치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최금옥* 어린이 줄은 고색초등학교 강당에 보관해 놨었는데 이래저래 유명무실해지면서 아마 어디 갔는지 모를 거예요. (중략) 이제 계속 개선하려고 생각도 참 많았는데. (중략) 저희는 이제 주로 그렇게 사각저가는 옛 거리, 그 다음 옛 문화, 이런 걸 그대로 살려 두려고 하는 일에 중점을 뒀고. 백선기 이걸 지금 사실 줄을 못 써요. 왜냐하면 짚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햇볕에 바삭 말라서 못 써요. 대대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중략) 이렇게 바닥에다가 내려놓을 게 아니라 진짜 위에 코를 걸어



민속줄다리기놀이(2018년)



고색동 향토문화전시관과 줄다리기 줄 전시장 조감도

서 제대로. 그렇게 해서 전시용으로 해주고, (실제) 쓰는 줄은 밑에다가 따로 보관하고. 그래서 (행사에 쓰는) 그 줄은 널었다 뻗다 쓰고 이걸 계속 고정해서 전시용으로. 이게 알줄, 수준이 있어서 같이 꼬여있는 거란 말이예요. 위에다가 고리를 만들어 꼬여가지고 놓으면 그래도 모양이 더 낫지 않나. 이걸 바닥에 그냥 던져놓고 그러고 있지.

한편 고색동 큰말에 있는 당집에서 벌어지는 고색도당굿도 고색동 민속줄다리기와 함께 오랫동안 마을의 역사를 이어 온 의례행사이다. 본디 전통적으로는 정월대보름에 도당굿과 민속줄다리기를 함께 열린다. 특히 두레패들을 앞세워 액운을 몰아내는 지신밟기, 해 뜰 무렵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행사 기간의 무사 안녕을 비는 당제사, 두레패의 길놀이에 이어 용출에 술을 붓고 예를 갖추는 줄고사, 두레패 맞이와 풍물한마당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들이 함께 진행되는 새해맞이 지역 의례이다. 하지만 농업 인구 감소와 함께 도농 복합지역이 된 오늘날 그 행사들을 동시 진행하기는 어렵다. 2017년의 경우 10월에는 고색도당굿을, 11월에는 당제사를 거행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굿과 제사가 거행된 당집을 새로 단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오랜 시간 고색동 민속문화를 떠받쳐 온 중심지로서 지



고색동 줄다리기 줄 전시장

은 지 오래 되어 천장이나 마룻바닥에 균열이 가고 문틀의 틈이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 2) 농경문화의 기억과 체험 : 허수아비축제와 모심기 행사, 타작한마당

고평들협의회에서는 고색동·오목천동 일대의 문화 인프라가 빈약하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을 다양하게 개최하고자 했다. 그 중 하나는 오목천동을 뿌리로 하는 허수아비축제가 있다. 사실 허수아비축제는 기존의 고색동 민속줄다리거나 고색도당굿과 같이 옛것의 재현이라기보다 잊혀 가는 농경문화의 상징과 현대적 놀이문화를 결합한 형태로, 전통문화의 한 형태를 보존하면서 그것을 세대 간 전승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오목천동만의 축제가 아니라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을 통해 고색동, 평동 등 주변 마을과의 협력이 두드러진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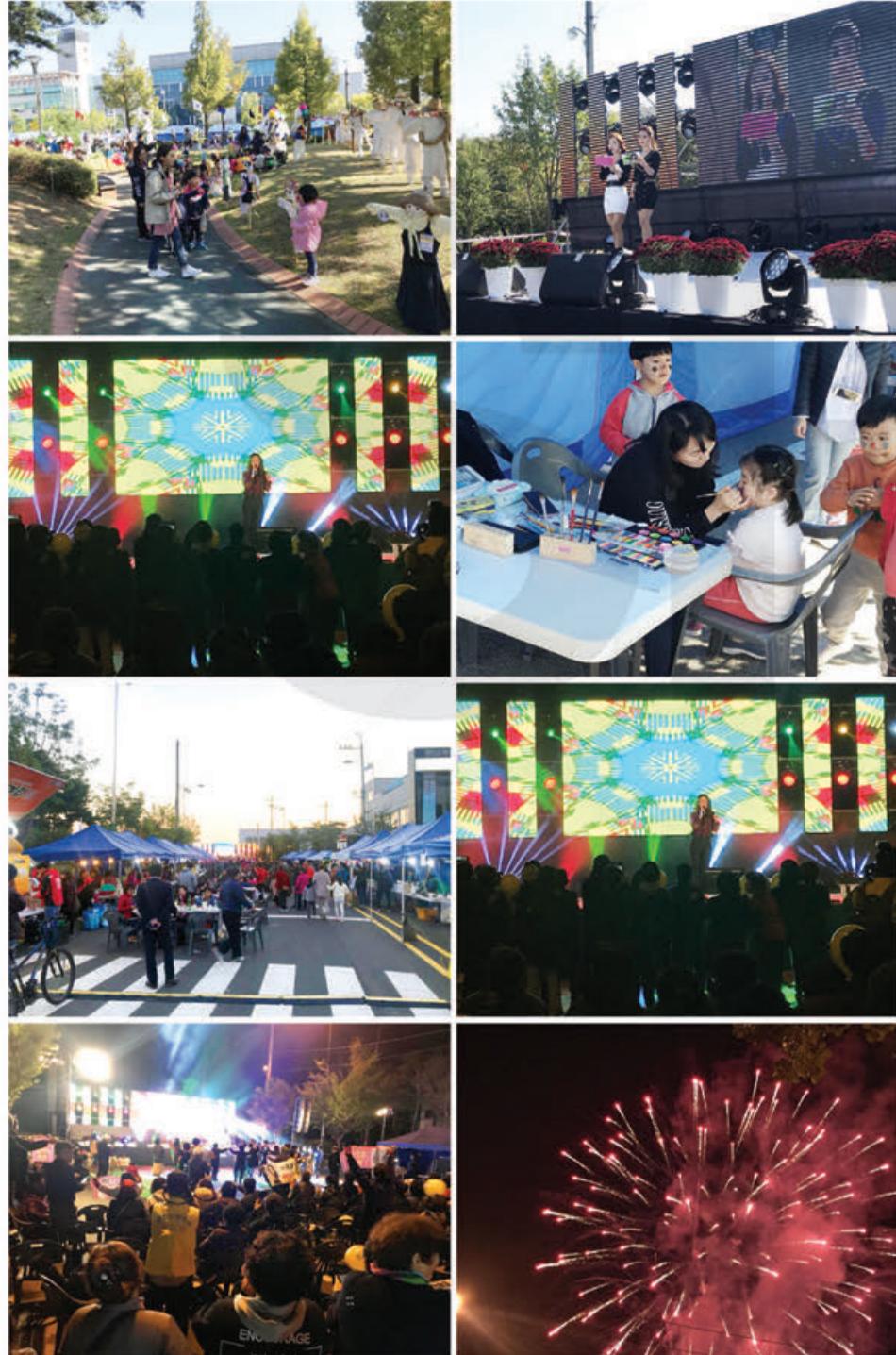
2017년 상송장승고유제



2017년 모내기 행사

허수아비축제

(2018)





전통주막



핑구와 엄마



말뚝박기



소개팅



셀매타기



선녀와 나무꾼



데이트



2017년 입선작



모심기 행사(2017년 5월 27일)



모심기 행사(2018년 5월 20일)



타작한마당 행사(2017년)



타작한마당 행사(2017~2018년)



**조사자** 허수아비축제가 어떤 건가요?

**신호정** 우리 고색동 일대를 고평들이라고 하는데, 이 고색동의 황토가 토질이 좋아서 이전 여주보다 쌀을 더 잘 낫던 곳이 이 고색평야예요. 그만큼 벼농사는 우리 고장과 관계가 깊은데, 그 중에서 허수아비는 농경문화에서 꼭 필요했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한 거죠. 어린 아이들은 허수아비의 뜻을 잘 모르는데, 직접 (허수아비들)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중략) 사실 고색동이 민속줄다리기라면, 오목천동은 허수아비축제인데, 이 사업 전부터 마을 주민들, 개발위원회가 시작한 것이예요.

허수아비축제도 처음부터 마을 혼자서 진행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고색동과 오목천동 부근을 흐르는 황구지천 일대를 가꾸는 모임이 평동(행정동)사무소 및 권선구청과 협업하여 초반 행사의 기틀을 다져 놓은 후 오목천동에서 꾸준히 집행해 오던 것을 2016년 이후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의 지원을 받아 허수아비축제보존위원회가 주관했던 것이다.

**최금옥** 허수아비축제도 제일 처음에 황구지천 가꾸기 실천연대에서 한 거예요. 2008, 2009년도인가? 서수원체육공원 거기서 행사를 크게 했어요. (중략) 이렇게 길도 만들어보고, 그림도 추상적으로 만들어 보고, 그런 식으로 황구지천 가꾸기 실천연대에서 동사무소와 협업해서 구청 예산 받고, 이렇게 저희가 한 번 회, 2회를 같이 치른 적이 있죠. 그 허수아비축제가 발전하면서 오목천동에서 가져가게 되었어요.

10월 중순 허수아비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수원산업단지 내 오목천공원에는 무대가 설치되고 그날은 차 없는 거리와 생태환경 축제가 병행된다. 가수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기도 하고, 가족미술대회, 주민노래자랑, 먹거리와 각종 체험 부스들이 설치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운 가을 주말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지역 행사이다.

**최금옥** 이전 동네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 지역사회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중략) 허수아비도 직접 어원이집 다 돌아다니면서 (재료들) 배분했어요. 나무 목재, 벼대만 제공하는 거야. 나머지 옷 입히는 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벼대만 주고, 작품 출품을 하게 만들어서, 그걸 다 수거하러 다 냈어요. 트럭으로다가. 그리고 공원에 다 설치해서 이름은 다 달아 놓지. 그런 후 콘테스트하는 거예요. 구경은 사람들이 찍어 놓거나 또 심사위원들이 편성하고, 그에 따라 시상하고.

허수아비축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도, 단순히 먹고 노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드넓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아이들은 평소라면 본 적도 없었고 무엇인지도 몰랐을 허수아비를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며, 공원에 앉아 부모님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이 행사를 개최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게 된다.

**최금옥** 이런 행사가 여기는 왜 필요했냐 하면, 허수아비로 상징되는 농업 문화가 이제 사라져 가잖아요. 원래 이 고색동이, 오목천동이, 농사를 짓던 곳이고 농경 사회와 도시가 접목된 도농복합 사회란 말이지. 그런데 점점 더 농경지가 사라져 가는 거야,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그런 아쉬운 추억들이 있으니 그것을 재생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 그것을 재현하는 행사를 꾸준히 해야죠.

또한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허수아비 작품들은 황구지천 옆에 위치한 '허수아비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허수아비 전시관은 문화 공유공간이 부족한 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회의나 세미나, 각종 모임이 가능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햇살 좋은 날, 푸른 황구지천변과 무성한 옥수수밭을 양옆에 끼고 걷다 보면 참가자들의 사랑을 받은 허수아비들을 만날 수 있다.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체험'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위 주체가 되어 보는 경험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소개된 고색동 민속줄다리기 행사에서 직접 줄을 만들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용 줄을 제공하여 시연 행사를 열었던 것이 민속줄다리기 전통의 직접적인 보존과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통 손모심기 행사는 비록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농업인은 아니지만 단 한 번이라도 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함으로써 농사에 대해 몸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한다.

고색농악분과에서 주관하는 '도심 속 전통농사 체험'은 중보들공원 향토문화전시관 옆에 마련된 논에서 이루어진다. 3월부터 기획되어 3개월간 준비를 거친 후 5월 말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직접 체험용 논에 맨발로 들어가 결대로 모를 심게 되며, 그밖에도 논두렁에 물 채우기, 닭 보이 주기, 새끼 꼬기 등의 체험 공간을 설치하여 다양한 일일 농경문화 체험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1년 농사를 위해 일회성 모심기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농사 체험은 다양한 구성으로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길놀이, 볍씨 고르기 및 소독, 논갈이, 못자리 설치, 풍년 기원제 고사, 비료주기, 모심기, 백중놀이 이후 무더운 여

름을 지나 추수시기에 맞추어 전통타작한마당에서 벼 타작 체험, 들깨 타작 체험, 상달고사 체험, 들밤체험, 떡메치기체험 등이 열린다.

### 3) 만남과 어울림, 즐거움과 치유 : 생태문화의 복합 체험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은 일 년 사계절 내내 멈추지 않는다. 봄에는 모심기와 벚꽃놀이, 가을에는 타작한마당과 허수아비축제, 겨울에는 민속줄다리기와 도당굿이 있다면, 무더운 여름에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다. 먼저 6월부터 8월에는 차 없는 거리 행사(고색동, 오목천동)와 워터파크가 개장된다. 2017년 6월에 열렸던 '자동차 없는 고색동 문화거리축제'에서는 용인대 고색태권도 시범공연이나 물풍선 터뜨리기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뿐 아니라 지역 병원에서 나와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민들의 의료 복지도 놓치지 않았다. 2018년 고평플협의회에서는 7월부터 10월에 걸쳐 한 달에 한 번, 하루 동안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해 보았다. 고색중학교 입구부터 고색고등학교 정문 앞 주변 도로까지 차량을 통제하여 잠시나마 차 없는 도로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보행 경험을 온전히 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최금옥 여기 고색중학교 바로 이 앞에 큰 길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로 길을 막아놓고, 제가 이쪽은 왜 선호했냐면, 오목천동이나 다른 곳은 아파트 단지들 덕분에 공원이라도 좀 같이 있는데, 이쪽 동네는 원(原)부락이라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중략) 아파트들도 소형 아파트란 말이지.

고평플협회의 일원으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을 짜는 역할을 맡았던 최금옥의 진술에 따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던 주변 지역과 달리 오래된 원주민 마을이었던 고색동은 보행자들이 여유 있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이나 한적한 길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영화관이나 도서관, 수영장,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부재했던 터라, 고평플협회는 '소외된 그늘'에 있는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주변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8월에는 고색동(고색중학교-고색고등학교)과 오목천동(오목천공원)에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차 없는 거리' 행사인 워터파크가 개장된다. 이 날은 여러 안전 변수를 고려해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고 워터 미끄럼틀, 물총 놀이, 비눗방울 불기 등의 물놀이 행사와 더



# 차 없는 거리 행사

(2018)



불어 저녁에는 마술쇼, 비보이 공연, 무용단 공연, EDM 쇼 등으로 무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는 또 하나의 지역 여름 축제가 열리는 것이다.

한편 매년 고평뜰협의회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취미를 계발하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의 교육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아파트나 마을을 거점으로 하여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취미나 교양에 더해 서로 만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평소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료의 일환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들(예: 원예치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독특한 점이다. 어디서나 많은 문화교육 강좌들이 개설되지만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은 그런 무수한 교양·취미 강좌 사이에서 차별성을 드러낸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아파트 및 동네 경로당 22곳에서 개최된 정서 돌봄 프로그램인 푸드 테라피(food therapy)는 고평뜰협의회 진행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최금옥 우리 도시가 상당히 노인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과일 푸드 테라피 같은 수업을 좀 했었죠. 경로당을 방문해서. (중략) 어머니들, 경로당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멍쩍어 하세요. 우리는 과일을 갖다 드릴 뿐이고, “이 과일을 가지고 꾸며 보세요.” 한 거예요. 마음을 달아서, 평소 꾸미고 싶었던 것, 각자 모양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럴 “그분에게 이걸 무슨 마음인가요?” 하고 물으면, 어떤 분은 “나는 평생 생일을 한 번도 안 챙겨 봤는데, 이걸 내 생일 같이 꾸미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우시기도 하고.

중보들공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체조를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열렸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평뜰협의회에서 기체조 강사를 초빙,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3회로 예정되어 있던 기체조교실은 인기가 많아 주6회로 횟수가 늘었고 무료로 진행되어 주민들, 특히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저녁에는 퇴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즈댄스 강좌가 열려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민들 중 일부가 2018년 열린 제9회 화성시 생활체육 재즈댄스대회에 참가하여 공원팀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추운 겨울에도 중보들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강생활체육교실에서 주민들은 땀을 흘리며 신나게 댄스를 배우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고평 문화교육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적인 주민 대상 프로그램이 부재



뚝딱뚝딱공방마을(넵킨아트)



국학기공 기체조 무료강좌



황구지천 생태체험 구간  
 ■ 자전거행진구간(7km) : 출발(본부석)-술대교-목감교-오목천교-호매실교-오목천교-목감교-술대교-희망의다리-도착(본부석)  
 □ 걷기구간(3km) : 출발(본부석)-술대교-목감교-오목천교-목감교-술대교-희망의다리-도착(본부석)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황구지천 생태체험 행사(2017년 11월 25일)



황구지천 생태체험 행사(2018년 9월 15일)

한 평동(행정동) 지역에 가뭃의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2017년의 경우 상반기 4개월 동안 총 14개의 강좌가 열렸고 하반기에는 21개로 강좌 수가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개강 전 각 아파트 게시판과 관내 학부모 모임 밴드 등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는데 순식간에 신청 마감 되고 대기자가 줄을 서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고평들협의회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능의 적극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자격증이 있거나 손재주가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었던 주민들을 강사로 모집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동안 주민들 간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만남의 자리들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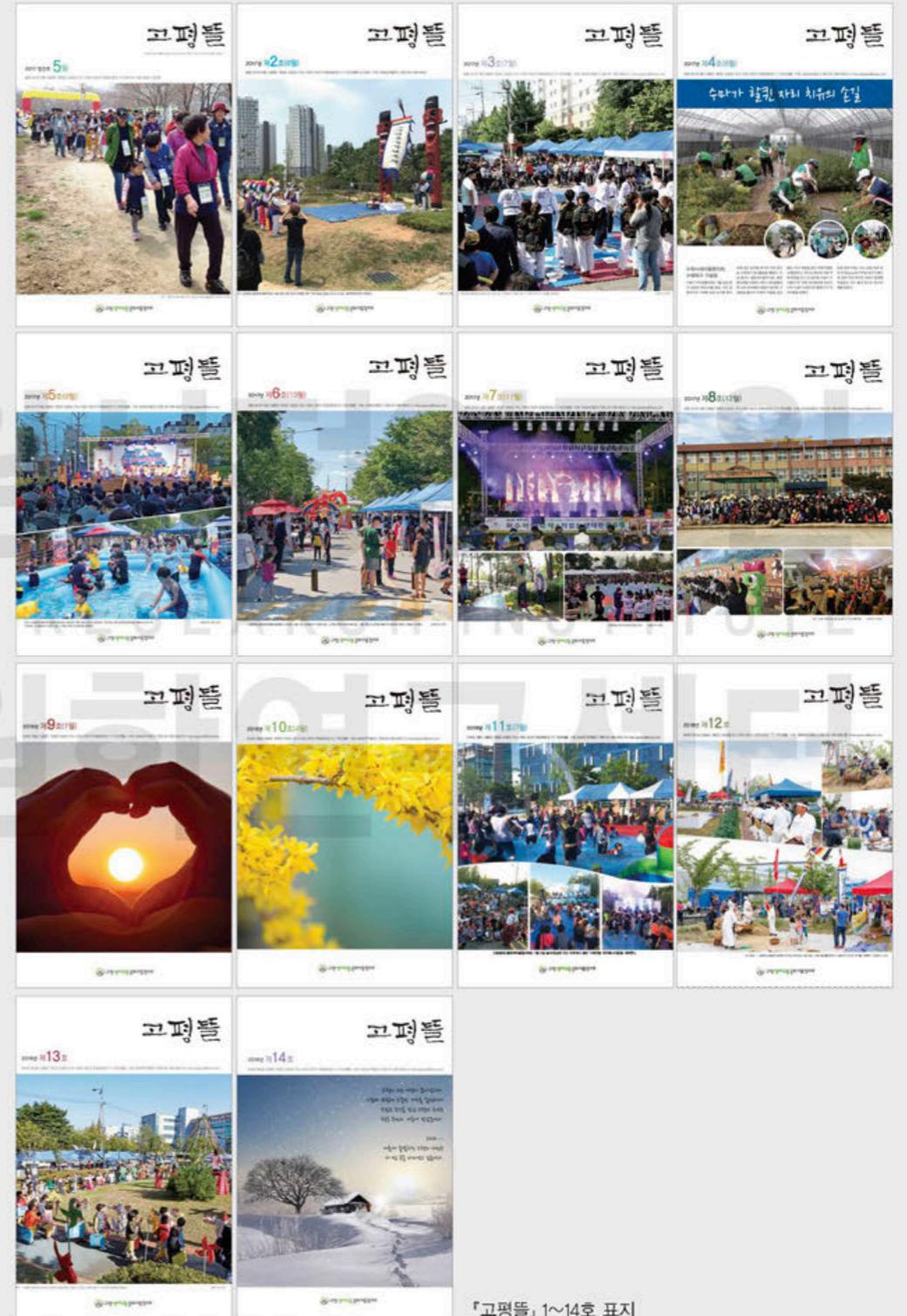
한편 11월 말에는 황구지천 일원에서 생태체험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생태'와 '환경'을 테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화마을 사업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도시는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와 고층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생태환경 파괴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논밭을 전부 밀어내고 아파트가 세워진 후 신도시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과거의 마을 경관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처음부터 차단된다.

그러나 고색동의 경우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황구지천을 비롯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논과 밭이 남아 있고, 상대적으로 '도시'로서의 개발이 덜 이루어진 편이어서 주민들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여타 신도시들에 비해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황구지천 생태체험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은 자전거 대행진 및 환경체험 걷기로 황구지천 둘레길을 돌고 오는데, 이때 출발선 100m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EM 흙공을 황구지천에 투척하는 체험도 한다. EM 흙공은 황토와 EM 효소 발효액을 섞어 뭉친 것으로,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단체들이 연 4회 정기적으로 수질 정화를 위해 뿌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에 1년에 네 번 정도만 해 주면 수질 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아이들은 학교 봉사 시간도 만들고, 환경에 대해 체험도 하고, 실제로 또 환경 정화도 되고. 지역사회가 뭉칠 수 있는 어떤 계기, 원동력이 되는 거죠.

#### 4) 소통과 화합의 창구 : 정기간행물 『고평들』

『고평들』은 고평들협의회에서 2017~2018년 발간한 정기간행물로, 고색동·오목천동·평동·평리동의 주민들 소식, 행사 소식, 역사와 문화, 인물 소개 등 다양한 마을 이야기들을



『고평들』 1~14호 표지

전달하는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창구로 기능하였다. 처음에는 고색동·오목천동·평동의 앞 글자를 따서 '고오평'이라고 지으려고 했으나,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이미 발간 중인 신문의 이름과 같아서 오목천동의 양해를 구하고 '고평플'이라는 이름으로 확정했다는 후일담이 있다.

올컬러판으로 매달 모두 다른 내용을 풍부하게 싣고 있어 이만한 마을 소식지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12페이지 분량 중에서 2페이지는 반드시 '아이들이 보는 우리 동네' 코너에 할애하여 학생 기자단들의 기사 투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생들을 모집해 담당 선생님의 감수 아래 기사를 실었는데 아이들이 지역의 교통이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깊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엿보였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영신중학교 나연우 학생은 일기 형식의 기사를 통해 오목천동의 도로 상황과 당시 수인선 지하철 공사 상황을 섬세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고색동·오목천동 일대를 지나가는 수인선 부설 계획은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이를 지상화할 것인지 지하화할 것인지를 두고 관련 당국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노력 끝에 수인선 지하철이 결정되었다는 우여곡절의 사정이 있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어린이의 눈에는 2016년부터 착공하여 상당 기간 진행된 지하철 공사로 인해 자신의 마을이 어수선하고 위협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깊다. 나연우 기사는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목에 공사장이 위치해 있고 늘 열려 있어 학생들이 호기심에 공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걱정을 전하면서, 지난한 투쟁 끝에 수인선 지하화의 결실을 맺기 위한 공사 현장이 다시금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정기간행물 『고평플』은 온전히 그 지역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경기도청에서 판보를 만들거나 언론 분야 종사자 등 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들이 『고평플』 발간 구성원으로 참여하였고, 인쇄소 선정에서도 신경을 썼으며 내용 구성에서도 기사 한 꼭지를 내기 위해 사전 조사, 자료 수집, 기사 작성, 사실관계 확인 및 검수와 퇴고 작업을 철저히 거쳤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간행물 배부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우선시하는 면이 돋보인다. 고평플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신호정은 『고평플』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보였다. 이 사업은 어떤 관점에서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주민 자치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신호정** 하다못해 이거 배부하는 것도, 시에서는 업체에 주라는 얘기를 해요. 그대야지 정산하기가 좋잖아요. 업체는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고.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했죠. 어르신들 인력 창출을 위해서. 노 인회 별로 배부를 부탁드리면, 정확하게 『고평플』이 집집마다 꽃피잖아요. 심지어 이거 봐달라고 일일이

부탁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에 주겠다 그랬죠. (제가 얼마나 수원시랑 싸웠겠어요. (중략) 하지만 저는 (업체에 배부 업무를 넘기는 것이) 사업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중략)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다음 세대에도 길이 남을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간행물 『고평플』은 2018년 겨울 14호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발간되지 않고 있다.

### 3.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 끝, 그리고 다시 시작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은 2018년을 끝으로 3년의 여정을 마치고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고색동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비롯해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본 사업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꾸려 나가는 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3년 동안의 사업을 통해 구축한 지역사회 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마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꿈은 현재 여러 가지 마을의 사정과 COVID-19로 중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고평협의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 지역 개발을 위해 그려 두었던 청사진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눈빛에는 고색동에 대한 애정이 담뿍 담겨 있었다.

**최금옥** 우리 고색동은 유서가 깊잖아요. 오래된 마을이잖아요. 신도시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그 다음에 김 지명, 유재, 이런 것들은 저희가 탐구할 하게 되는 거예요.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이렇게 세 구간은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끝은 현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무리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마무리 못한 것이 뭘냐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그 길은 다 만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방했던 길들은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무슨 길 무슨 길, 수원8색길 만들 듯이, 고색동도 그렇게 만들었어야. 고색동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명이 너무 예쁜 지명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보들도 예쁘잖아요. 중보들 향토전시관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그걸 중보들에서 건너오면 평동 입구쪽에 비구재라는 그런 지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다 까먹었어. 아무튼 지명도 있고, 그다음에도 오다 보면 작은말, 큰말, 온정마을 뭐, 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까막골도 있고, 벽동골.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선을, 이정표를 만들어서 구간을 정하고, 여기 길을 만들고 그리고 싶은 게 최종 끝이었어요. 그걸 못 했어요, 사실은. (중략) 만약 길을 만들었다면 이 동네가 개발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길은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는 천 년 만 년 여기에 안 살아. (중략) 그래서 마을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던 게 아쉬움이 남네요.

신호정 고색동은 그냥 고향이기 전에, 저를 만들어 주고, 저를 키워 주고, 성공은 못 했어도 (중략) 저를 키워 준, 어떻게 보면 은인 같은 고색동이기 때문에 제가 버릴 수 없죠. 여유만 된다면 이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은 존속하고 싶은데, 이 사업은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중략) (감정이) 격미해지면 다시 시작하자. 이 사무실을 일부러 제가 개방해 두었어요. 여기를 남겨 두면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게끔 기반이, 이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은 3년간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는 노력에 더하여 직접 체험하고 부딪치면서 지역문화의 실체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고평플협의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한편 그것들이 사업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사업의 의미는 무엇인지 묻고 되돌아보기를 잊지 않았다. 그러한 노력은 『고평플』이라는 정기간행물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어린이와 노인 등 쉽게 배제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문화사업의 주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고색동은 낙후된 지역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면서 깊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지역이라는 자신감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발전국가적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맞서 마을의 고유한 자산들을 놓치지 않고 주변 지역들과 협력하여 상생하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았던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 사업의 여정은 여기에서 걸음을 멈추지만, 과거를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꿈꾸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은 다시금 곧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 참고문헌

- 『(인터뷰) 신호정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 회장』,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12월 12일.
-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 『고평플』 2017년 창간호~2018년 제14호 『고평생태교통 문화마을 모니터링 백서』, 2018

# 고색동의 산업 변천

01 고색동 벽돌공장

02 자동차서비스산업의 메카, 고색동

03 수원종합공구단지, 공구 유통업에 활기를 불어넣다

04 수원시 최대 산업단지, 수원멀티플렉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

## SRI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 1. 수원 최초의 벽돌공장, 수원요업공장

19세기 서구문물이 유입되면서 건축양식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건축재료에도 큰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적벽돌 사용의 급증이었다. 이에 1901~1910년 10년간 34개소의 민간 벽돌공장이 설립된 데 이어 1907년에 이르러면 탁지부에서 관영 연와제조소를 마포에 설립하고 독일식 호프만가마를 도입하여 벽돌 생산을 본격화하였다.<sup>1</sup>

수원 지역에는 1935년 4월에 근대적 벽돌공장이 최초로 설립되었는데, 일흥면 탑리 673번지에 세워진 수원요업공장이 그것이다.<sup>2</sup> 수원요업공장은 박건유와 일본인 데라사와 스테시부로(寺澤捨三郎)가 동업하여 설립한 적벽돌 생산 업체로, 흔히 '수원벽돌공장'이라 불렸다.

1930년대에 박건유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지역 유지로서 명성이 높았는데, 안동면 협의회 의원, 고색리 구장, 학교평의원, 여화수리조합장, 화성금융조합 감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박건유가 경영하는 풍미양조장, 정미소, 묘포, 제와공장 등의 사업체에 1,000여 명이 고용되어 있고 연 15만 원의 매상고를 올렸다고 한다.

1930년대에는 일제의 만주 침략에 따른 전쟁특수의 여파로 점차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본의 주요 벽돌회사들이 한국에 공장 설립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1935년에는 전국에 77개소의 공장이 운영되었는데, 법인체가 22개, 관영업체가 8개, 그 외 47개 업체가 일반 개인 업체로 연간 8,633만 3,000장의 벽돌을 생산하였다. 1930년대 벽돌공장의 신설 현황을 보

**赤手成功한 朴健裕氏**

豊美醸造場 朴健裕氏

氏는軍隊의出身現五十六歳の致富家이다、現經營事業은西美醸造場、精米所、苗圃、製瓦工業、等으로서年十五萬圓の賣上高을보고있으며氏가經營하는事業에年千餘名の貧民들이入備되

고잇스나적지안은窮民救濟事業이다、前記醸造場으로서나오는藥酒(秋菊)은上等正宗보다더好評을가지고잇으며、氏의公職으로는麗華水利組合長華城金融組合監事、面議員等이고、氏가赤手勤勉으로只今外洋巨萬の蓄財한것을보드레도抱負와意志堅固한것을알것이요事業이多端한氏로서여기에現居住하는安龍面古案里를爲하여區長의責任을지고爲民努力하고잇다(寫眞은朴健裕氏)

박건유(『매일신보』 1934년 6월 8일)

水原窯業 寺澤捨三 裕郎

朴 寺澤 健 捨 三 裕 郎

수원요업의 대표인 박건유와 데라사와 스테사부로(『조선신문』 1938년 1월 3일)

면 1935년부터 신설 공장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1937년에는 20개, 1938년에는 18개 공장이 신설됨으로써 일제강점기 중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sup>3</sup>

산업 동향에 관심이 많고 이미 기와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박건유가 1935년에 벽돌공장을 설립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박건유가 설립한 벽돌공장은 호프만가마를 사용하여 벽돌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즉 대량의 벽돌 수요가 있는 시장을 전제로 하여, 대량 생산을 통한 대량 공급을 목표로 하여 호프만가마를 설치한 것이다.

박건유와 함께 수원요업공장을 설립한 데라사와 스테사부로는 일본 아이치현 출신으로 1908년 조선으로 건너왔다. 수원 매송면 농장의 주임으로 온 데라사와 스테사부로는 과수원과 미곡상을 운영하다가 정미업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부국원과 조선운송회사의 중역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가야마 히로시(香山弘)와 함께 경동철도 계획에 참여해 경동철도 부설에 기여한 인물로, 1936년 수원읍이 정(町)체제로 개편될 당시에 대평정 구장을 역임하였다.<sup>4</sup> 그는 수원곡물협회 회장, 수원읍식량배급조합 회장, 조선곡물연합회 간사 등 곡물협회에서 유력자였다. 수원학교조합 의원, 수원읍회 의원과 수원신사 총대 등 수원 내

**寺澤捨三郎 氏逝去**

【水原】水原邑大塚町寺澤捨三郎氏(五九)は十七日午後八時三十八分自室において突如血にて逝去したが氏は愛知縣丹羽郡池野村に生れ明治四十年二十六才の時水原郡松山面津松郷主として來水その後果樹園を經營し又米穀商を營み後米穀業の傍ら運送店を兼ね現朝鮮運送株式會社が發生せんとするや各地に東奔西走難關を突破し完全これを取繼め同社水原支店長として就任の傍ら水原穀物協會々長、丸仁穀物協會會長、朝鮮穀物聯合會理事、水原邑穀物聯合會會長等あらゆる米穀に關する重鎮として努力し又一面水原窯業を經營し各地に鐵道を移設するなど頗る活躍を續けてゐたが本年六月病氣のため朝鮮運送を辭し療養中十二月十七日遂に氣逝したるものにして氏は餘に見る濃厚篤實の人格者にして一面水原窯業組合役員、水原邑會議員等の公職を纏て現在水原神社の總代として水原發展のため努力し來たる人にして氏の今所の逝去は實に水原の大なる損失なりとして一般より深く惜しまれてゐる(寫眞は寺澤捨三郎氏)

데라사와 스테사부로 사망 기사(『조선신문』 1941년 12월 21일)

일본인 사회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벌이던 데라사와 스테사부로는 1941년 12월 17일 대평정 자택에서 59세의 나이에 사망하였다.

박건유가 벽돌공장을 세운 곳은 수원군 일행면 탑리 673번지 일원의 임야(황무지)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황구지천이, 동쪽으로는 서호천이 북-남 방향으로 각각 흐르고 있다. 벽돌의 원료는 진흙과 모래이기 때문에 벽돌공장은 진흙과 모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흙과 모래는 강가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야산에서 진흙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설립된 벽돌공장은 대체로 하천유로를 따라 형성된 구릉 또는 대지에 설립되었다. 즉 수원요업공장도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곳에 입지하였다. 더구나 이곳은 안룡면 고색리 마을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로, 안룡면협의회 의원이자 고색리 구장인 박건유는 좋은 조건에 이곳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수원요업공장에서 동보연와로**

한국 벽돌산업은 한국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수원요업공장도 마찬가지였다. 수원요업공장은 설립자인 박건유가 1950년에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박정환이 물려받았다. 그러나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군의 폭격으로 수원벽돌공장 시설이 파괴되었다. 박정환의 아들인 박지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미군이 폭격을 해서 벽돌공장의 천장이 다 날아갔”고 굴뚝만 남았다고 증언하였다. 즉 수원요업공장은 폭격으로 시설의 상당부분이 파괴됨에 따라 공장 가동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박정환은 해방 후 여러 사업과 사회활동을 정력적으로 펼쳤는데 1949년에는 대동청년

단 및 경기도사법보호회 위원으로, 1954년에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인사조정위원으로, 1958년에는 중앙사법보호협회 이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1952년 화성군 안릉면의회 초대 의장을 맡았고, 1956년 경기도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당시 화성군 도의회 선거구는 오산면, 태장면, 동탄면, 안릉면 4군데였다. 이 외에도 육영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박정환은 1956년에 화산학원을 설립하였다.

이 시기에 수원요업공장도 가동을 재개하였다. 『서울신문』 1956년 3월 12일자 기사에는 박정환의 협조를 받아 수원사법보호회에서 벽돌공장을 수리하여 운영을 재개하고 공장에 보호생수용소도 신축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재단법인 수원사법보호회(水原司法保護會)에서는 영동(榮洞)시장 천변에 집단점포를 건축하여 보호사업을 하여 오던 중 이번에는 화성군 고색리(古索里)에 있는 박정환(朴廷煥) 씨 벽돌공장을 수리하여 근간 운영하리라는데 동 공장에는 보호생수용소도 신축되리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동 공장 운영까지에는 사법보호회 중앙협회의 큰 협력과 지방유지의 협조가 있어 더 한층 보호사업이 활발해질 터이라 한다.<sup>5</sup>

수원사법보호회에서는 자신들의 기간사업으로 안릉면에 있는 수원요업공장을 인수하여 총공사비 880만 원으로 보수를 완료하고 1956년 5월 27일 하오 3시 임석무(林碩茂)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내빈 다수 참석한 가운데 화입식(火入式)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수원요업공장에서는 매월 35만 장 내지 45만 장의 벽돌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sup>6</sup>

수원사법보호회 정진로 수원연외공장  
(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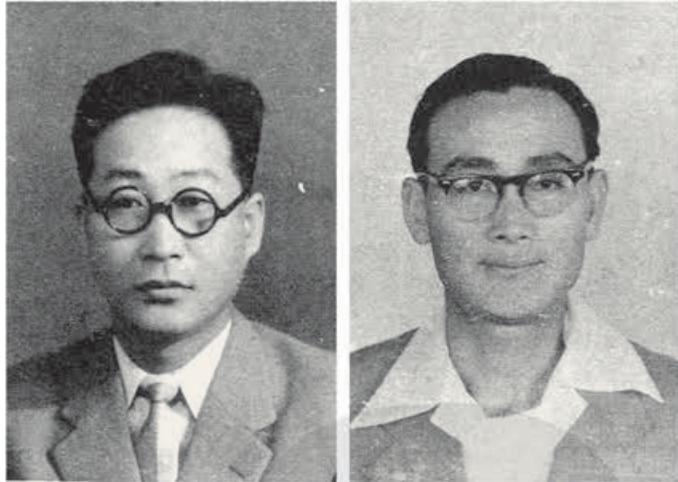


1950년대 수원연외공장 제토과정(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사법보호회는 교도소·소년원 등 교정시설(矯正施設) 출소자의 자활·갱생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그 감독하에 운영되었다. 1961년 9월에 갱생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법보호 대신에 갱생보호라는 용어로 바뀜에 따라 사법보호회는 해산되고 그 재산과 사업을 승계하여 공법인인 갱생보호회가 각 도청소재지에 하나씩 설립되었으며, 그 산하에 교도소 소재지마다 갱생보호소가 설치되었다.

수원사법보호회는 1955년 당시 서울지점 수원지청의 지청장이었던 김천수가 대표였으며, 영동 35-6번지 일대에 천변 점포 325평 104개를 건축하여 보호사업을 벌이고 있었다.<sup>7</sup> 또한 사법보호회는 보호생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유지인 박정환의 협조를 받아 파괴된 수원벽돌공장을 수리한 후 재가동시켰다.

벽돌공장 운영에 형무소 재소자나 출소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사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경성(서대문)형무소 마포연외공장과 영등포공장이 1907년에 설립된 데 이어 광주형무소 연외공장(1910년), 춘천형무소 연외공장(1917년), 군산형무소 연외공장(1918년), 대구형무소 연외공장(1919), 전주형무소 연외공장(1920년), 청주형무소 연외공장(1921년), 원산형무소 연외공장(1922년), 대전형무소 연외공장(1931년) 등이 세워졌다. 교정당국에서는



수원요업공장 대표였던 김천수와 공장장 이용균(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교화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벽돌공장을 운영하였는데, 벽돌산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고, 생산 과정도 기술이 크게 필요치 않은 단순·반복노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소자나 출소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벽돌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

그런데 출소자들의 자활을 위해 임대해 주었던 수원요업공장의 운영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

되어 갔다. 즉 수원요업공장은 수원연와공장으로 불렸고, 수원사법보호회가 운영하는 공장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원사법보호회 대표인 김천수는 1960년 6월 춘천지검으로 발령을 받아 수원을 떠났고, 수원요업공장의 경영권은 공장장이었던 이용균으로 변경되었다.

표 1 수원요업공장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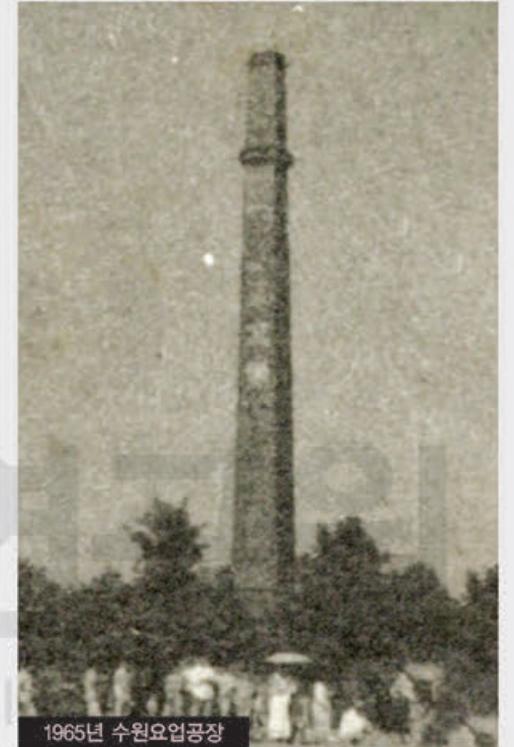
시기	대표자	변경 내역
1935~1950	박건유	• 수원군 일형면 탑리 673번지 일원에 설립
1950~1956	박정환	• 1949년 화성군 일왕면 탑리 673번지(행정구역 변경) • 1950년 박건유 사망, 한국전쟁으로 공장 파괴
1956~1960	김천수	• 1956년 수원사법위원회 수원연와공장 개건 • 1960년 6월 춘천지검으로 발령
1961~1967	이용균	• 1961년경 이용균이 수원연와공장 인수 • 1963년 수원시 탑동 673-80(수원시 편입) • 1967년 폐업

박정환의 아들인 박지원과 박창원은 이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박지원** 출소자들을 선도한다면서 벽돌공장에 취직을 시켰지. 재범을 하지 않게 산업지도교육을 한다는 것이었어. 아버지가 수원지방검찰청의 갱생보호협의회 일을 보고 있었는데 당시 협의회 대표와 계약을 맺었어.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을 많이 번 뒤 10년 뒤에 임대료를 갚겠다고 도장까지 찍어 놓고서는 10년이



일제시기 수원요업공장



1965년 수원요업공장



1974년 수원요업공장



1984년 수원요업공장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 찰다 찰다 못해 소송을 걸었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3년 이 걸렸어. 한참 벼들이 잘 나갈 때 그랬으니 얼마나 황당해.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명신연과 대표><sup>9</sup>  
**박창원** 계약기간이 끝나도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뒤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형 박지현과 소송이 붙었어요. 재판에서 결국 합의를 보냈죠.<명신연과 박지현 동생><sup>10</sup>

이 내용에 따르면 박정환은 사법보호회(갱생보호회)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원요업 공장을 10년간 임대해 주었고, 임대료는 수익이 생긴 후에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갚도록 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임대료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균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1967년 박정환이 질병으로 사망하자 장남인 박지원은 이용균과 3년간 소송을 벌였는데, 재판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합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후에도 이용균이 수원요업공장의 대표직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 때, 공장의 소유권은 이용균이 갖고 임대료를 갚는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요업공장 소유권을 이용균이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1956년 수원사법보호회가 수원요업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 전쟁으로 파괴된 공장시설을 880만 원을 들여 수리하여 가동시켰으며,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공장시설을 관리하고 일부 시설은 신축·확장한 점이다.

수원시정연의  
 SUWON  
 수원



1974년 수원요업공장과 동보연와(수원박물관 제공)



1972년 동보연와(수원박물관 제공)

두 번째는 수원요업공장 부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다. 『토지조사부』(1911년)를 보면 일형면 탑리 673번지는 용복면 고색리 소유의 임야로, 면적은 4만 1,996평이었다. 전쟁 후인 1955년에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이곳이 안룡면 소유로 나타나 있다. 이는 1917년 '조선 면제'를 실시하면서 면의 재산을 확충하기 위해 동리재산을 면유재산으로 강제적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인데, 이에 고색리 소유임야도 안룡면(1914년 용복면과 안녕면을 통합) 소유로 변경되었다. 이 자료를 보면 1950년대까지 이 토지의 소유권은 안룡면에 있었으나 1960년대 초반 민간에게 분할 불허되었고 이용균은 탑리 673번지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였다. 따

라서 수원요업공장은 1935년 설립 당시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안릉면 소유의 토지를 빌려 운영되었고, 1963년경부터 이용균은 수원요업공장이 자리한 673-80번지(현 고색동 887-56)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작용하여 이용균은 수원요업공장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요업공장은 1965년 현재 종업원이 37명이었으며, 공장 부지는 1,560평, 건평은 486평이었다.<sup>11)</sup>

그 후 이용균은 1966년 동보산업 연와공장을 설립하고 공장 부지를 확대한 후 1969년 탐동 673-70번지(현 고색동 887-51번지) 일대에 공장시설(가마)을 신축하였다. 1972년 동보연와는 연간 5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장이었다.

표2 동보산업 연와공장 현황

구분	지번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공장	탐동 673-70	고색동 887-51	1968년 공장 건축
사택	탐동 673-73	고색동 887-79	1968~1980년 5동 건축

동보산업 연와공장은 1990년대 폐업할 때까지 영신연와와 경쟁하며 수원의 벽돌산업을 성장시켜 나간 대표적인 벽돌공장이었다.

### 3. 영신연와의 설립과 변천

재판이 끝나자 박지원 일가는 동보산업 연와공장 북동쪽인 탐동 700번지 일대 1만 7,000평의 토지를 구입한 후 1971년 영신산업 연와공장(이하 영신연와)을 건립하였는데, 대표는 처음에 박지원이었다가 나중에 동생인 박양일과 박덕원이 맡았다.

표3 영신산업 연와공장 현황

구분	지번 변경		소유주 변경		
	1987년 이전	1987년 이후	1911년	1960년대	영신연와 설립 시
공장	탐동 540-212	고색동 887-12	동산농사주식회사	박흥기	박지원(1971)
	탐동 674-1	고색동 887-19	동산농사주식회사	최정순	박덕원(1966)
사택	탐동 700-1	고색동 887-20	김철환	임재택	박지원(1971)
	탐동 673-21	고색동 887-38	고색리	안릉면	박양일(1963)

1974년 현재 영신연와는 공장동 1동, 사택 2동, 사무실, 기계실과 함께 토사 채취장, 건조장과 적재장 등을 갖춘 상태였다. 이후 벽돌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영신연와 노동자들이 살 사택의 수도 증가하였는데, 1977년에는 3동, 1981년에는 4동으로 늘어났다.

1960년대 후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벽돌산업의 성장 기반이 확대되었다. 즉 1967년에는 서울 강남지구 개발을 비롯하여 1968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월남 참전에 의한 전쟁특수, 그리고 도시화 등에 따른 인구 집중현상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었다. 또한 1972년에 수립된 주택건설 10개년 계획과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통해 공동주택건설사업이 본격화됨으로써 벽돌 수요가 급증하였다.

1976년부터 시작된 영동·여의도 등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과 1977년 중동 특수(特需)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투기열풍이 일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과열되어 벽돌을 비롯한 각종 건축자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영신연와도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는데, 이는 다음 구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립 직후 영신연와(박지원 제공)

고색동에 건립된 3개의 벽돌공장 굴뚝(수원박물관 제공)





1979년 고색동 벽돌공장(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문성식** 지금은 영신연와가 ‘터’만 남아 있지만 한참 잘 나갈 때 수원에서 영신연와의 벽돌을 쓰지 않은 데가 없어, 그래서 수원지역의 벽돌 공급의 근원지여서 짝어내는 대로 나가는 거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 <영신연고 교장><sup>12</sup>

**박상연** 벽돌공장이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잘 나갔습니다. 주력사업이었지요. 벽돌이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요. 당시엔 아파트가 별로 없었지요. 70년대 중반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한강아파트가 유일했으니까요. <영신연와 박지현 아들><sup>13</sup>

1977년 영신연와 토취장은 동보연와 입구까지 넓혀져 있는데, 이 때문에 동보연와는 출입이 어려웠다고 한다. 1979년경에는 두 회사의 토지를 맞바꿔서 경계 조정을 다시 하었다고 한다.

이처럼 사업이 변창하면서 영신연와는 공장과 설비를 늘렸는데 1984년 영신연와주식회사는 화성군 장안면 어은리에 제2공장을 준공하였다. 영신연와가 변창할 때는 제1공장과 제2공장을 합쳐 모두 200명의 직공이 일을 하였다. 제2공장은 수원에 있던 공장보다 달리 터널가마로 건설되었는데 소성가마 중에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터널가마는 호프만가마와 달리 소성대가 고정되어 있고 소성체가 이동하면서 소성되므로 소성대의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벽돌의 품질 관리가 용이하여 일정한 규격과 품질의 벽돌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에 적합한 가마이다. 또한 기계화 및 자동화가 가능하여 생산력이 뛰어나고, 보수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벽돌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전국적으로 터널가마는 계속 늘어났고 호프만가마는 198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제2공장 신축과 함께 제1공장인 수원 공장에는 새로운 설비가 들어왔다. 제1공장이 만들어질 때 설비들은 대부분 수동설비였는데, 국내산 성형기를 거쳐 이때 자동화된 이탈리아 제품의 성형기(成形器)가 도입되어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고 벽돌의 질도 좋아졌다. 불도저가 기계실로 황토를 넣어 주었으며, 기계가 흙 반죽을 한 후 성형기 안으로 밀어 넣어 줄 때 반죽 안의 공기가 거의 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벽돌이 단단하고 매끄러워 상품의 가치도 높아졌다. 또한 1980년대에는 변색벽돌이나 화장벽돌의 가격이 일반 적벽돌(소품벽돌)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통해 다양한 벽돌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 이후 벽돌산업의 경기는 주기적 변동을 거쳤는데, ‘1~2년 호경기→1년 평경기→1~2년 불경기’로 변화하였다. 이에 4~5년을 1주기로 하여 벽돌 가격이 변동되었고 이러한



1984년 영신연와 제2공장 준공식 행사일 박지원(박지원 제공)



영신연와에서 생산한 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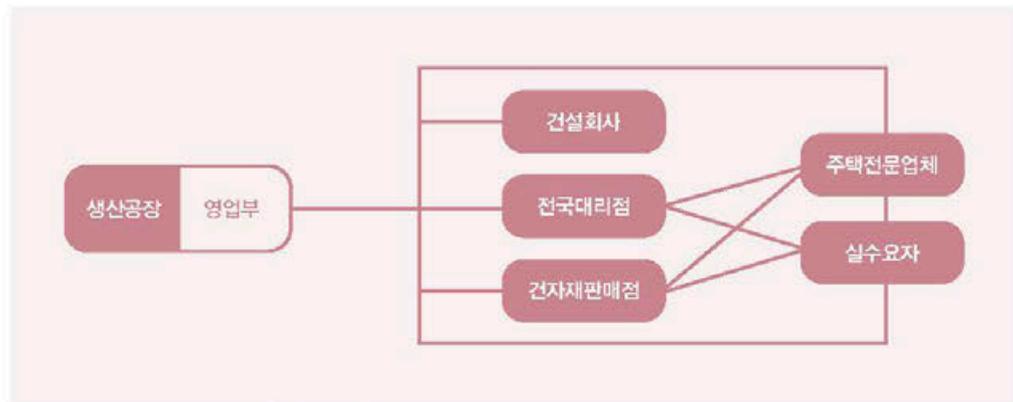
주기적 변동이 반복되었는데, 1960~1980년대 벽돌 가격은 <표 4>와 같이 변화였다.

표 4 벽돌 가격의 변동과 변동 요인

시기	품종별 가격(원/장)			변동 요인
	소품벽돌	변색벽돌	화장벽돌	
1962	1.6~1.8			
1963	2.3			공판가격으로 결정
1966	6.0			3년간 상승된 가격
1967	12.3			호경기로 품질되면서 급승
1968	6.0			김신조사건으로 경기가 하강하여 폭락
1971	7.0			협정가격으로 결정
1972	8.0			경기가 호전되어 하반기부터 상승
1973	13.0			호경기로 상승
1974	13.0			벽돌 가격은 그대로 유지
1976	15.0			행정지도 가격으로 유지
1977	19.0			행정지도 가격으로 유지
1978	26.0	50.0		소품벽돌은 행정지도 가격, 변색벽돌과 화장벽돌은 자유가격
1979	32.0	60.0		소품벽돌은 행정지도 가격, 변색벽돌과 화장벽돌은 자유가격
1980	42.0	75.0	130.0	소품벽돌은 행정지도 가격, 변색벽돌과 화장벽돌은 자유가격
1981	48.0	80.0	130.0	공정거래법에 따라 카르텔 방지
1982	50.0	80.0	140.0	자유가격 형성
1983	80.0	110.0	160.0	황금기로 품질상태에서 폭등
1984	70.0	95.0	130.0	자유가격으로 유지
1985	60.0	90.0	120.0	소강상태로 유지
1986	60.0	90.0	120.0	
1987	60.0	90.0	120.0	
1988	80.0	100.0	140.0	황금기로 상승
1989	85.0	110.0	150.0	물가상승으로 인상
1990	100.0	130.0	170.0	호황과 물가상승으로 인상

자료 : 송재선, 『우리나라 벽돌사』, 2006, 미래문화사, 314쪽.

1950~1960년대 벽돌 수요가 적고 좁은 시장성으로 벽돌 판매는 해당 시군을 넘지 못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벽돌 수요가 증가하고 도로망과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판매망이



1980년대 벽돌 유통경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벽돌 판매방식이 예전에는 판매원을 두고 인근 건축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주문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전국 각지에 건축자재판매 전문점이 생겨 거리와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대리점과 체인을 맺고 벽돌 유통에 원활을 기하였다.

벽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1980년대 초반에는 벽돌 품귀현상이 있어날 정도였고,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벽돌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높이는가 하면 새벽부터 벽돌공장에 진을 친 채 벽돌을 가져가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다. 질 좋은 벽돌을 다른 대리점보다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 대리점들은 가마에서 벽돌을 꺼내는 일을 하는 '아가시'들에게 술값을 짚러 주곤 했다고 한다.

**면담자** 여기서 생산하는 벽돌 같은 경우가 어디로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이명식** 그때만 해도 벽돌이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적벽돌이 엄청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이게 벽돌 산다고 돈 갖다 으면, 언제쯤 오라 그러면, 새벽 4시나 3시 반엔 나가면 차들이 짹 서 있어.

**면담자** 벽돌 받으러 온 사람이요?

**이명식** 응. 그대 가지고 아가지(가마에서 벽돌을 꺼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들이 (벽돌을) 착착 끌어 나왔는데, 대개 대리점들이 많이 오는 거지. 벽돌 대리점들이. 뭐 으면 차가 여기에서 저까지 짹 서 있어.

**면담자** 벽돌 받아 갈 트럭 같은 차들 듣고 와서?

**이명식** 응. 그렇게 짹 서 있어 싶어 주면 나가고. 그때만 해도 찰 벽돌이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싶어요. 그대 그 사람들이 찰 아가지, 벽돌 분류에서 끌어내는 사람들은 돈 많이 생겼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좋은 거 싶어 달라, 빨리 싶어 달라, 그대 가지고 이 술값을 많이 주구.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어.

그러나 1980년대 벽돌 품귀현상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전국적으로 터널가마를 도입하여 벽돌을 생산하는 공장이 급증하였다. 터널가마는 호프만가마보다 자동화된 시설이라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연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생산시설이었다. 1990년대 전국 벽돌공장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벽돌 생산 능력이 증대되면서 벽돌의 과잉생산 현상이 나타났다. 즉 1980년 68개소, 1985년 96개소, 1990년 139개소, 1993년 155개소로 벽돌공장이 늘어났고, 연간 생산량도 1980년 8억 장, 1985년 13억 장, 1990년 22억 장, 1993년 28억 장까지 증가하였다.<sup>14</sup> 그러나 1990년대 주택 건설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벽돌을 찾는 수요는 예전 같지 않았다. 이에 영신연와는 거래처를 다변화하고자 하였고, 주택보다 학교 쪽에 물건을 납품하였다.

호황기에 전국적으로 벽돌공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벽돌의 과잉 생산 여파로 1990년대에 이르자 벽돌 경기가 점차 하락하였다. 이에 영신연와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적자 폭이 점차 커져 갔다. 벽돌공장을 운영하려면 계속 시설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은행자를 얻어 기계시설을 갖추었는데, 경영수지가 악화되다 보니 은행 빚을 갚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건축업자들은 영신연와에서 물건을 납품하면 약속어음을 주었는데, 만기일에 결제를 받으려 했더니 그 업체는 부도가 나 있었다. 이는 영신연와의 자금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 영신연와 제1공장은 1993년부터 벽돌 생산을 멈추었다. 야적장에서 건조 중인 벽돌을 굽기 위해 가마는 몇 년 정도 더 불을 피웠지만 성형기계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박정환** 경기도에 벽돌공장이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았어요. 그 뒤 조양공장은 98년도까지 운영되다가 결국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사업이 안 돼 처분할 수밖에 없었구요. 은행동자만 30억을 받아 구입한 이탈리아 기계는 공장을 처분하면서 결국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신연와 박지원 동생><sup>15</sup>

**박상연** 아이엘에프(IMF) 때, 부가가치가 없는데다 벽돌공장이 사양산업이어서 수원 영신연와는 1996~97년경 정리하고, 영신연와 제2공장은 1998년경 결국 정리되었습니다. <영신연와 박지원 아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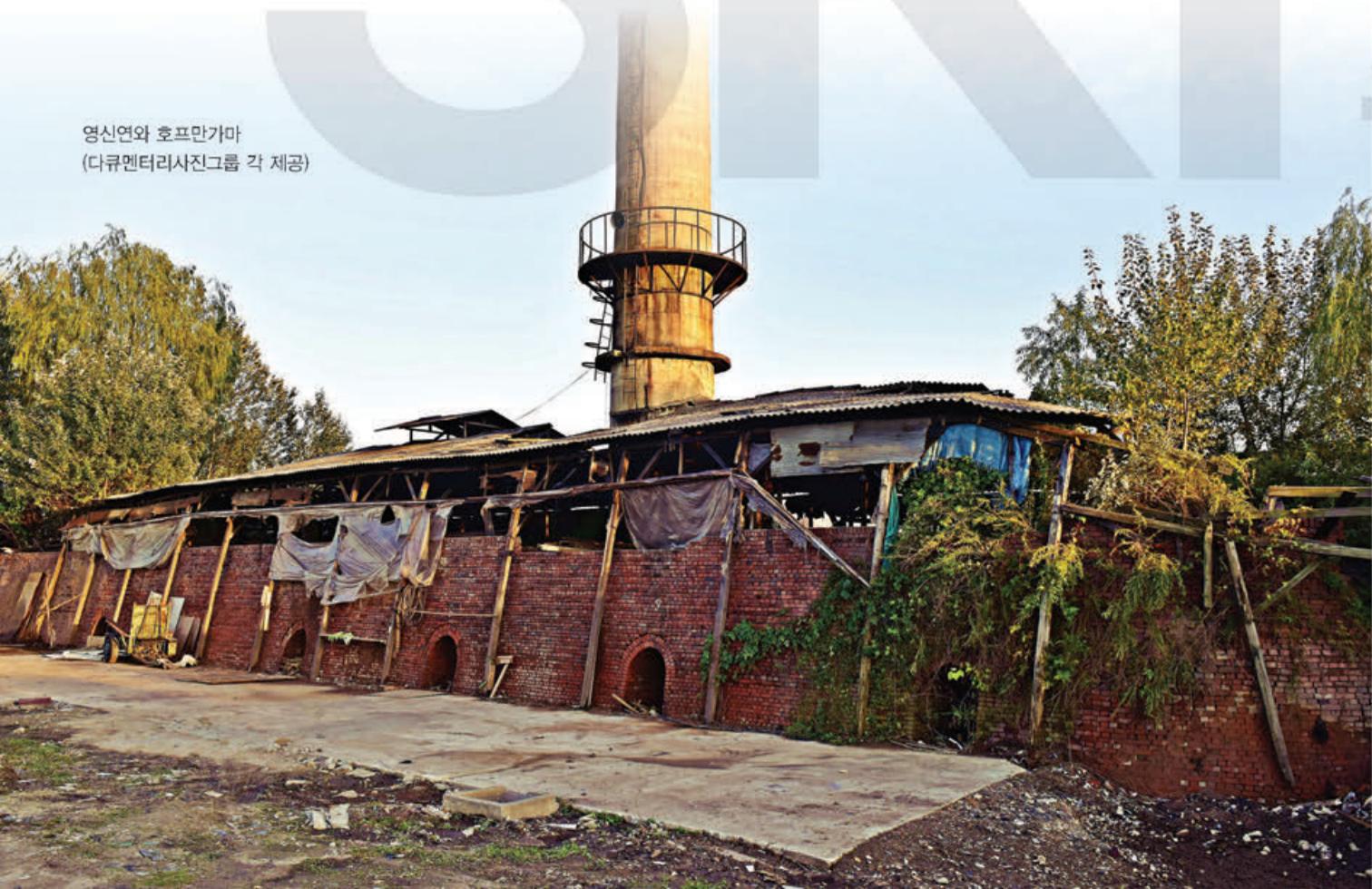
그 후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영신연와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1998년에는 제2공장까지 정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1935년 박건유의 수원요업공장에서 시작되어 박정환, 그리고 박지원·박양일·박덕원 3대로 이어졌던 영신연와의 역사는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 4. 한국에 하나 남은 영신연와 호프만가마

고색동에 있는 영신연와의 가마는 호프만가마로,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호프만가마는 1858년 독일의 저명한 화학자 호프만이 방 난로에서 힌트를 얻어 발명한 소성로(燒成爐, 벽돌 따위를 구워내는 가마)이다. 둥근 모양 때문에 '윤로(輪爐)'라고 부르기도 한다. 호프만가마는 바깥벽에 연소실을 얹어고 천장에 투탄구를 내었으며, 칸막이벽을 제거하고 가마 위에서 담퍼를 조작해 소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조함으로써 소성 기술의 일대 혁신을 일으킨 가마이다.

이 가마의 특성은 소성대(燒成帶)를 이동시켜 벽돌을 굽는 연속로라는 점이다. 이 소성로는 19세기 말 등장한 터널로와 함께 벽돌공장에서 자웅을 다루는 우월한 가마이다. 터널로에 비하여 연속 작업이 불편하고 노동력이 더 들기는 하지만, 연료비 대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싼 벽돌을 대량 생산하는 데에는 가장 적합한 가마이다. 호프만이 처음 발명했을 때에는 굴뚝을 중앙에 두고 그 주위를 돌려가면서 둥글게 제작하였다. 그 후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긴 타원형으로 변화하였다.

영신연와 호프만가마  
(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호프만가마 구조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시정연구원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의 윤로는 연와제조소(煉瓦製造所)에서 세운 것이다. 연와제조소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일련의 계획 속에서 각종 정부관계시설 건축을 전담할 정부기구로 탁지부(度支部)가 1906년 세운 건축소(建築所)의 부설 기구이다. 연와제조소는 1907년 벽돌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마포에 벽돌공장을 세웠다. 1907년 8월 호프만가마가 준공되고 9월에는 벽돌 성형기계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기계식 생산을 시작하였다.<sup>17</sup> 민간에서도 1919년 서울 영등포구(옛 크라운맥주공장)에 세워진 조선요업주식회사(朝鮮窯業株式會社)에서 윤로를 도입하였는데 장구형(長矩形)으로 28칸이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연간 650만 장을 생산하는 최대 공장이었다. 1925년 대홍수 때 심한 수해를 입고 도산하였다고 한다.<sup>18</sup>

윤로는 노실(爐室), 중앙연도(中央煙道), 연돌(煙突, 굴뚝)로 구성되어 있다. 노실은 외벽, 내벽(아치), 소연도(小煙道), 투탄구(投炭口), 노문(爐門)으로 이루어지며, 중앙연도는 벽, 담퍼(Damper), 맨홀(manhole)로 이루어지고, 굴뚝은 벽, 구멍, 연도구(煙道口), 피뢰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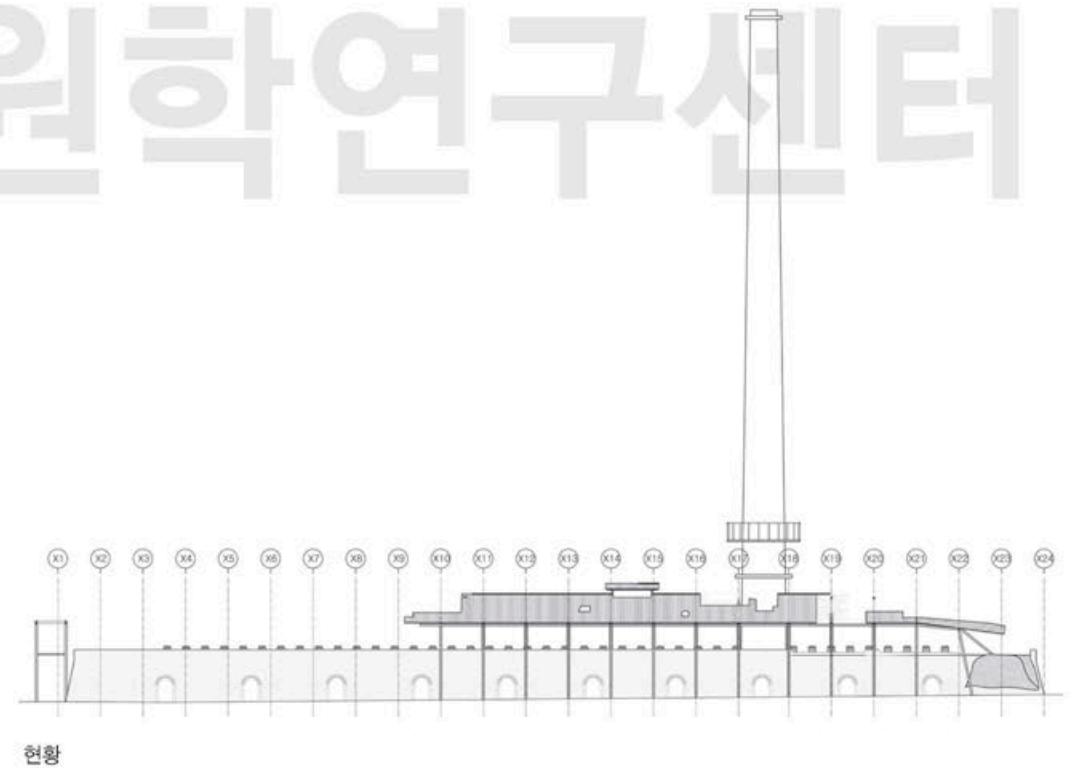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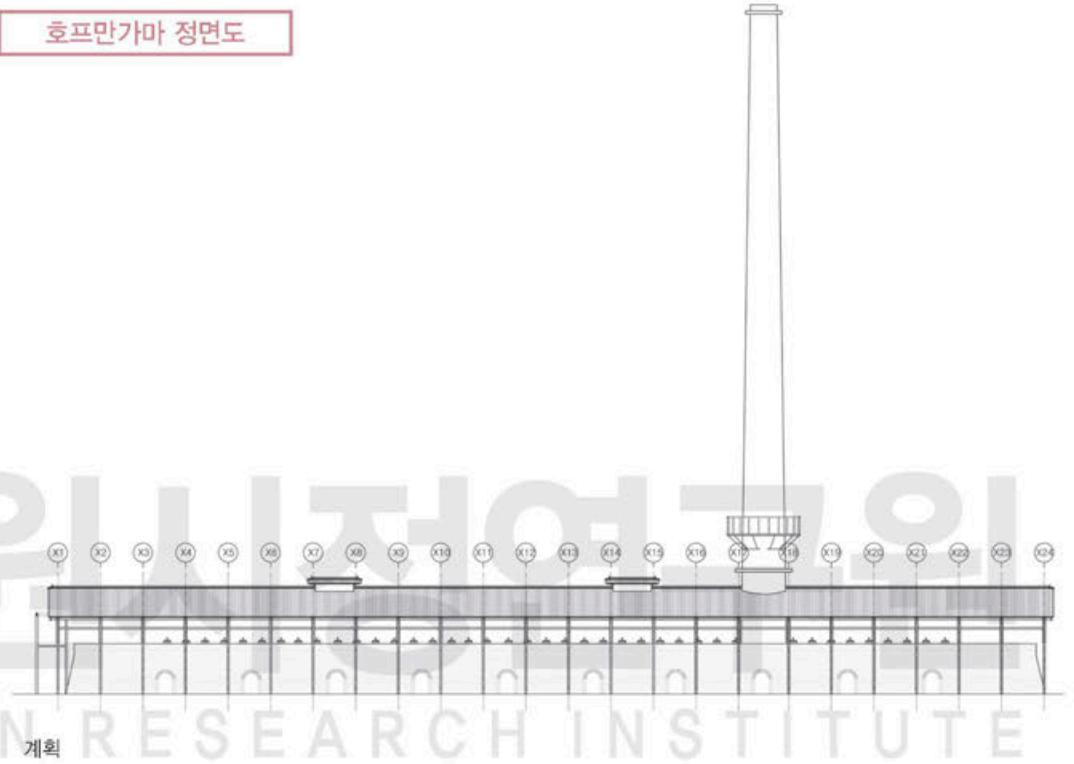
윤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자를 참가시켜 공장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한번 축로한 다음에는 이동시킬 수 없으므로 기술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위치를 설정해야 했다. 영신연와의 가마는 이화연와에 소속된 기술자들이 1년간 와서 제작한 것으로, 이들은 일본에서 가마 제작기술을 배운 전문가이다.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감독과 지시를 하면 영신연와의 노동자들이 공사를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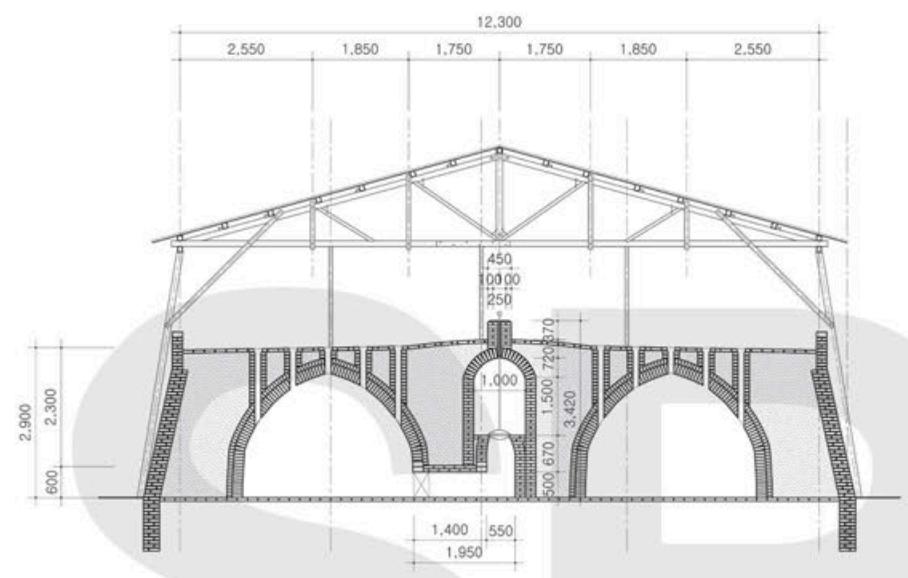
호프만가마 정면

호프만가마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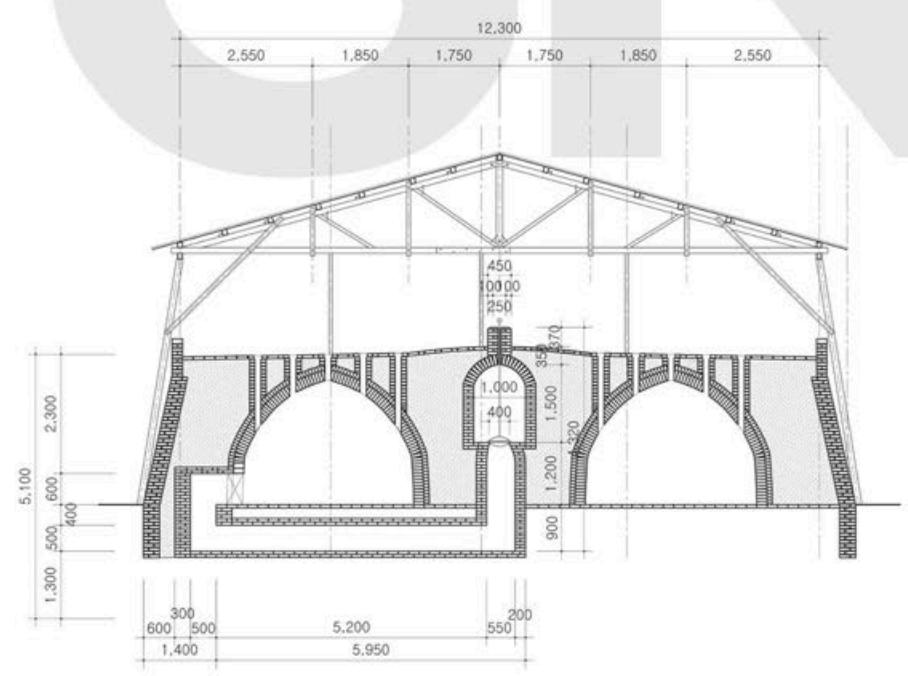
수원시정여공의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공장동 공기구, 연기구 상세도



내벽 소연도와 중앙연도 연결



지하로 연결되는 외벽 소연도와 중앙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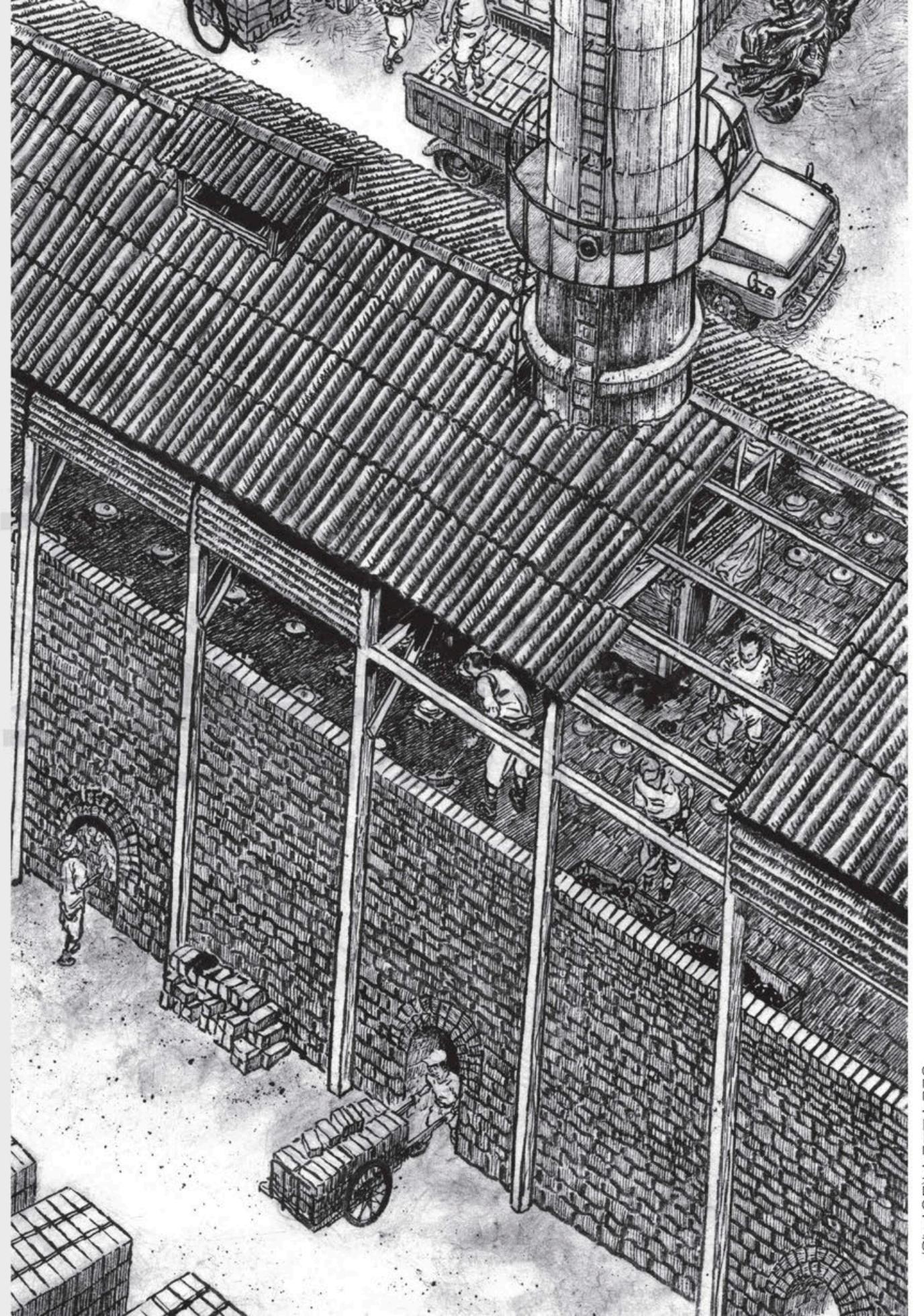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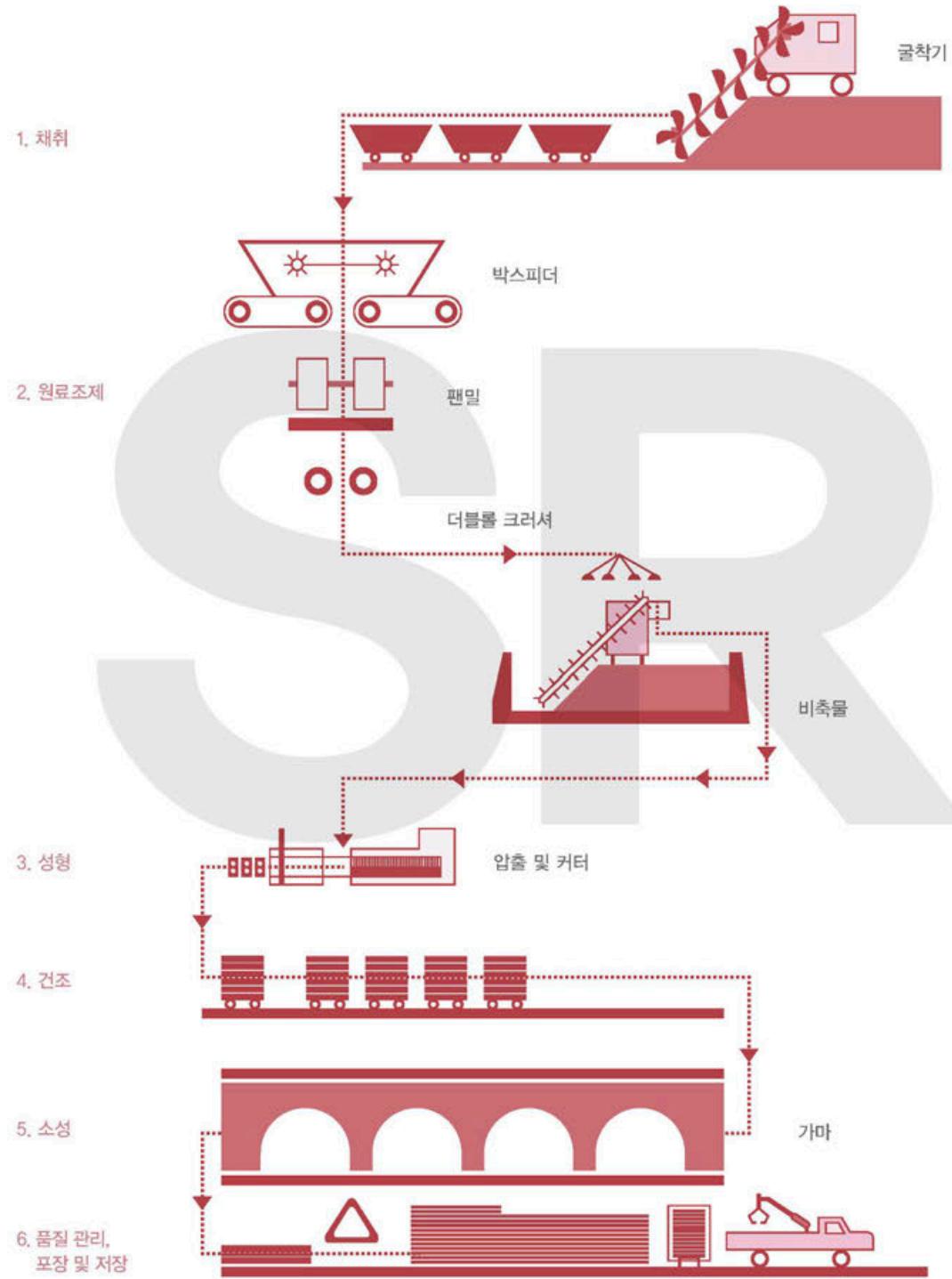
영신연와 가마 상부



영신연와 가마 내부(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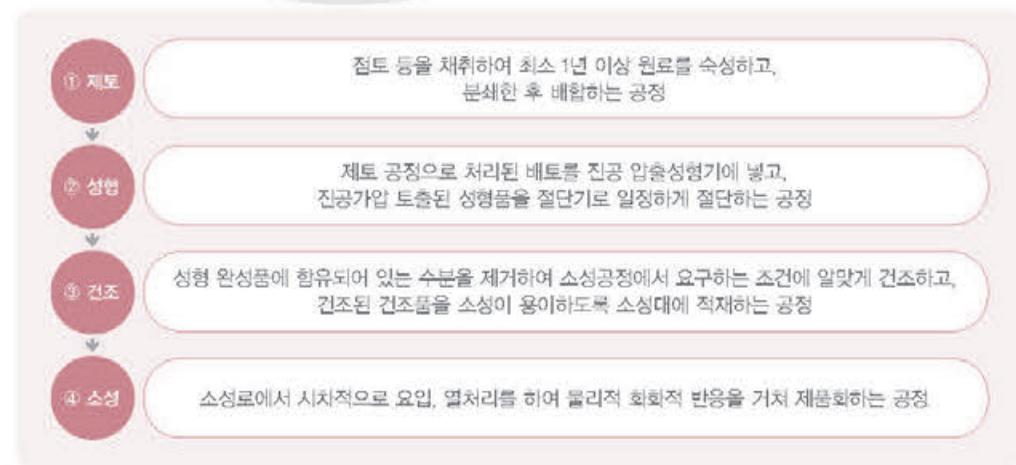


벽돌 제조 흐름도



부5 벽돌 제조 작업과 인력

단계	작업	인원(명)	명칭(숙어)
	벽돌 생산 입우 총괄	1	공장장(감독)
	원토를 이동하는 일	3	화물차 기사
	체토 적치장 흙을 기계창으로 옮기는 일	1	불도저 기사
체토	수레로 흙을 기계창으로 옮기는 일(불도저 도입 전)	2	
	기계에 흙을 퍼 넣는 일	3	가쿠메
	벽돌을 절단하는 일(자동기계 도입 전)	3	세시당
성형	절단된 벽돌이 나오면 수레를 대주는 일(자동기계 도입 전)	2	도로마시
	절단기 철사에 묻은 흙을 솔로 닦는 일	5	솔쟁이
	생벽돌을 건조장까지 이동하는 일	20	임채(말뭉이)
건조	생벽돌을 건조장에 쌓는 일	4	마당모치(쓰미)
	벽돌이 잘 마르도록 비닐을 덮거나 걷는 일	8	뒷일
	벽돌 모서리를 다듬는 일		다대기
	파벽을 골라내어 버리는 일	1	
	마른 벽돌을 건조장에서 가마 안까지 옮기는 일	8	시라지
소성	가마에 벽돌을 쌓는 일	3	가마쓰미
	가마 문을 막거나 트는 일	1	
	투탄구에 무연탄을 넣어 불을 조절하고 댄퍼를 열어 바람을 조절하는 일	3	화부
	구워진 벽돌을 가마에서 꺼내어 판매 차량에 싣거나 창고로 이동하는 일	9	이가지



벽돌 제조과정

# 수원시정연구원

##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 김태중, 「구한말 도자부건축소 부설 연외제조소에 관하여」, 『연구논문집』 3, 경남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소
- 송재선, 『우리나라 벽돌사』, 미래문화사, 2006, 253쪽
- 조홍식, 「한국 근대 적벽돌 건축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건축·학공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5~116쪽
- 「경동철도 개통 규정」, 『경동일보』 1930년 12월 1일
- 「수원시법보조회(水原市法保會)서 벽돌공장을 운영」, 『세월신문』, 1956년 3월 12일
- 「수원벽돌공장 조업」, 『조선일보』 1956년 5월 30일
- 수원시, 『시세월보』, 1955, 154쪽
- 「총동 50명 출동」, 『경향신문』, 1900년 6월 30일
- 김삼석, 「벽지인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중안 자료집Ⅳ』, 2010, 69쪽
- 김삼석, 「벽지인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중안 자료집Ⅳ』, 2010, 69쪽
- 김태중, 「구한말 도자부건축소 부설 연외제조소에 관하여」, 『연구논문집』 3, 경남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소, 171쪽
- 송재선, 『우리나라 벽돌사』, 미래문화사, 2006, 366쪽
-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직업안전협회, 1989, 173~174쪽
- 김삼석, 「벽지인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중안 자료집Ⅳ』, 2010, 100쪽
- 김삼석, 「벽지인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중안 자료집Ⅳ』, 2010, 101쪽
- 송재선, 『우리나라 벽돌사』, 미래문화사, 2006, 366쪽
- 김삼석, 「벽지인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중안 자료집Ⅳ』, 2010, 111쪽
- 김태중, 「구한말 도자부건축소 부설 연외제조소에 관하여」, 『연구논문집』 3, 경남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소, 171쪽
- 송재선, 『우리나라 벽돌사』, 미래문화사, 2006, 366쪽
-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직업안전협회, 1989, 173~174쪽

# SRI

수원종합공구단지,  
공구유통업에  
활기를 불어넣다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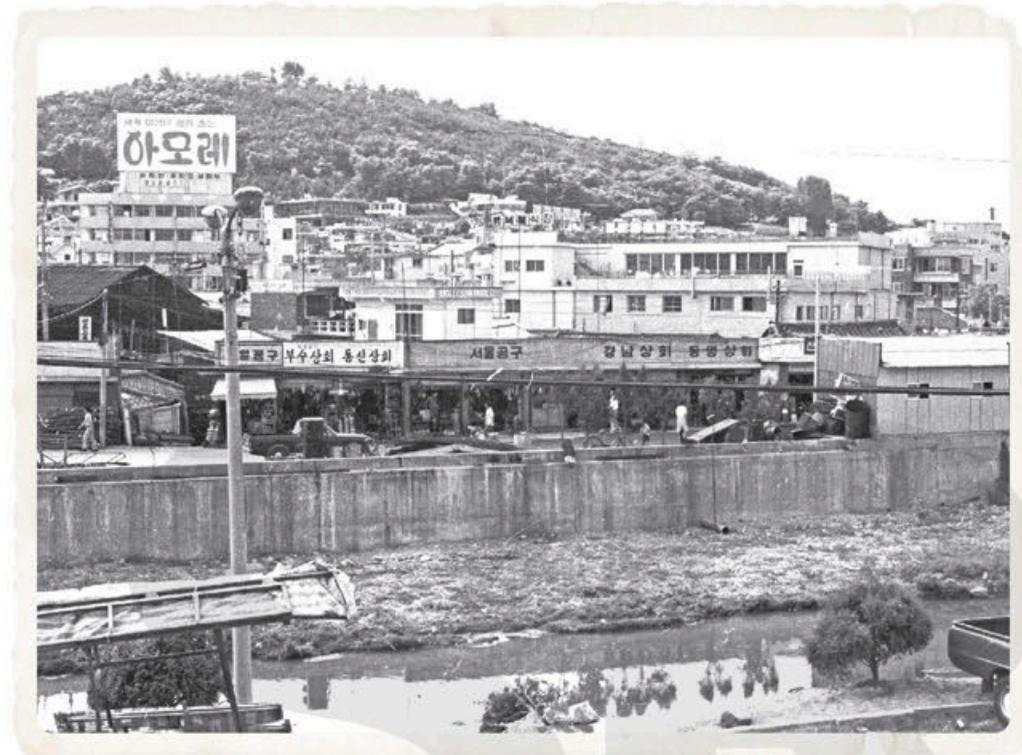
## 수원시정연구원

### 1. 수원종합공구단지의 조성

흔히 '고색동 공구단지'라고 불리는 수원종합공구단지는 수원역에서 서쪽으로 1.5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구단지이다. 대개의 시장은 교통이 발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를 판매하려는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수원시 관내 위치한 다른 공구시장들은 보통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구시장이다.

수원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공구시장은 구천동 공구시장으로, 1960년대 수원천 주변으로 형성된 구천동 공구시장은 1970년대 매교동까지 확산되어 갔다. 삼성을 비롯한 한일합섬, 코오롱, 선경직물 등의 기업과 산업체들이 들어서고 공구와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청계천 등 전국 각지에서 공구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천동과 매교동에 공구상가를 차렸다.<sup>1</sup>

그러나 구천동과 매교동 공구상가가 노후화되고 주차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수원 구도심 정비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구천동과 매교동 공구상가가 인접해 있는 수원천은 복개공간 복원사업(2009년 착공, 2012년 준공)이 추진되었다. 매교동 공구상가를 포함하는 매교동과 인계동 일대 115-8구역(수원 팔달8구역)의 재개발이 논의되었다.<sup>2</sup> 수원종합공구단지 제1대 관리단장이었던 서병석<sup>3</sup>은 매교동 공구상가에서 공구판매업을 하는 상인들이 재개발 전에 가게



1979년 구천동 공구시장(수원박물관 제공)

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했던 상황을 들려주었다.

*서병석* 원래가 수원시에는 매교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상, 공구상, 여러 가지 산업용품을 파는 곳이 그 전부 길옆으로다가 쪽 있었어요. 안전화 파는 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원시에도 이게 무슨 개발을 하려고 해도 뭐 그런 정보들만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다 보니까 공구상가들 하나 만들어야겠다. (중략) 그 상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장, 조합이사, 전무, 전무이사, 상무, 상무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원들은 매교동 상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조합으로다가 입점을 받아서 상가를 설립하고 분양을 하고.

이런 공간적인 불편함과 재개발의 상황에서 어떤 상인들은 매교동에 남기로 하고 또 다른 상인들은 매교동을 떠나기로 했다. 떠나는 상인들은 수원의 다른 장소에 새로운 공구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렇게 2005년 새로운 공구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조합이 결성되었다.



1996년 구천동 공구시장과 수원천 복개 도로(수원박물관 제공)



2000년 수원천에서 바라본 매교동 공구상가(수원박물관 제공)



2003년 임야 지대인 고색동 986번지 일대(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2006년 수원종합공구단지 조성(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2004년 수원공구 유통타운 기공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조합에서 새롭게 공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선택한 지역은 서수원의 고색동이다. 고색동을 비롯한 서수원 지역은 동수원 지역에 비해 거주인구나 유동인구, 사업체 등이 적어서 판매업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니었다.<sup>4</sup> 그럼에도 조합은 왜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서수원 지역을 새로운 공구단지는 터전으로 선택한 것일까?

고색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고 개발이 덜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수원시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의 존재이다. 동수원과 서수원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교각이나 지하도 같은 시설물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이동의 불편함과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과거부터 수원의 중심지는 경부선 철도의 동쪽에 있었다.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수원시청과 경기도청 같은 주요 관공서, 삼성전자 같은 중요 산업시설도 대부분 경부선 철도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고색동이 수원비행장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비행하는 엄청난 데시벨의 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에는 바로 옆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고색동은 한국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큰 흐름 속에서 게다가 경기도 최대 도시인 수원시에 속해 있음에도 2000년대까지도 농촌 마을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 최근의 수원시



수원종합공구단지 조감도

를 봐도 동수원 지역은 이미 대부분의 지역이 건물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데 비해, 서수원 지역의 절반은 농지나 녹지로 보인다.

공구단지를 조성하려 한다면 대규모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수원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해 왔고 현재도 증가 추세이다. 앞서 언급했듯 동수원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거지로서 산업 및 상업지역으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에 동수원 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시설을 새로 조성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sup>5</sup> 그러다 보니 새로운 공구단지는 동수원이 아닌 서수원 지역에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공구단지의 위치가 권선구 고색동이다. 특히 당시 고색동에 수원지방산업단지(현 텔타플렉스)가 조성 중이라는 것도 위치 선정에 영향을 주었다.

공구단지가 조성된 고색동 986번지 일대는 원래 낮은 산과 농지로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이 일대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별로 없던 지역,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지대가 저렴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새로운 공구단지의 조성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땅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었다. 산과 저지대로 이루어진 지역이라 공구단지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필요하였다.



2007년 수원종합공구단지(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2009년 수원종합공구단지(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준공 직후 수원종합공구단지

**서병석** 여기가 주력지도 있지만 거의 다 농지였습니다. 거의 다 농지. 농지를 매입을 해서 수권시하고도 협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구단지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농지를 다 매입을 하고 그런데 상당히 여기 땅이 깊었는데, 들어오시다 보면 조그만 산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산이 야산을 깎아서 여기들 다 메꾸고 많이 얇은 데는, 논 같은 데는 다 메우고 그다음에 산 자체도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길 이거 도 최하가 조합에서 다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1년여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2007년 11월 1일 '수원종합공구단지'라는 명칭으로 준공되었다. 준공 후 점포를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고, 전체 물량은 664호실이었다.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은 점포 위치가 달랐는데, 조합원분양 물량(50%)은 공구단지의 남문 출입구 일대의 점포이고, 일반분양 물량(50%)은 북문 출입구 일대의 점포였다. 그리고 일반분양과 다르게 조합원분양 점포 위치는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 분양을 통해 입점했던 상인들의 구성을 보면 매교동 일대에서 장사를 하던 조합원들이 50~6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40~50% 정도는 시흥공구단지과 안양공구단지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공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수원종합공구단지가 들어온 고색동 986번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다. 공구단지의 북쪽과 남쪽으로 6차선 도로인 권선로와 매송고색로가 있지만, 단지의 북문과 남문은 도로에서 안쪽으로 최소 150m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상황에서는 공구단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데 도로에 인접하지 않다는 점은 큰 단점이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에 공구단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최대한 큰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구청과 시청을 오가며 협의를 구하고 허가를 받았다. 그 결과 현재는 분양 초기의 표지판보다 큰 표지판으로 교체되어 설치되었다.

앞서 설명했던 서수원이라는 위치상의 악조건 때문인지 공구단지 분양은 순조롭지 않았다. 초기에는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모두 합쳐도 단지 내의 점포를 채울 수 없었고 공실이 많았다. 또한 초기에 입주한 공구업체는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단지 근방의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 입점한 업체들도 고정 거래처들을 통한 매출 이외의 소매 매출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 관리단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들은 매교동 일대의 공구상가거리의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고색동의 새로운 공구단지 입점을 설득하는 등 단지 홍보에 열을 올렸다.

**서병석** 분양이 잘 안 돼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그때 당시 그대도 제가 관리단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여기 그 관리단에 있는 부회장 이런 분들을 대동해서 시내 나가 다니면서 설득하고 홍보하고 왜 여기서 이려느냐 우리 같이 들어가서 수원 시내, 화성, 오산 한꺼번에 우리 상가로 물리게 하자! 엄청나게 쪽아다 니면서 홍보하고 그래서 차차 공실이 줄어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현재 공구단지 남문 앞에서 은성공구를 운영하는 임성수 사장은 수원종합공구단지 개장 시기부터 함께하였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임성수는 구로공구단지의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구로의 같은 공구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 한 명이 2008년에 수원종합공구단



수원종합공구단지 분양 홍보물



권선로에서 본 공구단지 북문



매송고색로에서 본 공구단지 남문

지에 신규 점포를 열게 되었고, 그도 신규 점포로 이직하였다. 수원종합공구단지의 초창기에는 손님들도 거의 없었고 매출도 형편없었다고 한다.

**임성수**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없었죠. 처음에는 빈 점포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제 밖도 또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도로가에서 좀 들어가 있어서 막 연립처럼 보였지. 그래서 과일 차들이나 이런 차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중략) 초창기 때는 진짜로 처음에 제가 이제 직원으로 왔을 때는 사장님하고 저하고 막 하루에 10만 원만 팔면 희식한다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 2. 수원종합공구단지의 공간구조

조성 초기의 불리함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수원종합공구단지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었다. 특히 매교동 공구상가와 달리 공간구조에서 고색동 공구단지는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다. 고색동 공구단지는 계획형 단지답게 반듯반듯한 내부도로에 일정한 규격과 모양의 건물들을 가지런하게 배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단지를 한번 둘러보면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처음 방문하는 고객도 별도의 안내도 없이 차를 타고 단지 내부를 쉽게 돌아다닐 수 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전통시장 형태의 공구시장은 인도까지 상품을 진열하여 통행이 불편하였고 불법 주차차량 등으로 교통이 혼잡해지는 등 협소한 공간 때문에 영업에 한계가 있었다. 그에 비해 수원종합공구단지의 경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건물 사이의 간격<sup>6</sup>이나 주



수원하역구센터

차공간을 넓게 설계하였다. 단지를 돌아다녀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통행에 불편이 될 정도로 물품을 건물 외부에 진열한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기존의 공구상가거리와 고색동 공구단지의 공간을 사진을 통해 비교해 보면 이런 공간의 차이가 확연하다. 특히 공구라는 물품은 특성상 무겁거나 크기가 큰 경우가 일반적이라 거리에 차량을 주로 이용한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공간의 차이는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원종합공구단지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는 38만 평 규모에 7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수원산업단지(델타플렉스)가 있다. 공구단지가 준공한 2007년 말에는 산업단지의 1단지와 2단지가 조성된 상태였고, 3단지가 조성되고 있었다. 2016년에는 산업단지의 3단지도 조성이 완료되었다. 현재 수원산업단지의 기업들은 공구단지의 중요한 고객층이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공구단지도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조사자** 고객 분들이 산업단지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서병석** 그렇죠. 산업단지로 직접 납품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나와서 구매해 가는 분들도 있고 뭐.



수원종합공구단지 일대 경관(2022년, 김승일 제공)



수원종합공구단지 전경(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분양 초기 남문 쪽 점포(2010년, 네이버지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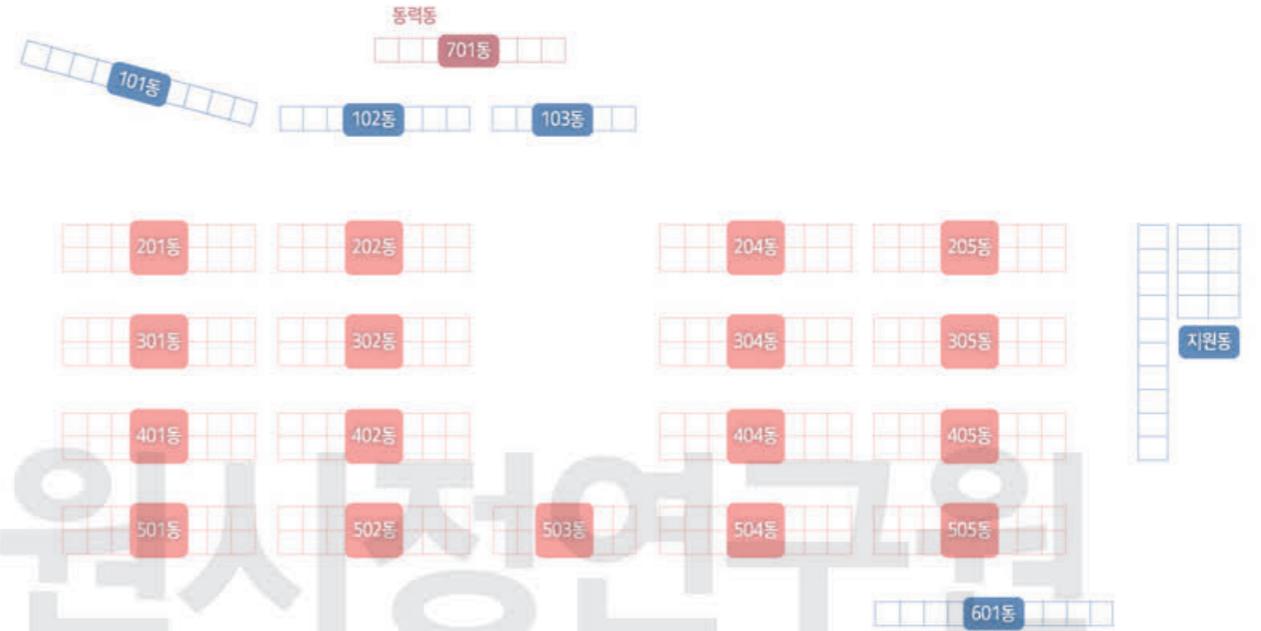
분양 초기 북문 쪽 점포(2010년, 네이버지도 제공)

**임성수** 그걸요. 그걸요 거의. 거기 손님들이 많죠. 거기 이제 공장 공장들이 여기 산업단지 공장들이 엄청 많으니까 거기에서 쓰는 소모자재나 공구들이나 이런 거 살려면 다 이쪽으로 오니까 가까우니까 일단.

분양 후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공구단지의 점포들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었다. 분양이 완료되기 그리고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도 점포들은 폐업하고 새로 창업하여 입점하고 가 계속 반복되었다.

창업하여 단지에 새로운 점포가 입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폐업도 단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공구단지의 공간은 계획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입점하는 업체들은 계획적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다. 예컨대 대형마트처럼 어떤 상품을 어느 위치에 진열하고 판매할지를 따로 연구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없다.

대신 여기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개



수원종합공구단지 배치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인사업자인 공구업체가 장사에 실패하면 망해서 폐업한다. 그러면 그 위치에 이전 업체와는 다른 물품들을 파는 신규업체가 입점한다. 이 새로운 업체를 찾는 고객들이 충분히 생기면 이 공구업체는 유지된다. 이런 장사의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면서 공구단지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자연스럽게 적응한다.

**서병석** 제가 여기 딱 들어오니까 안전용품 판만 파는 집들이 열네 네 집이 여기 들어와 있었어요. 안전용품만. 그래서 아니 이제 공구 상가가 무슨 안전용품 공구 상가냐! 그리고선 내가 했었는데 한 집, 한 집도 태가 되더라고요. 안 되는 집들은 이제 나가야죠. 못 배기죠. 그래서 도태가 되더니 그런데도 지금도 일곱, 여덟 군데가 돼요. (중략) 망한 사람 나가고 또 다른 집 다른 제품 취급하는 저기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다가 된 게 그게 이제 거의 10년 동안은 그 짓을 했어요.

공구단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한 단지 내에서 필요한 공구와 재료들을 모두 구입하기를 원한다. 예컨대 한 곳의 건설현장에서도 여러 종류의 공구나 자재, 소모품, 안전용품을 필요로 한다. 수원공구종합단지 안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들을 구입할 수 없다면 이 고객은 다른 근처의 매교동이나 안양의 다른 공구단지로 빠진 상품을 구입하러 다시 방문



101동



102동



103동



202동



204동



301동



302동



304동



401동



404동



404동



501동



502동



503동



504동



802동

수원시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화연구센터



102동과 202동



301동과 401동



201동과 301동



401동과 501동

해야 한다. 고객들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이 구비된 공구단지로 발걸음을 돌릴 것이다. 단지는 이런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고 폐업과 창업이 반복되며 변화하고 적응한다. 현재의 수원종합공구단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며 유지되고 있다.

### 3. 수원종합공구단지의 운영

공구단지라 하면 망치, 톱, 전동드릴 같은 공구로 분류되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곳은 아니다. 각종 산업현장과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구와 자재들, 소모품들을 취급하는 곳이다. 수원종합공구단지에도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입점해 있다. 전동공구나 전기용품, 안전용품 같은 비교적 평범한 물품들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단지 내에 여러 업체가 있어 쉽게 눈에 띈다. 그 외에도 특수한 용품들 예컨대, 베어링, 화학약품, 모터, 아



북문 밖 상가에 입점한 공구상점들  
현재는 공구단지의 북문과 남문 밖에까지 공구업체들이 들어섰다.

크릴, 간판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단지 내 최소 한두 업체는 입점해 있어서 단지 안쪽까지 다 돌아보면 발견할 수 있다. 단지를 몇 차례 둘러보니 다양한 업체들이 잘 조율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다.

표 1 수원종합공구단지 입점업체 업종 현황

업종	업체수	업종	업체수	업종	업체수
전기	26	판넬	6	고무호스	3
공구	24	용접	6	유니폼	3
안전용품	14	베어링	5	바퀴 운반	3
배관	11	아크릴	5	철물점	3
유공압	8	냉동 냉매	5	금속	2
포장	8	모터	4	세척 청소	2
전선	7	볼트	4	헬스 철망	2
기계설비	7	송 환풍기	4	CCTV	2
조명	6	계측기기	4	간판	1

자료 : 2SK산업유통네트워크 홈페이지, 수원종합공구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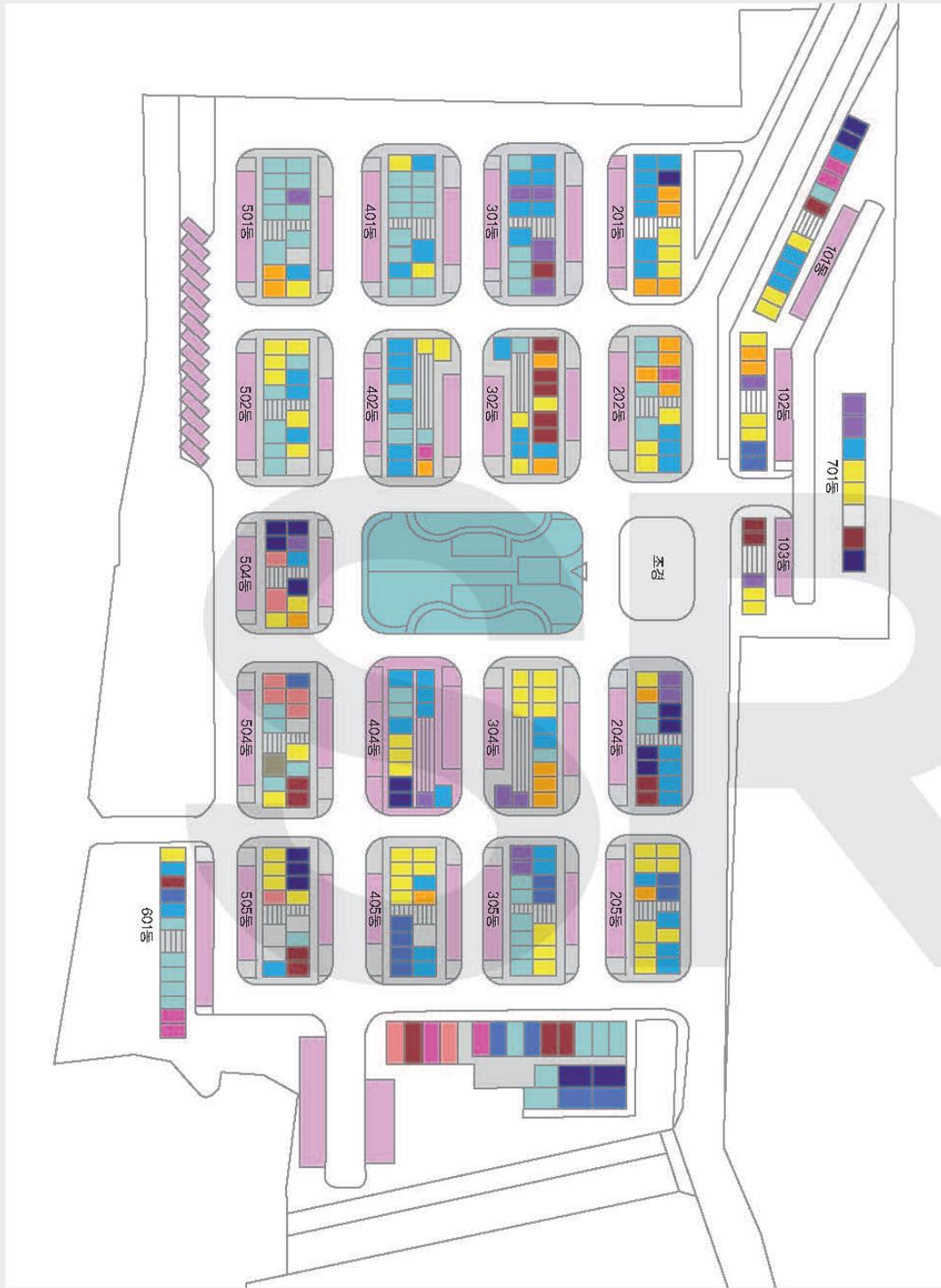
10년 이상의 시간을 거치면서 수원종합공구단지는 수원을 비롯한 수원 인근 지역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물론 단지에 입점해 있는 업체 사이에서도 잘 되는 업체 잘 안 되는 업체가 있다. 그래도 현재 남아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고정적인 거래처도 확보하고 있고 가게를 유지할 정도의 매출은 가지고 있다고 한다.

**조사자** 여기가 없어지는 업체들도 있겠네요?

**입성수**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고 그냥 또 제가 보니까 그냥 이제 오래 하셔기도 하고 그래서 다 먹고는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먹고는 사는데 그중에서 이제 돈을 모으고 이질게 늘어나고 가게가 늘어나고 이게 돈이 막 벌어진다는 게 보이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많지는 않아요. 이게 여기 다 먹고 살아요. 내가 볼 때는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그냥 막 재산이 늘어나고 가게가 늘어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고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병석** 깎는 집들은 그래도 지금 다 그래도 흘러가는 집들이에요.

현재 공구단지의 입점업체들이 웬만해서는 가게는 유지할 정도가 되고, 대부분 어느 정



범례-업종

구분	업종	업체수	구분	업종	업체수	구분	업종	업체수
■	공구(총합)	66	■	조경 원예	1	■	주차장	-
■	철물	17	■	생활잡화(가전, 냉장, 냉난방기, 자동차용품, 생활용품 등)	9			
■	잡자재	20	■	기계부품제작/판매	17			
■	전기, 전자통신, 조명	63	■	이크렐, 금속판재 가공	8			
■	배관	16	■	금속가공	1			
■	페인트/케미컬	22	■	기타(임대, 수리, 전산, 서비스, 장비, 편의점, 카페, 은행, 편의시설)	62			

수원종합공구단지 입점 업종

(이하나, 「공구 복합센터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석사학위논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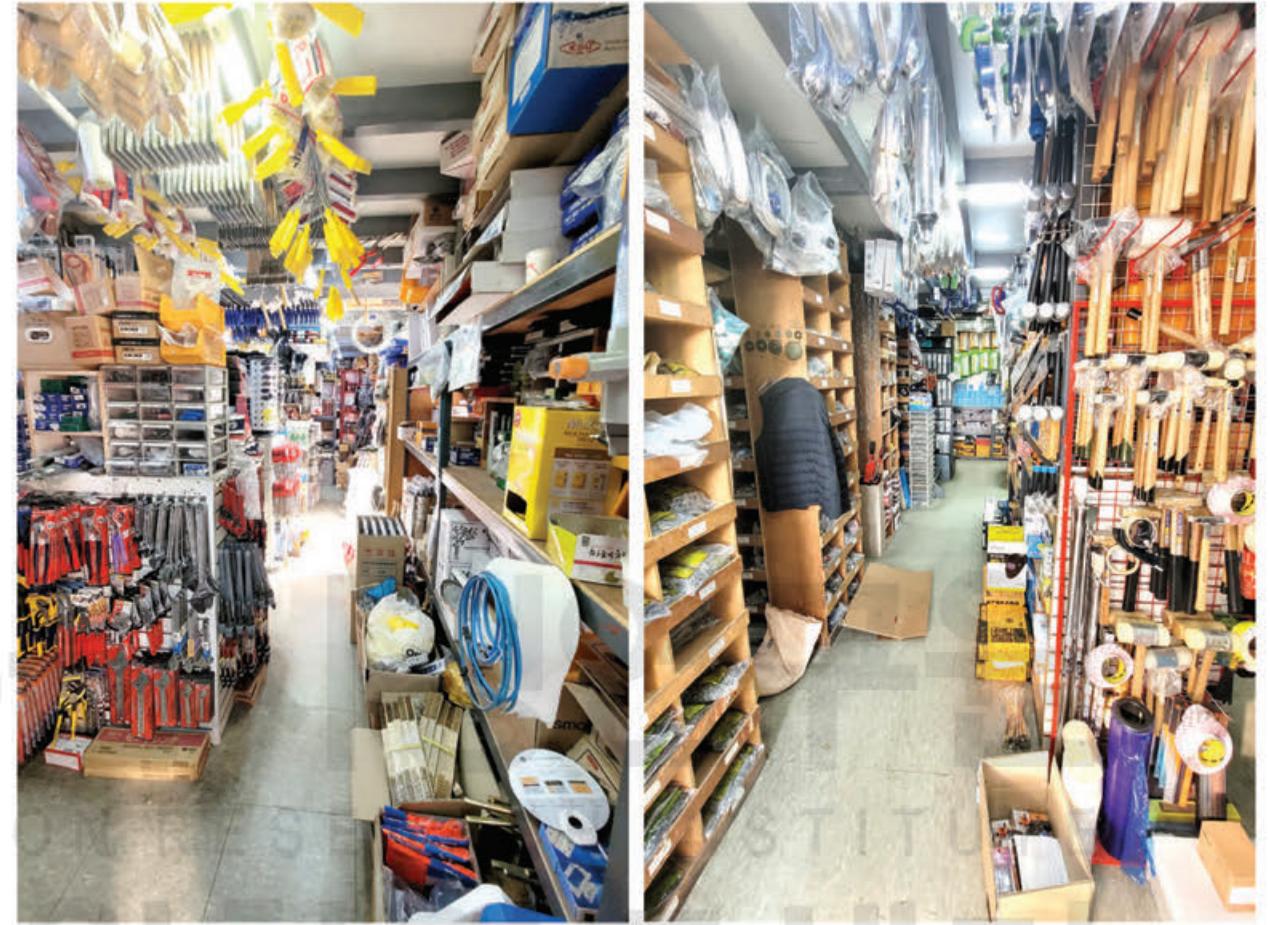


2022년 수원종합공구단지(김승일 제공)



공구단지에 입점한 다양한 업체

도 매출을 낸다고 해서 아무나 공구업체를 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구단지에 입점하는데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구를 판매한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판매업이 아니다. 공구나 자재를 판매하는 것은 생각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공구의 공급처나 가격 같은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많은 공구와 자재의 종류, 사용처, 사용법, 규격 등, 건설현장에서 공구나 자재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은어들도 알아야 한다. 이런 지식들을 익히는 것은 교과서나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구업계에서의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기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공구업체에 종업원으로 종사하며 수련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은성공구 대표의 경우는 12년 정도를 공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후 공구업체를 창업하고 7년을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한다.



다양한 종류의 공구로 가득한 은성공구의 내부

**임성수**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모르는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 20년 했다면서 잘 알고 그런 게 없으려워요. 지금도 어려워.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손님 성격들이 다 틀리고 부르는 용어들이 또 다 틀려요. 공구들도 다 알아야 되고. 이 손님이 뭘 가져가셨는지 전에 거 줘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 4. 갈등을 넘어 수원을 대표하는 공구단지

공구단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등 주변과의 마찰이 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 두 가지 있었다. 첫 번째는 공구단지 내부 도로 이용에 대한 것이다. 공구단지의 내부 도로는 권선로와 매송고색로라는 큰 도로를 연결하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근처 주민들이나 수원지방산업단지의 차량들은 공구단지의 내부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곤 했다.



남문 차단기

**서병석**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우회전하면 그냥 애경백화점으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시내거든요. (중략) 이 동네 사람만 다니면 뭐 낮에도 다니고 뭐 이런 거지만 아침 시간에는 산업단지 출근하는 출근자들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냥 이 길로 다니니까 저기서 신호 안 떨어지면 저기 그 큰길에서부터 신호 기다리는 게 이 공구상가 저 끝까지 그냥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장사해 온 사람들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결국, 공구단지는 입점업체들의 투표를 통해 내부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8월 단지의 남문과 북문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통행료 1,000원을 부과하였다. 이 때문에 내부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현재에도 통행료는 부과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공구단지 801동과 802동 간의 분쟁이 있다. 남문을 통해 단지에 들어서면 우측으로 801동과 802동이 보이는데 이 두 동은 펜스로 따로 구분되어 있다. 이곳에 입점한 업체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이 두 동은 수원



801동과 802동 앞 펜스

종합공구단지 건물로 조성되었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수원종합공구단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도 당연히 단지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펜스가 설치되면서 공구단지 관리단과 801동·802동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었고, 법원에서 “펜스 경계선 지상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져 현재는 펜스가 유지되는 상황이다.<sup>7</sup>

1960~1970년대 수원천 일대에 공구가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공구시장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오래되고 낡은 공구상가거리는 애물단지가 되고 재개발의 대상이 되었다. 이 공간에서 삶의 절반 이상을 보냈던 상인들은 자신들의 손패가 묻은 낡은 공간을 정리하고 고색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다시 가게를 열었다. 몇 년간은 매출이 감소하고 어떤 가게는 문을 닫았다. 폐업한 자리에는 또 다른 가게가 들어왔다.

단지 주변과의 크고 작은 잡음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고색동 공구단지는 수원을 대표하는 공구단지가 되었다. 이제 14년이 된 수원종합공구단지는 활기가 넘친다. 예전의 매교동 공구거리도 분명 지금의 고색동 공구단지처럼 활기찼을 것이다. 40

년 전 매교동의 젊은 상인들은 이제 은퇴를 앞둔 머리가 하얗게 쎈 나이 든 상인이 되었다. 언젠가 지금 고색동의 젊은 상인들도 머리가 하얗게 셀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고색동 공구단지도 낡고 지금의 활기를 잃을지도 모른다. 고색동 공구단지의 재개발이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고색동 공구단지의 끝은 아닐 것이다. 매교동 공구상가거리의 사람들로부터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가 시작된 것처럼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SRI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 송차영, 2014, 「구천동 공구시장의 어제와 오늘」, 『문화마을』, 수원씨문화재단; 정민재, 2020, 「맨지니어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곳, 매교동 공구상가」, 『매교동』, 수원학연구원.
2. 2008년 혁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2021년 11월 현재 매교동 공구상가거리의 일부는 철거되고 아파트단지 조성 공사 중이다.
3. 수원종합공구단지 관리단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2021년 4월까지 관리단장을 역임하였다. 수원종합공구단지 조성되기 이전에는 매교동 공구상가거리에서 공구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원종합공구단지 조성 후 조합원으로 입성하여 현재까지 공구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4. 인구의 비율은 2021년 기준 동수원 83%, 서수원 17% 정도이다. 사업체의 비율은 2019년 기준 동수원 87%, 서수원 13% 정도이다. 동수원과 서수원 지역은 기준으로 구분한 통계치로는 숫자 확인에 동별 통계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다. (통계로보는 수원, 수원시 홈페이지)
5. 1990년대 후반 명동지역과 2010년대 중 후반 광고지역까지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고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동수원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분당 당시 뽕보 뽕콩밭에 따르면 동과 동 사이의 거리는 21m이다.
7. 『수원종합공구단지 입주지침, 1.5m 펜스 두고 6년과 소송전』, 『중부일보』 2014년 7월 3일(<http://www.joongbo.com/news/articleView.htm?idxno=932123>) 및 공구단지 관리단 관계자와의 통화로 내용 정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1. 서수원 지역에 자리 잡은 중고차매매단지**

고도제한이 걸린 수원역 주변 낮은 상가에는 다양한 식당들과 술집, 카페가 입점해 있다. 수원역을 품은 애경백화점을 기점으로 롯데몰이 들어섰고 곧 KCC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0년대에 전국에서 공실률이 없고 유동인구가 최고인 수원역 거리의 가능성은 쇼핑물에게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큰 부지까지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과거 기차를 이용한 물류수송을 위해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평동의 공장지대는 2000년대 들어 유통상업지구로 점차 바뀌어 갔다. 역에 바짝 붙어 새롭게 단장한 상업시설은 길 건너 작은 가게들과 달리 여기를 실내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갖추어져 있다.

거대한 쇼핑물 구역을 가르는 고가도로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쇼핑물만큼이나 큰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삼삼오오 모여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자동차들이 즐비하다.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양새가 이곳의 특징이면서 이 땅의 용도를 찾아낸 사람들의 자구책을 볼 수 있다.

논밭과 공업지역이 함께 있는 평동과 고색동은 수원의 다른 지역이 높다란 아파트를 쪽 쪽 올리는 동안 옛 마을의 길과 농지가 남아 있는 곳이다. 그리고 선경직물 공장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서둔동 서울대학교 농대 터가 옛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던 빈 땅과 사양산업이 돼 버린 SK의 선경직물 공장에는 중고차매매단지의



① 수원오토컬렉션



② 수원오토컬렉션2



③ 도이치오월드



서수원 지역 자동차서비스업체



⑫ SK V1 모터스



⑪ 신중앙매매단지



⑩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④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



⑤ 수원자동차경매단지



⑥ 엔카 직영 수원 고색 광고지원센터



⑦ 퍼스트오토자동차검사소



⑧ 남수원자동차매매단지



⑨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

표 1 2020년 서수원 지역 주요 자동차서비스업체 현황과 특징

<p>① 수원오토컬렉션 (권선로 314)</p>	<p><b>규모 및 시설, 입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 모 : 지하 6층 / 지상 4층</li> <li>• 전시대수 : 약 2,000대</li> <li>• 관련시설 : 지하 2층~6층 전시장으로 구성됨. 지하 1층은 정비, 검사, 용품점이 있음. 1층은 금융, 마트, 분식점, 카페, 식당 등이 있으며 4층까지 딜러사 및 판매사들이 입주하고 있음. 오토컬렉션 입구에는 GS LPG충전소의 SK주유소가 입주함</li> </ul>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여 개의 딜러사 및 판매, 정비사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 41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100% 실매물로 운영함</li> </ul>	<p>⑦ 퍼스트오토자동차 검사소 (평동로 52-30)</p>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검사장으로 1급정비업체가 검사장비를 사설한 후 검사하는 곳</li> <li>• 검사 시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정비와 판금도장 수행</li> </ul>
<p>② 수원오토컬렉션2 (권선로 309)</p>	<p><b>규모 및 시설, 입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 모 : 지상 4층 / 지하 6층 1개동</li> <li>• 건축면적 : 28,592.62㎡(약 8,649평)</li> <li>• 연 면 적 : 275,127.61㎡(약 83,226평)</li> <li>• 입 점 수 : 약 255개 업체</li> <li>• 전시대수 : 10,894대</li> <li>• 관련시설 : 신차 및 중고차 판매 및 전시장, 자동차 정비, 일반판매시설(예정), 식음료시설(예정), 키스공간(예정)</li> </ul>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차 및 중고차 판매를 비롯한 오토 토탈 서비스(Auto Total Service)를 제공하며, 자동차 복합문화공간(Auto Culture Complex)을 목표로 함</li> <li>•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실을 개설하여 자동차 명의 이전 및 취득세 부과 등 일 평균 1,200여 건을 처리함</li> </ul>	<p>⑧ 남수원자동차 매매단지 (매송고색로 840)</p>	<p><b>규모 및 시설, 입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색동 입구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 퍼스트오토자동차검사소, 수원자동차경매단지 있음</li> </ul>
<p>③ 도이치오토월드 (권선로 308-5)</p>	<p><b>규모 및 시설, 입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 모 : 지상 4층 / 지하 6층 1개동</li> <li>• 건축면적 : 28,592.62㎡(약 8,649평)</li> <li>• 연 면 적 : 275,127.61㎡(약 83,226평)</li> <li>• 입 점 수 : 약 255개 업체</li> <li>• 전시대수 : 10,894대</li> <li>• 관련시설 : 신차 및 중고차 판매 및 전시장, 자동차 정비, 일반판매시설(예정), 식음료시설(예정), 키스공간(예정)</li> </ul>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차 및 중고차 판매를 비롯한 오토 토탈 서비스(Auto Total Service)를 제공하며, 자동차 복합문화공간(Auto Culture Complex)을 목표로 함</li> <li>•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실을 개설하여 자동차 명의 이전 및 취득세 부과 등 일 평균 1,200여 건을 처리함</li> </ul>	<p>⑨ 수원중앙자동차 매매단지 (매송고색로 882)</p>	<p><b>규모 및 시설, 입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대수 : 약 8,000대</li> <li>• 주요업체 : 17개 업체 입주</li> <li>• 규 모 : 3층의 주차타워와 본 건물 옆 마당주차장 구성으로 평균 보유 대물대수는 약 8,000대로 월평균 5,000여 대의 자동차를 판매함</li> </ul>
<p>④ 서수원자동차 매매단지 (평동로 37)</p>	<p><b>규모 및 시설, 입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퍼스트오토검사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매매는 물론 검사장 진입 또는 검사완료 후 바로 대로 진출이 용이하여 대형검사를 위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li> </ul>	<p>⑩ 한국자동차 기술인협회 (세화로 70-2)</p>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의 정비, 점검, 중고차성능, 튜닝, 검사 및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의 자격과 교육, 취업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li> </ul>
<p>⑤ 수원자동차 경매단지 (평동로 21)</p>	<p><b>규모 및 시설, 입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주변에 중고차는 물론 중고타이어, 중고부품 판매점 등이 입지에 있음</li> </ul>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차매매단지로 과거 경매를 진행했던 장소의 이미지가 남아 있어 딜러사 간에는 경매단지로 불림</li> </ul>	<p>⑪ 신중앙매매단지 (세화로 49)</p>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의 정비, 점검, 중고차성능, 튜닝, 검사 및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의 자격과 교육, 취업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li> </ul>
<p>⑥ 엔카 직영 수원 고색 광고지원센터 (평동로 26)</p>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 차량 진단 서비스</li> <li>• 프리미엄 진단은 172가지 진단항목과 차량 특성에 맞게 진단</li> </ul>	<p>⑫ SKVI 모터스 (평동로 79번길 23 일원)</p>	<p><b>규모 및 시설, 입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 모 : 지하 4층 / 지상 6층</li> <li>• 대지면적 : 28,315.00㎡</li> <li>• 건축면적 : 20,346.55㎡(건폐율 71.86%)</li> <li>• 연 면 적 : 199,379.94㎡(용적률 393.10%)</li> <li>• 전시대수 : 8,753대(예정)</li> <li>• 입 점 수 : 약 130개의 매매상가, 55개의 상업시설</li> <li>• 관련시설 : 차량입고, 검사, 정비, 세차와 광택, 사진촬영까지 한 개의 층에서 진행되며, 금융, 보험서비스, 이전등록 서비스가 가능함</li> </ul>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1월 준공된 현대식 자동차매매단지로 수원시 자동차매매글러스터 중심에 SK건설이 시공한 최초의 브랜드 자동차매매단지임. 축구장 27배의 규모로 노지형 자동차매매단지 아닌, 실내 전시장과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 상품화 시스템이 구비됨</li> <li>• 자동차등록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운영함</li> </ul>

자료 : 양은순, 2020, 『수원시 자동차 서비스 산업 시장분석 및 복합단지 개발 경제성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97~102쪽.

시장성이 확장됨에 따라 현대화된 거대한 단지가 들어섰다. 여전히 드문드문 보이는 낡은 집과 밭 사이로 자동차를 위한 매매단지와 공업사, 공구상가, 카센터, 타이어 가게 등이 이곳을 설명한다.

비행장의 존재가 수원역이라는 역세권의 가능성 중에 중고차매매시장을 선택하게 하였다. 소매업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으면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중고차시장의 입지조건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갈수록 인구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아니면서 접근성, 넓은 부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모두를 충족하는 곳은 별로 없다. 서울 중심주의가 더 공고해질수록 개발이 제한된 고색동의 중고차매매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의 노력과 더불어 수원시에서도 여가문화시설이 배후지로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점점 커지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을 중고자동차복합단지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매매단지인 도이치오토월드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도이치모터스부터 1991년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시작한 수성자동차까지 수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입지라고 말하였다. 수성자동차 대표 박창준은 수원 고색동에서 중고차 거래를 3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박창준** 수원이 크게 된 이유는 수원역 부근에 군 공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주변이 다 묶였어요. 교통제한이 있다 보니까 낙후지역이 됐죠. 근데 교통요지잖아요. 수원이 사통팔달이고, 이쪽이 나대지가 많아요. 다 보니까 대도시이 이렇게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서수원 지역에는 자동차서비스업체가 대거 들어와 있는데, 이는 교통이 편리하지만 개발이 덜 되어 자동차서비스업체가 필요로 하는 넓은 공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 2. 수원 중고차시장의 초창기 풍경

한국사회가 마이카시대로 진입했던 때는 1980년대 중반이다. 임금이 오르면서 월급쟁이도 차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신차 보급이 확장될수록 커지는 것이 중고차 시장이다. 중고차시장이 1980년대 전에 없던 것은 아니다. 각각 흩어져 있던 중고차매매상사들이 거래를 해 왔다. 최초의 중고차매매단지는 서울의 장안평중고차매매단지이다. 1979년 7월 24일 6개 매매상사와 509명의 사원으로 시작하였다. 최초인 만큼 주변에 자동



1987년 원천동 종합자동차매매시장(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90년 원천동 종합자동차매매시장(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원천동 종합자동차매매시장(1988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차 관련 시설도 많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부품이 없을 정도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수원의 최초 매매상사는 삼영상사이고 대표는 문영주이다. 1972년 12월 28일에 원천동 300번지에 등록되어 있다. 수원의 최초이면서 경기도에서도 최초로 세워진 매매상사이다. 현재 평동에서 차사랑광택을 운영하고 있는 박석래는 1957년생으로, 1984년 장안평에서도 제 생활을 하며 광택 일을 배웠고, 서봉기의 제안으로 1989년 수원 원천동으로 내려와 중고차매매시장에서 평생을 보냈다.

**박석래** 그전에는 삼성전자 있고 태평양화학 있는데 거기 스카우트돼 가지고 왔어요. 거기 사장이. 거기에 중고차매매센터가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수원에. 중고매매자동차상사. 그때가 15개인가 12개가 있었어요. 경기도로랑장 서봉기 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돌아가셨지만 나를 잘 봐가지고 안에다 자리를 하나 줬어요. 그 매매센터 상사 안에 부지를 하나 줬어요. 자기 차도 광내고 거기 안에 있는 차들 거의 다 내가 일을 했지. (중략) 3~4년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에 93년인가 왔을 거예요. 평동으로. 그쪽에는 부지가 없으니까. 그때는 땅 부지가 중고차는 임대료가 싸야 되거든. 변두리로 쫓겨나게 돼요. 그때는 평동이 변두리였어요. 이쪽이 땅값도 싸고 평장리 비행기 소음도 크고 누가 외부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거지. 대상상사, 삼명상사, 대량상사, 오영... 다 기억했

는데 여기 와서는 수성상사라든지 다른 게 많이 생긴 거지. 다 이사 온 거지. 태평양 있던 게 다 이리 온 거지.



원천동 종합자동차매매시장에서도 중고차 광택업체를 운영했던 박석래

원천동에 있었던 매매상사들은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자리를 옮겼는데,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활성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시의 중고차매매시장은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이었고, 서울이 아닌 지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다. 1988년 수원의 자동차 보급률은 4.5가구당 1대로, 등록된 차량은 3만 164대였고, 중고차 판매대수는 5,586대였다. 자가용의 비율은 76%지만 업무용 차량인 대형차, 특수차, 승합차의 비율이 승용차보다 조금 더 높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진정한 마이카시대로 보기는 어려웠다. 1993년에서야 승용차 점유율이 72.8%로 다수를 점하게 된다.

자동차관리사업인 중고차매매상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은 1997년이다. 그전까지는 중고차매매상사를 쉽게 낼 수 없었기 때문에 1985년에는 6개 상사가 허가되었고 그 6개 상사가 쫓 유지되어 오다가 1990년에 8개 상사로 늘어난다. 1990년대 초반 상사들은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들어간다. 현재는 도로가 새로 나면서 사라진 단지로 벌말교차로와 벌터교차로 사이에 있었다.

**박석래** 90년도 즈음에 평동에서 중고차매매상사들을 단지화했어요. 상사들이 한 여려 개가 분산돼 있잖아요. 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짓고 주차장 해서 수원시에 있는 상사들을 다 모은 거죠. 단지 한가운데에 수원역 앞에 우회도로가 개설돼서 마침 이전하게 돼서 여기에 토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 다시 수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색동에다 다시 단지를 만들었어요.

현재 수원자동차경매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왕수의 아버지 이승백은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세웠다. 평동단지가 도로계획 안에 들어가면서 경매단지라는 이름으로 다른 땅으로 옮겨 간 것이다. 당시 평동단지에 입주해 있었던 수성자동차매매상사에서 딜러로 일했던 박창준은 그 당시 평동단지가 가장 좋은 시설이었다고 한다. 수성자동차는 1991년

에 등록된 매매상사로, 박창준이 1996년에 매매상사를 인수하면서 대표가 됐다. 박창준이 기억하는 평동단지의 임대료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다. 평동단지를 세운 이승백은 수원 토박이로 공무원으로 퇴직 후에 가지고 있던 땅에 중고차매매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왕수**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어. 우리가 평동에다가 최초로 단지가 생겼고 고다음에 중앙매매단지가 생기고 우리는 이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자동차 관련 시설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지. 옛날에는 처허벌판이거든. 평동이각튼가 고색동이 제일 개발이 더딘 데고 낙후된 데란 말야. 농사짓는 땅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평동에다가 중고차매매단지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차량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지.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농사짓는 것보다는 개발을 해서 건물 지어 놓고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중고차 상사들한테 임대료 하는 게 수입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1985년 평동에 자리한  
수원종합자동차매매상사



이왕수는 아버지 이승백이 평동단지를 세운 후에 다른 중고차매매단지가 생기고 자동차 관련 시설들도 생겨났다고 말하였다. 이후에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도로에 수용되면서 입주한 상사들 중에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수원시에 영업권 보장을 외친 덕분에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평동단지가 수용된 후 이승백은 가지고 있던 다른 땅에 새롭게 매매단지를 세운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중고자동차시장의 덩치가 커지고 특히 매매상사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원자동차매매단지 이왕수

중고차시장이 커지고 있었지만 체계는 잡혀 있지 않았다. 여전히 소비자가 접근하기 힘든 시장이었고 중고차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건달에 불과하였다. 실제로도 싸움이 심하였다.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본 이왕수는 지금은 많이 정화되었다며 당시를 회상하였다.

**이왕수** 건달들도 많고, 맨날 여기저기 싸박질 벌어지고 밤에 불 켜 있으면 말이며, 뭐 하나 싶으면 밤새 노름하고. 그때가 한 2000년대 초인가? 2001년 정도 됐을 거야. 밤새도록 노름해 가지고 말이며 돈 잃고, 돈 떨어지면 키를 넘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다 일로 몰려오고 붙잡혀 가고. 그게 많았어요. 경찰차 오면 어떤 놈 또 노름했구만. 그러다가 어떤 때 보면 말이야 차를 가지고 도망가는 놈. 벌의별 높지 않아.

1990년대에 달러로 일했던 박창준도 거칠었던 시장이었다고 회상한다.

**박창준**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들거지 서로 또 막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니까. 힘들었죠. 정상적으로 영입하는 사람은 견디기 힘든 정도로 거칠었어요. 세계가. 저 같은 경우도 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시장은 좋았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중고차 딜러를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잡고 있었으니까. 숙된 말로 골목대장 정도 해야지 중고차 한다 할 정도로.



1990년 비닐하우스 지대



1993년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



1996년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



2003년 세화로 건설로 사라진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

박석래는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달림을 받았던 박창준을 기억하고 있었다.

**박석래** 그때는 손님이 고객이 오면 딱 정문에서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해 버려. 코팅행위를 다 하는 거죠. 밑에 일하는 애 하나씩 뒤 갖고 “야 손님 왔다. 작업해라.” 그 사람들 시키는 거죠. 깡패들이. 지금 그 사람들 다 그만뒀지. 그런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는 이제 알아주지도 않아요. 끝났어요. 옛날에나 통했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중고차시장은 무법지대였다. 하지만 그만큼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뛰어들 만한 시장이었다. 매매상사가 허가제이다 보니 경쟁이 낮았고 시장은 딜러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시세일 만큼 정보의 비대칭이 극심하였다. 게다가 서비스 인식이 없어서 사후처리는 당연히 없었고 현재와 같은 품질보증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중고차가 5만km

전후였다. 법적으로 책임 소재를 묻는 제도의 부재는 파는 사람에게만 유리하였다. 소비자에게는 최악이지만 파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항 중이던 중고차시장은 1997년 IMF경제위기 때 고꾸라진다.

### 3.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위기와 뜻밖의 호황

도로 건설로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사라지면서 이승백은 이참에 규모를 더 키우고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다른 땅에 경매단지를 계획하였다. 이때가 1997년으로, 공사를 하는 도중 IMF경제위기가 왔다. 은행에서 빌린 공사대금 이자는 22%까지 치솟았다.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입주했던 매매상사들의 보증금을 빼준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은 메마른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정식 오픈을 2001년까지 미루었다.

그 사이 남수원자동차매매단지가 오픈하고 수원자동차경매단지가 개장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가 세워진다. 이제까지 세워진 매매단지 중에서도 가장 큰 시설이었다. 경매단지 설립 당시 초기 계획은 40개 상사를 유치하는 것이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매매단지들이 생겨나면서 계획을 변경하였다. 갑자기 매매상사의 수가 증가할 리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매매단지의 최소 법적 기준이 이전에는 1개 상사당 70평에 자동차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였다가 200평에 4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2칸씩 20개 상사를 유치하기로 한다.

중고차상사 증가를 내다본 사람들은 고색동에 하나 둘 매매단지 설립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IMF경제위기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어떤 이는 땅값이 떨어지자 약삭빠르게 땅을 사들여 매매단지를 조성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는 대출금에 허덕이며 고생했을 것이다. 매매상사들은 순간적으로 폭락한 자동차 값에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호황이 찾아왔다고 박창준은 말하였다.

**박창준** IMF 때 중고차가 처음으로 폭락했어요. 그때 경기 완전 불황이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2003년도였나? 카드대란. 가계가 무너지고 해서 두 번째 폭락이 오고 나머지는 크게 없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뭐. 그런데 IMF 때만 힘들었지 그때 이후에는 김대중 정부가 가계대출 카드 막 뿌렸잖아요. 그 때가 또 호황이었어요. IMF 이후 폭락 왔다가 그 이후에 또 호황이었어요. 가계대출이 대충 강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한 대 가지고 소비자한테 차 한 대로 깡을 하는 거예요. 깡. 현대, 삼성, 알지 이런 테다가 몇 군데에 대출을 받아서 차 매도 한 번 딱 치고 그게 사실 깡이죠. 그게 결론은 중고



2005년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



수원자동차경매단지 상가와 주차장



차시장에 좋은 상황이었죠. 역사죠. 그런데 특히 수원이 집약돼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그랬어요. 내가 봐도 세상이 미친 거 같았으니까. 그게 2003년도에 카드대란이 일어나면서 멈췄죠.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에는 항상 좋아지고 있어요.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니까.

자동차회사들의 연쇄부도가 신차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딜러들이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가격 하락이 도미노처럼 몰려 왔다. 고통스러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내수 부진이 경제침체로 이어질 우려에 신용카드를 활성화하였다. 딜러들과 달리 박석래는 자동차 매물을 새 차로 바꿔 주는 업체였으므로 어려움은커녕 더 호황이었다고 한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중고차시장에 차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박석래 아니요. 우리는 그때 돈을 더 잘 벌었어요.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해 자빠지니까 전부가 중고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팔려. 일이 다 바쁘지. 반대로 갑니다. 딜러들은 힘든데 우리 일은 반대로 가. 더 바빠서.

하지만 호황에 합산된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카드깡이라는 편법은 IMF경제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자동차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하였다. 딜러들은 느슨해진 카드사의 발급조건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매개로 수수료를 챙겼다. 박창준의 말대로 세상이 미쳐 있었다. 결국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났고, 2004년 신용불량자의 80%가 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이었다. 내수경제는 침체기로 들어선다.

여기에 더해 1996년 중고자동차매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1997년 IMF경제위기 영향으로 파산한 자영업자와 실직된 화이트컬러가 중고차매매시장에 대거 유입되었다. 매매업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수는 1997년 1,840개에서 1998년 2,252개, 1999년 3,179개, 2000년 3,951개로 증가율은 각각 22.4%, 41.2%, 24.3%로 2002년 4,710개 업체로 정점을 찍는다. 과도한 업체 증가는 수익률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카드대란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겹쳐지면서 다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수가 줄어든다. 중고차 거래도 2002년 189만 6,610대로 최대를 기록하고 2003년 177만 3,140대, 2004년 164만 6,877대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2004년 9월 기준 중고차 매매업체수는 3,278개로 2000년보다 적어진다.



수원자동차경매단지  
상가와 주차장

중고차매매상사의 숫자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진정된 이후에서야 증가세로 돌아선다. 경기가 회복되고 신차 판매량 증가가 중고차 보유량 증가 여력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수치이다. 최근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막히고 내수 증진을 위한 자동차 세제 혜택으로 국산과 수입차를 합한 신차 판매량이 190만 대를 넘어섰다. 2021년에는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신차 판매량은 9% 감소했지만 내수 판매액은 1.8% 증가하였다. 고가의 자동차 판매량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중고차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순환효과를 일으킨다. “항상 좋아지고 있어요.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니까.”라고 박창준은 말하였다. 중고자동차 시장은 계속해서 팽창하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었다.

#### 4. 수원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성장

‘연 10조 매출, 신차보다 1.44배 크다’는 거창한 제목의 기사가 2019년 12월 9일자 『한국경제』에 실렸다. 이 기사는 국내 중고차시장을 분석하고 있는데, 2013~2018년 국내 중고차 판매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동안 18.8%의 연평균 성장을 이루었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양적 팽창에 의한 호황을 누렸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전체 매출만 따진다면 5년 동안 2배로 뛰었고 그래서 제목에 연 10조 원이라는 첫머리가 달린 것이다.

시장이 빠르게 팽창한다는 건 그만큼 중고차 관련 업체수도 증가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중고차매매상사와 딜러 수의 증가는 중고차시장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장이 갖춰진 매매단지의 수요로 이어지는데, 초기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조성한 대규모 중고차매매단지의 분양이 성공하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도 우후죽순 생기는 형국이다. 매매단지의 공급량 증가는 또다시 중고차매매상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체수는 2010년 4,286개에서 2020년 6,213개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중고차시장과 중고차 관련 업체수가 성장한다고 해도 중고차매매단지는 지리적 제약을 받는다. 또한 매매단지가 갑자기 생긴다고 해서 매매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단지를 채우기까지 몇 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많은 매매단지들이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은 2020년 초대형 매매단지인 SKV1과 도이치모터스 두 곳이 개장을 한다. 이미 매매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11억 원에서 14억 원에 달하는 비



2016년 수원자동차복합단지현대화사업 기공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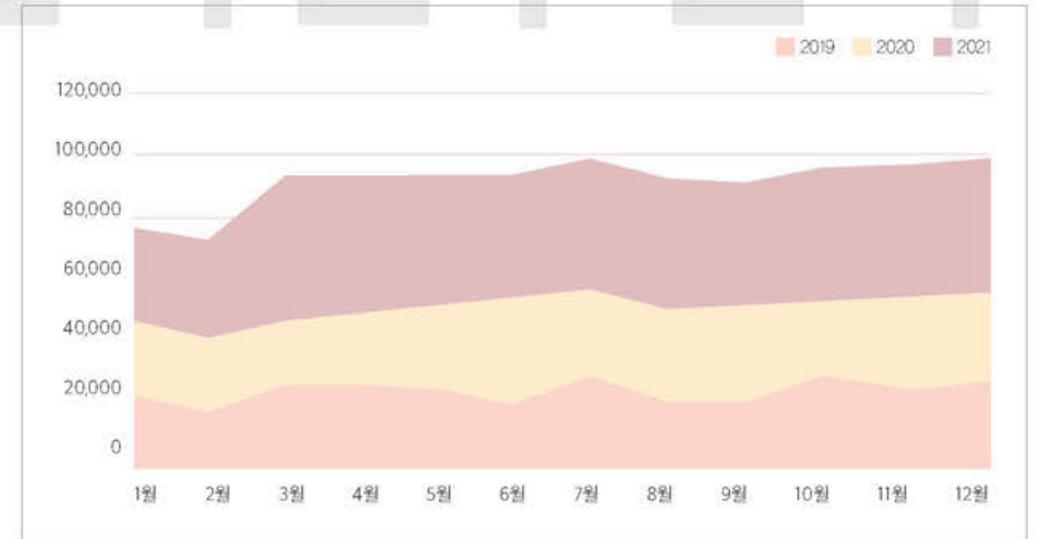
싼 분양가와 2019년 개장 전 SKV1 130개, 도이모터스 255개로 도합 385개 매매상사 분양이 가능한가라는 우려의 시선이 팽배하였다. 자동차경매단지를 운영하는 이왕수는 도이치모터스와 SKV1의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가 업체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

**이왕수** 전국에서 중고차매매시장이 제일 활성화된 지역이 수원시여. 초창기에는 대구 저 지방에서 수원으로 중고차 구입하러 왔어. 그렇게 하다가 잘 되니까는 이제 여기 도이치모터스, SKV1 그전에는 우리가 했고 고다음에 중앙단지가 들어왔잖고 복수원이 들어섰고 명동에 저기 들어서고 여기 수원도 곳곳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많이 들어섰어요. 상사수로는 200여 개가 먹고 사는 거야. 여기에다 도이치모터스가 250개 정도, SK가 한 120에서 130개 정도, 200개 상사가 먹고 살던 걸 갖다가 370~380개가 더 생긴 거야. 갑자기 500개에서 600개로 늘어나 버린 거야. 이게 얼마 안 됐어. 여기서도 반 이상이 갖는데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보증금이 한 7,000에 월세 300여 만 원 받는데 저쪽에는 8억 인가 10억에 분양을 했던 말이야. 그 사람들이 돈이 갚어가지고 분양받아서 갖겠냐고. 은행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분양대금을 저리로 대출을 해 주고 저기서는 받고 입주 상사들은 빚쟁이가 되는 거야.

표 2 2019~2021년 수원 중고차 매도건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23,269	20,599	31,888
2월	19,711	22,097	32,716
3월	24,061	25,244	42,109
4월	24,362	27,864	39,014
5월	23,855	29,644	37,116
6월	21,094	34,454	39,190
7월	24,712	34,232	39,143
8월	21,537	30,748	38,049
9월	21,767	32,848	34,691
10월	24,416	31,789	37,752
11월	22,339	35,106	39,691
12월	23,278	36,452	39,060
합계	274,401	361,077	450,419



2019~2021년 수원 중고차 매도건수



SK V1 motors(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 오토컬렉션 자동차매매단지(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도이치오토월드 대표 장준호

매매단지를 운영하는 경쟁업체 입장이기도 하지만 10억 원에 달하는 분양가와 550만 원의 월 임대료는 매매업체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와 별도로 전시장에 세워진 주차장 공간비는 1대당 15만 원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려의 시선과 달리 이왕수가 동의했던 전국에서 수원시의 중고차매매시장이 제일 활성화돼 있다는 위력이 발휘되었다. 2020년에 문을 연 두 곳 모두 분양이 완료되고 단지 활성화도 급세 이루어졌다.

도이치오토월드의 대표 장준호는 수원시자동차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분양가 14억 원을 10억 원에 분양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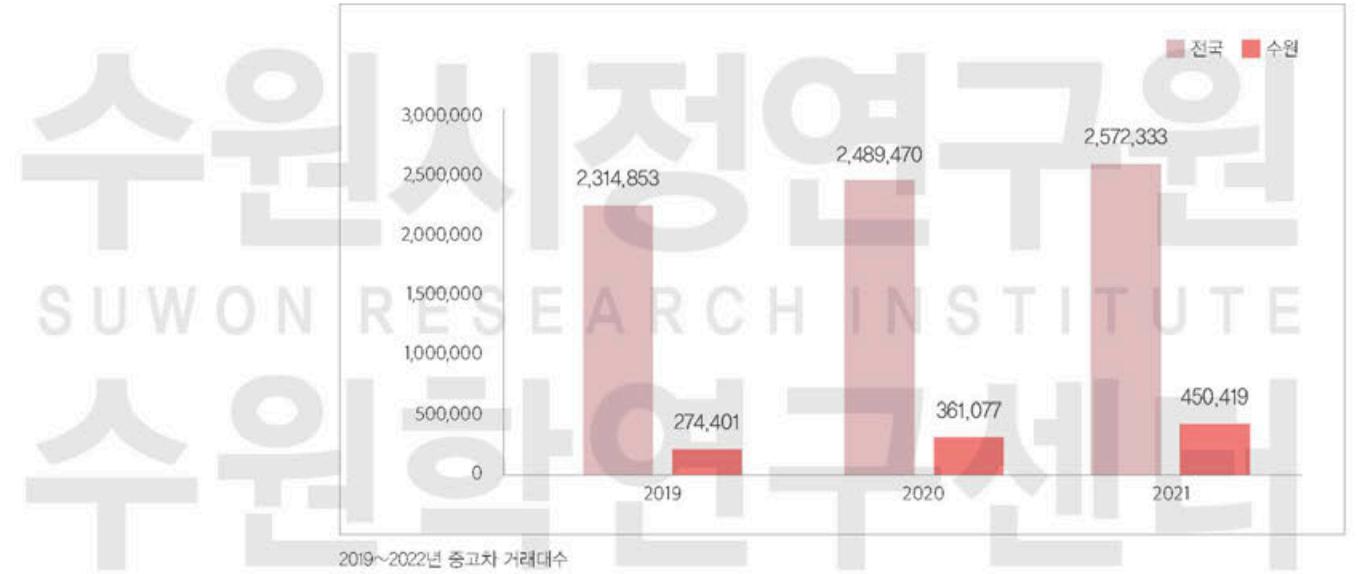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9억 원 이상을 은행권과 연결해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분양된 한 칸당 전시장에 자동차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조합원들의 요구인 80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 칸은 분양을, 한 칸은 임대를 하되 1억에 700만 원의 임대료를 3,000만 원에 월 50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 최종 240개 공간 중 100명의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총 200개의 공간을 수원시자동차협동조합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40개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다. 기존의 매매업체와 매매단지 운영 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 매매업체수보다 많은 공실률 우려를 잠재웠다.

현재 도이치오토월드의 매매상사는 99개이다. SKV는 93개 매매상사가 있다. 오토컬렉션 단지 40개와 그 외 기타 단지까지 합하면 총 298개의 매매상사가 수원 고색동에 있다. 초대형 매매단지가 초기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우려와 반대로 수원시 중고차매매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상반기 SKV1과 도이치오토월드가 차례로 개장하면서 6월 즈음 입주가 마무리될 무렵의 수원시 중고차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개장 전 1월 2만 599대에서 6월 3만 4,454대로 늘어난다. 그리고 3월은 중고차시장 성수기로 2021년 3월에 4만 2,109대를 판매하는 저력을 발휘한다. 2021년 총매도대수는 45만 419대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집계된 전국 사업자 거래대수인 257만 2,333대를 기준으로 보면 약 17.5%에 달한다.

표 3 2019~2022년 중고차 거래대수

구분	전국	수원
2019년	2,314,853	274,401
2020년	2,489,470	361,077
2021년	2,572,333	450,419

자료 : 전국-국토부 통계누리, 수원-경기도중고차 매매사업조합.



2019~2022년 중고차 거래대수

고색동에 일찍 들어선 경매단지는 초대형 매매단지가 가까운 거리에 개장하면서 입주한 상사 절반이 나가는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 타격마저 상쇄할 만큼 빠른 속도로 중고차매매단지가 성장하여 인근 도이치오토월드에 입주한 매매상들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경매단지 주차장을 다시 계약하게 되었다. 기존 가격이 3만~4만 원이었던 주차장비는 도이치오토월드의 주차장비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되려 7만 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초대형 매매단지가 들어선 후 수원의 중고차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자본이 투자된 공간 하나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순 없다. 매매단지라는 공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중고차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업체까지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도이치오월드 전경  
(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도이치오월드 표식(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도이치오월드 전시공간(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도이치오토월드 실내공간과 오피스(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도이치오토월드 주차공간(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화여고배



도이치오토월드 사진 촬영소



도이치오토월드 성능 검사소

## 5. 수원 중고차시장의 성장을 위한 노력

고색동 중고차매매단지는 초대형 매매단지가 들어오기 전부터 안정적으로 중고차시장이 형성된 지역이다. 1990년대에 세워진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 남수원자동차매매단지, 수원자동차경매단지,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가 차례로 들어서고 수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가 세워졌다.

박창준은 평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남수원자동차매매단지를 거쳐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로 옮겨 갔다. 2010년 무렵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가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중고차매매단지로서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가 채워지기까지 5년가량 걸렸고 월세는 26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IMF경제위기로 실직된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중고차매매시장으로 대거 흘러들어 오는 시기이기도 했다. 박석래는 8년 전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말한다.

**박석래** 중앙매매단지가 생길 때 여기가 처음에 (광택업체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가지고 이리 다 흡수가 된 거지.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지.

중고차매매상사가 갑자기 늘어나자 관련 업체 수요가 커지고 몇 년 안 돼 하나 둘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5~6년 전만 해도 괜찮았던 자동차 광택일도 3~4년 만에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는 수원 중고차매매단지를 한 차례 키운 기폭제였고 이후 초대형 매매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래서 박창준은 수원에 중고차매매단지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으로 상품화시설이 들어서기 용이한 곳이라는 점을 들었다. '비행기장 특수'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주변에 주거시설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 자동차 성능검사소 등을 세울 수 있었고 지금은 너무 많다고 했다.

**박창준** 먼 곳으로 가려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주위에 상품화 시설이 포진돼 있어서 아무래도 상품화 비용이 낮춰질 수 있죠. 또 딜러들이 선택의 기회도 좋고. 이런 규모의 부천이나 인천에 가면 성능업체가 단지 내에 한 두 곳 밖에 없어요. 결론은 득점이 되고.

중고차 관련 업체가 많아지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서비스 경쟁도 격화되었다. 자동차 광



차량 광택작업 중인 박석래

택업체 운영자인 박석래는 딜러들에게 차를 받으면 판금, 도장, 실내클리닝, 세차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상품화된 차를 전달한다. 하지만 서로 더 좋은 서비스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수원에 정착된 과정이 힘들다고 했다.

**박석래** 마무리는 다 사진 찍어서 갖다 줘야 돼. 엘카 사진. 가서 찍고 차를 주차장에다 넣어 주고 와야지. 차만 갖다 주면 찍는 사람이 다 있어요. 딜러가 예약하면은 예약시간 맞춰서 찍고 주차장까지 데리고. “작업이 내일 몇 시에 됩니까?” 그러면 내일 몇 시까지 되니까 저기 예약하세요. 그러면 그때 딱. 우리가 팩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팩스도 놓고 그랬잖아요. 등록증을 받아서 엘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엘카도 자기네들이 팩스 시설을 설치해 놓고 받아도 되거든. 그런데 안 해. 도이치 안에도 자체가 사진 찍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엘카만 그래. 엘카 사진만 등록증하고 성능기록부하고 갖다 줘야 돼. 그래야 사진 찍어 줘요. 도이치에서는 상사에서 돈 주는 거예요. 딜러가 돈 주는 게 아니고 대표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카에 올려야 차가 빨리 팔려. 도이치도 그 안에서 사진 찍는 거 다 사이트에 올라오는데 그래도 엘카 찍으려고 그러지 엘카는 보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카를 많이 찍는 거지. 서류 없이 가면 싸꾸며. 이거 작업하면은 매일 가요. 도이치도 갖다가 엘카도 갖다가.



박석래가 운영하는 차사랑광택타운공장



차사랑광택타운공장 내부

엔카광고지원센터와 도이치오토월드에서 상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손쉽게 찍고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게다가 매물을 보는 사이트인 엔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색동에 조성된다는 건 딜러들에게 큰 이득이다. 문제는 중고차를 보수하는 업체들의 서비스 경쟁으로 없던 사진 찍기 서비스가 생겨난 것이다.

**박석래** 그거 없었어. 그게 어느 A라는 사람이 자기 일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버릇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은 아파서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어. 병질에. 여기 병질이 머니까 여기서 갖다 주고 사진까지 다 찍어 줬어.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난 거야. 아니 알아서 지네들이 가져가면 사진 찍고 다했어.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갔고 다 해 줘야 돼. 내가 오래 했어도 처음에 그렇게 안 했어요. 일이 바빠서 죽겠는데 언제 사진 찍어서 이게 휴일이 끼잖아요. 빨간 글씨가 끼면 사진을 못 찍잖아요. 한 번 줄 서면은 그냥 1시간이여. 계속 순서대로 찍으니까 줄이 안 보인단니까. 그래서 일이 많은 집은 사진 찍는 달당이 있어. 그 사람은 사진만 찍어 주고 갖다 주고 배달하는 사람이야. 광택 집에 다 있어요. 그것은 다 서비스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뺏겨 버린단니까. 아이고.

매매상사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동차 상품화 관련 업체가 많아지고 경쟁의 격화로 업체들의 서비스도 향상되었다. 1990년대 중고차 거래가 '묻지 마' 거래였다면 완벽하진 않아도 현재는 중고차 성능점검제도가 있다. 2010년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사업자 거래의 경우 1개월 주행거리 2,000km 내 차량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하는 품질보증제도이다. SK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능기록부를 내야만 사진을 찍고 엔카 사이트에 매물을 올릴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딜러들은 바로 근거리에 있는 엔카 촬영장소인 광고지원센터를 이용한다. 수원의 엔카광고지원센터는 전국 최대 크기이다. 많은 매매상과 딜러는 인프라 밀집과 규모의 확장을 불러 왔다.

SKV1과 도이치오토월드가 들어서기 전부터 수원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에 속하였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품질보증제도가 2010년에 만들어졌다면 수원은 2008년에 권장 약관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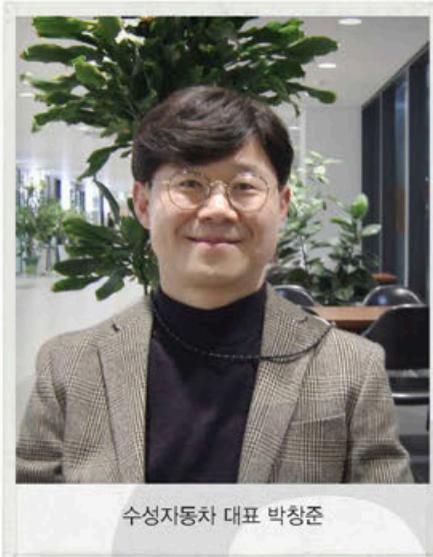
**박창준** 그전에는 중고차 품질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들 서로 자동차라는 게 여러 가지 공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고유무 내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차는 산 사람 책임인지 판 사람 책임인지 공정 차이에 의해서인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때 소비자 단체, 수원시 정비업자 성능점검업자요? 매매업자가 그때 권장약관을 만든 거거든요. 주로 핵심적인 업



엔카광고지원센터 차량 점검



엔카광고지원센터 차량 사진 촬영



수성자동차 대표 박창준

우리는 수원시 자동차관리협회 자동차매매업이 성숙 쪽에 만든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그걸 기반으로 지금은 품질보증제도가 있죠. 전국에서 최초로 수원에서 만들어서 한 거죠.

박창준은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커질수록 허위매물 민원 발생이 증가하면서 투명한 중고자동차시장으로 가기 위한 의식의 전환이라고 말하였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관련 수원시 권장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반대도 많고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지만 수원 중고차시장 전체가 깨끗해지면서 이렇게 커질 수 있었다고 대변에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2,200여 명의 종사원들에게 '전 사원증 바코드화'를 도입해 무등록자를 가려내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였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의 사무국장 김시장은 수원이 청정지역이라고 말할 만큼 허위매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20년 도이치오토월드와 SKV1이 들어선 후에 시장이 커지고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인천, 부천, 안산 등 인근 지역에서 많은 딜러들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유입된 사람들 중에 허위매물을 올리는 사람도 섞여들면서 한 차례 전쟁을 치르다시피 한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김시장** 우리는 누가 누군지 파악이 되는 보니까 수원을 연고지로 해서 일했던 친구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가지죠. 사원증이 없이 무자격자로 일을 하면 형사데요.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한 게 형식적으로라도 우리 상사에직원으로 사원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기는 사원이 우리 시장에 나온 가격이 있는데 이거보다 10원이라도 싸게 해서 내놓는 거는 우리는 허위매물로 보겠어. 이 행위를 한 딜러에 대해서는 한 번만 발각이 돼도 사원증을 박탈시키겠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공지를 했죠.

딜러는 사원증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 줬고 2021년도 하반기쯤에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2020년에 소비자 제보가 증가하고 애를 먹었지만 업계 시스템 자체가 사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계



박창준이 운영하는 수성자동차

수원시자동차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자동차연구원

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여 걸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수원의 상사들이 매매과정에 필요한 서류 일원화 운동이 현장에 잘 정착되면서 분쟁의 소지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매매계약서 양식과 구매자에게 전달할 서류의 통일은 기록 양식이 보편화되면서 각 상사들의 서비스 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낳았다.

이에 2020년 수원시청 자동차관리과에 들어온 민원이 800건을 약간 넘었다면 2021년 민원은 약 400건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도대수는 되려 5만 대가 증가하였다. 소비자 민원 비율이 신차가 약 0.6%인 데 반해 중고차시장임에도 수원이 0.5%도 안 되는 비율 달성은 큰 자부심이라고 말하였다.

매매상들의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매매에 용이한 최신식 인프라 확보와 입지적 유리함이 겹쳐지면서 수원 지역의 중고차매매단지 폭발하듯이 그 규모가 커졌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영세한 매매상사들의 유지가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딜러들에게 공간 임대료와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받았던 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부가세 포함 월 33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현대화 단지 입주로 인한 분양비, 월 임대료와 주차장 비용의 상승은 수익금을 악화시킨다. 게다가 매매상사들의 수는 매매단지 공간이 공급되면서 늘어났지만 이에 반해 딜러들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의 경

매업 진출과 정보 획득이 용이해지면서 딜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신화는 끝난 지 오래고 살아남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박창준은 과거 10명이 딜러를 시작하면 8명이 살아남았지만 현재는 10명 중 1~2명 정도가 겨우 살아남는 정도라고 한다. 이에 매매상사들은 딜러들이 쉽게 보고 배울 수 있고 자동차 관리가 용이하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점까지 갖춰진 현대화단지 입주가 절실해진다.

이에 고정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도이치오토월드와 SKV1에 입주한 상사들의 최소 고정비용은 2,000만 원에 달하고 월 판매량이 70~80대 정도 되어야 운영을 유지한다. 수원시 매매상들의 2021년 월평균 매매대수가 약 63대로 높은 실적임에도 고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정이다. 현대화단지가 조성되면서 수원 중고차매매단지에 더 많은 활기와 성장할 가능성 또한 올라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김시장은 수원의 중고자동차시장의 규모가 전국 거래건수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도시에서는 최대 크기이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치열하고 힘든 시장이라고 말하였다.

**김시장** 굉장히 빡빡하고 힘든 경쟁구조예요. 그래도 수원이 의사소하는 분위기여서 딜러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차가 많이 있으니 수원 안에서 알선을 많이 하고 회전율이 높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이너스 경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300개 중에서 1년에 10개 정도는 없어요. 다른 상사에 흡수 통합이 돼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근데 많이 부각이 안 돼요. 중고차 업계에서 10개 상사가 1년에 폐업해서 다른 상사에 흡수된다고 떠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구조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규모가 엄청난 매매상사가 한쪽 끝에 자리한다. 중고차를 인터넷으로 직영 판매하는 대기업 K카가 타 지역에서는 매매 1위라면 수원에서는 평균적으로 20위에 머문다. 10등 내로 들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상위 매매상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중고차유통기업으로 향하는 초입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대형자본과 비교해도 될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기도 하다. 김시장은 매매상사 300개 중에 10%인 30개 정도가 사실 수원의 중고자동차시장을 움직인다고 말한다. 나머지는 물론 타시지부에 가면 중간 이상 하는 상사들이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수원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치열한 경쟁이 기업 발전의 선순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불안정성이 커지면 다양성에서 독점으로 쪼그라들기도 한다. 이에 수원지부는 앞으로의 계획 중 하나로 매매상들의 고정비 지출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차장 비용을 낮출 뿐만



고색동과 평동 대형 중고자동차매매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수원시장과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회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자동차진단평가사 교육 및 자격 취득 협약



2023년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제24차 정기총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아니라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수원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한다. 사유지를 빌리되 주차장 시설을 직접 짓고 20년 후에 건물을 돌려주는 조건이다. 수원시와 성사될 시에 주차장비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책정될 수 있다. 아직 주차장이 아닌 민간기업 주차장이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인 상황에서 각 매매상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대기업 진출이 가시화된 상황에서의 준비라고 말하였다.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자동차가 중고차시장에 뛰어들면서 한 차례 중고차매매시장의 판이 크게 흔들릴 거라고 여긴다. 이에 관련 업체들의 강한 반발심이 팽배한 와중에 도이치오토월드에서는 이 기회를 잡아 성능점검의 높은 수준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도이치오토월드 지하에는 현재 세분화된 성능점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비싼 가격을 상쇄할 만큼 딜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대기업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수원의 중고차 매매상들은 대기업 진출을 크게 반대하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에서는 딜러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율과 그에 따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에서의 통일된 교육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획일화된 양식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

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판매 대기업, 플랫폼 기반 기업, 대규모 매매단지 운영 기업 틈바구니 안에서 고색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람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레몬시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고차시장이 성장통을 겪고 완속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수원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는 현장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고 김시창은 말하였다.

수원의 중고차매매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순 없다. 하지만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황금기를 맞이한 건 틀림없다. 대기업 진출과 경기침체가 올 거라는 적색경보가 울리는 와중에 고색동 중고차매매단지 사람들은 큰 파고를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 궁극해진다.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고색동과 평동 일대의  
대형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경관  
(김승일 제공)



# SRI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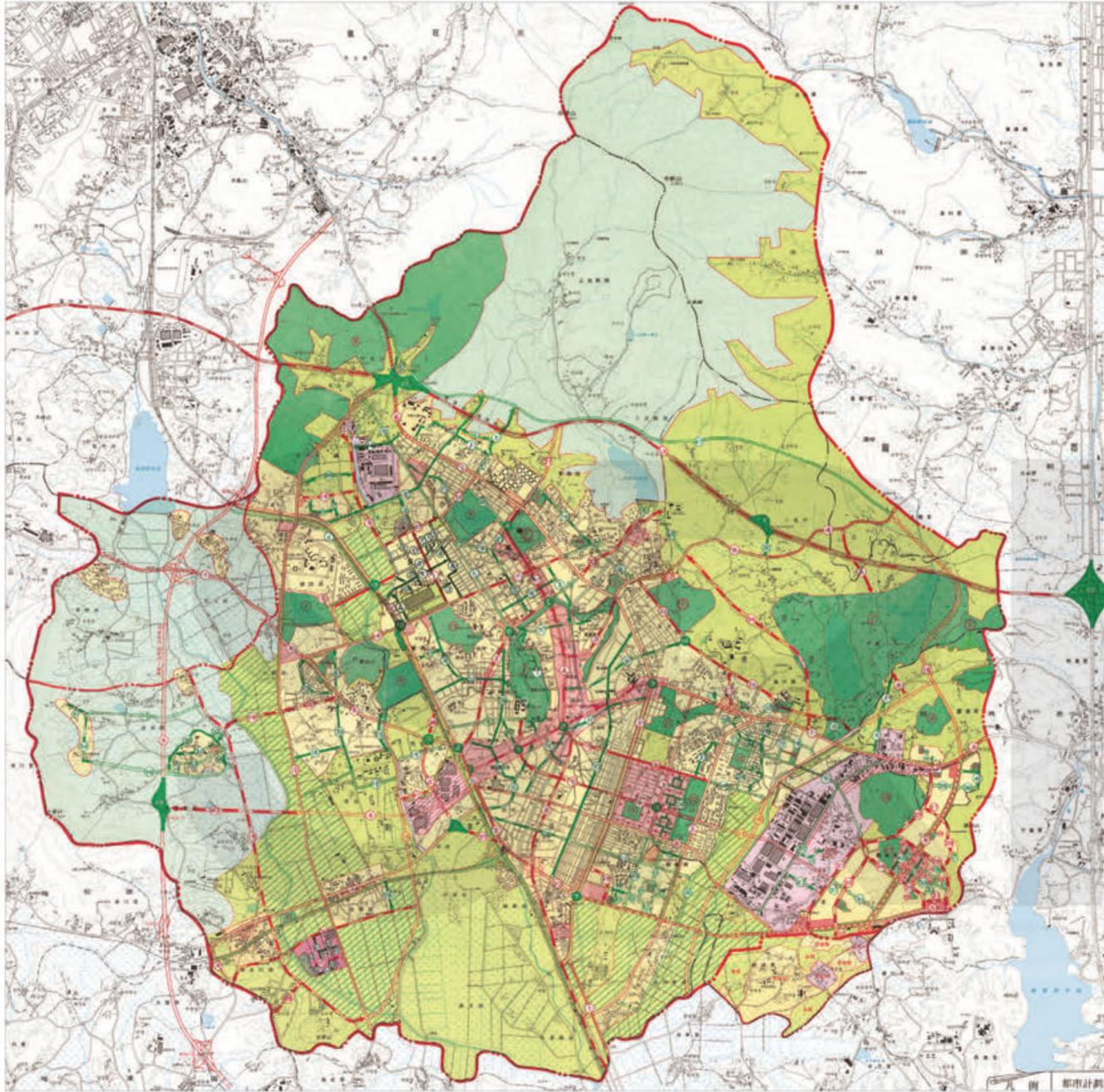
### 수원

### 1. 첨단산업단지 수원델타플렉스의 조성

고색동에 위치한 수원델타플렉스(Delta PLEX)는 현재 수원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수원시는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시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되어 있는 고색동을 비롯한 수원의 서남부 지역에 신규 공업지역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수원시에 흩어져서 위치한 소규모 공업지역을 도시 외곽지역에 한데 모아서 재배치하겠다는 취지의 도시계획이었다. 경기도 고시 제 1996-253호에 따르면, 고색동 신규 공업지역은 무공해 도시형 공업 및 고부가가치 공업의 대량유지로 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1996년에는 고색동과 오목천동의 생산녹지지역 약 29만㎡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

고색동에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고색동 주민들은 주로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고 한다.

**심재현** 공업단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산업단지, 수원델타플렉스 이렇게 이름을 좋게 써 놓았는데 (중략) 그래서 저 밑에다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었는데 산업단지가 그 당시 공업단지가 들어오면 거기를 높이기까 지형상 우리가 지역에서 봤을 때 자연적인 재해의 확률이 높다. 그쪽이 장마 때 이제 저수지 역할을 해줬는데 거기를 올리게 되면 수해 확률이 높고 (중략) 우



고색동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도(경기도 고시 제1996-253호, 1996.9.23.)  
 본 계획은 수원 내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서수원권에서 추진된 고색 공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변경된 계획이다.  
 이에 고색동과 오목천동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29만㎡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무공해 도시형 공업 및 고부  
 가가치 공업의 대량유치로 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리 생활권에 침해를 받고 농업에 어떤 저기(피해)가 한쪽에 귀퉁이에 들어오는 건 반대한다. 이래가지  
 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반대한다고 수원시에 성명 비슷하게 수원시에 전달을 했죠.

앞의 구술을 통해 고색동 주민들이 공업단지 조성에 반대했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  
 다. 고색동 일대는 넓은 농지가 펼쳐져 있고,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과 깊은 관  
 련을 맺고 살아왔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 연구시설 등이 인  
 접해 있어, 한국 농업의 중심지로서 자부심이 강한 곳이었다. 특히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  
 며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고색동의 평야와 농사를 짓는 행위는 마을과 자  
 신들의 삶을 근간이자 정체성의 뿌리였다. 이 때문에 마을에 공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고색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  
 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1994년 처음 계획 당시에는 ‘공업단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도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재현** 그런데 이제 지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찬성하시는 입장도 있었던 게 그때는 땅값이 싸니까 그  
 거 들어와서 땅값이 오르고 이걸 수용하면은 지주 분들을 메정부지에 당시에 땅값이 싹트니까 실질적으로  
 94년도 95년도에 5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댔으니까 (중략)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들은 반  
 대를 했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건 거라도  
 들어와야지 뭐 지역 저기 발전이 되지 않냐 그리고 지주 분들이 보상 기대심리 그런 게 좀 있었고.

하지만 고색동 주민 모두가 개발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심재현은 땅을 많이 소유하  
 고 있던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구술  
 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15년째 수원텔타플렉스에 입주에 있는 기업의 대표이자 관리단 이사장  
 직을 겸임하고 있는 서진천<sup>2</sup> 대표의 구술을 통해 수원텔타플렉스 조성 배경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서진천** 어떻게 보면 수원이라는 데 명실상부하게 가장 말 그대로 첨단화시켜야 되고 단지화시켜야 되  
 는 곳이 처음으로 발족된 곳이잖아요. 수원에서 산업단지가 처음으로 발족된 곳이 여기죠. 없잖아. (중략)  
 출범할 때가 수원은 애초에 계획화된 산업단지들 형성하자 해서 만든 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수원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산업 발전 먹거리가 많아져서 주민들도 윤택해지고 세수도 늘어나고  
 기업이 활성화돼야지 뭐가 아웃풋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중략) 벤처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



2003년 1단지 조성 초기



2004년



2006년 1단지 준공 시기



2007년 1단지 준공 이후



2008년 2단지 조성 초기



2009년 2단지 준공 시기



2012년 3단지 조성 초기



2013년



2014년



2016년 3단지 준공 시기



2018년 3단지 준공 이후



2020년





2003년 수원지방산업단지 기공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03년  
5월 29일



수원지방산업단지  
기공식

2007년  
10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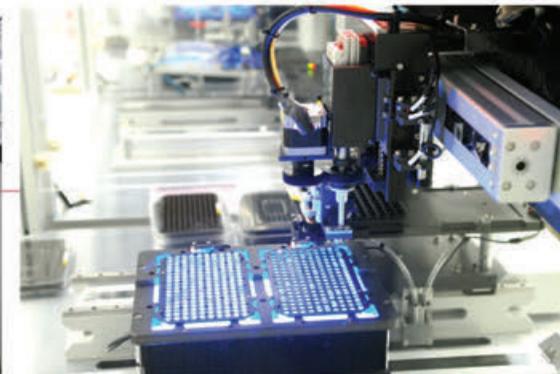
수원산업단지  
1단지 준공

2008년  
4월 11일



수원첨단벤처밸리  
준공식

2009년  
2월 18일



해성옵틱스  
방문

2010년  
4월 13일



아빅스코리아  
방문

2010년  
8월 17일



수원산업단지(3단지)  
공사현장 방문

2010년  
9월 7일



갤럭시아  
디바이스 준공식

2017년  
3월 23일



수원산업단지  
관리공단 출범식

문에 여러 가지 수원시나 정부에서 컨디션을 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있죠. 그리고 특수기업들이 많이 있고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아시다시피 금속 산업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예 입주할 못하게 돼 있죠. 그리고 첨단산업들만 되게 되어 있지.

위의 구슬을 통해 보면, 수원시의 세수 확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을 수원에 유치하고자 했던 것이 수원델타플렉스 조성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까지 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적 기반은 매탄동에 위치한 삼성전자였지만, 생산 라인이 다른 지역에 빠져나감으로써 수원시는 다른 산업적 활로를 개척해야 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개발과 실리를 같이하던 일부 주민들과 지주들의 입장, 수원시의 도심 내 무작위로 흩어진 공업시설 및 산업시설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도시정비의 필요성 그리고 수원시의 세수 확보와 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고자 공업단지 조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원델타플렉스의 조성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단지를 순차적으로 조성 및 확장해 갔는데, 첫 출발은 정부가 제시한 도시계획에 따라 수원지방산업단지<sup>3</sup> 조성사업이 시행된 2003년이였다. 1단계는 28만 7,246㎡<sup>4</sup> 규모로 2006년 7월에 준공하였다. 이어 2단계는 고색동 987-1번지에 12만 2,855㎡의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조성사업은 2007년에 시작되어 2009년 2월에 준공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고색동 645번지 일원에 84만 7,409㎡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조성사업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6년 6월에 준공하였다. 2003년 1단계 조성부터 3단계 준공까지 총 13년이 소요되었고 6,04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2016년 수원 최대의 산업단지인 델타플렉스가 탄생하게 되었다.

## 2. 수원델타플렉스의 현주소 : 업체 현황과 수원델타플렉스 안의 여러 공간

수원델타플렉스는 고색동의 남쪽 일대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의 면적은 약 125만 7,000㎡이며 평수로는 약 38만 평 정도이고 축구장으로는 176개 면적이다. 이는 고색동 전체 면적의 약 27% 정도를 차지하는 크기이다. 그 중 1~2단계는 서쪽으로 황구지천과 인접해 있고, 3단계는 동쪽으로는 수원비행장과 인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고색동의 거주지가 자리하고, 3단계에서 북쪽으로 주택가를 가로질러 약 450m(고색역과 수원델타플렉스 3단계 경계 사이의 최단 직선거리 기준) 거리에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색역이 위치해 있다.

### 1) 수원델타플렉스의 입주업체

수원델타플렉스는 조성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순차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공간적으로도 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입주한 업체는 총 700개 이상이며 종사자수는 2만여 명이다. 입주한 업체들은 전자, 기계, 전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고도의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체부터 마스크나 욕실용품 등 일상적으로 친숙한 생활용품을 다루는 업체까지 다양하다.<sup>5</sup>

표 1 수원델타플렉스 일반 현황

구분	1단지	2단지	3단지
위치	고색 917번지 일원	고색 987-1번지	고색 645번지 일원
사업기간	2004~2006	2007~2008	2008~2016
면적(㎡)	287,246	122,855	847,409
총사업비(억원)	599	435	5,015
평당 분양가(만원)	108	183	255
준공일	2006년 7월 25일	2009년 2월 4일	2016년 6월

자료 :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홈페이지(www.swicm.or.kr)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조성된 1단지의 경우 개별공장들이 입주한 구역과 아파트형 공장들이 밀집한 지식산업센터로 나뉜다. 개별공장 구역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제조업체들로 대부분 전자, 전기, 기계 관련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제조업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2단계는 단지 중 면적이 제일 작아 하나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단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하이테크 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1단지와 다른 점은 대체 에너지 산업을 장려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열 발전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조성되었으며 1단지와 2단지를 합친 면적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를 가진 3단계는 1단지와 같이 개별공장 지역과 지식산업센터로 나뉜다. 전자·전기 등의 제조업체들뿐만 아니라 의료용 물질과 의료 기기, 섬유 등 다양한 형태의 제조업체들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신, 기록매체 복제 등 지식산업 관련 업체들이 입주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면적은 125만 7,510㎡이며, 1단지 28만 7,246㎡, 2단지 12만 2,855㎡, 3단지 84만 7,409㎡로 3단계이 전체면적의 67.39%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델타플렉스 시설 현황을 보면 산업시설(63.8%), 공공시설





(22.8%), 녹지(9.4%), 지원시설(4.0%)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델타플렉스의 전체 입주업체는 704개이며, 자가 466개(66.19%), 임대 238개(33.81%)가 입주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수원델타플렉스 시설 현황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 (공장)	지원시설 (근생, 물류)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계	면적	1,257,510	801,802	50,439	286,677.1	18,592
	구성비	100.0	63.8	4.0	22.8	9.4
1단지	면적	287,246	153,872	14,788	62,574	56,012
	구성비	100.0	53.6	5.1	21.8	19.5
2단지	면적	122,855	70,534	682	25,096	26,543
	구성비	100.0	57.4	0.6	20.4	21.6
3단지	면적	847,409	577,396	34,969	199,007	36,037
	구성비	100.0	68.1	4.1	23.5	4.3

출처 : 김숙희·이종훈, 2019, 「고색역 개통 전후 수원델타플렉스 교통문제 분석과 대책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쪽.

표 3 수원델타플렉스 분양 및 입주 현황

구분	계	1단지	2단지	3단지	
계(㎡)	852,241	168,666	71,216	612,365	
면적(㎡)	801,802	153,872	70,534	577,396	
산업시설구역	필지수	201	48	29	124
	분양	201	48	29	124
	분양률(%)	100	100	100	100
	계	704	355	49	300
입주업체수	자가	466	230	29	207
	임대	238	125	20	93
비고	-	지식산업센터 2개소 포함	-	지식산업센터 1개소 포함	

출처 : 김숙희·이종훈, 2019, 「고색역 개통 전후 수원델타플렉스 교통문제 분석과 대책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쪽.

수원델타플렉스 입주업체수를 살펴보면 1단지 355개(50.43%), 2단지 49개(6.96%), 3단지 300개(42.61%)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경우 각 1단지와 3단에 위치한 지식산업 센터에 모두 입주해 있다. 수원델타플렉스 종업원수를 살펴보면 1단지 4,498명(31.48%), 2단지 1,052명(7.36%), 3단지 8,738명(61.16%)으로 나타났다.



수원델타플렉스 1~2단지(김승일 제공)



수원델타플렉스 3단지(김승일 제공)

표 4 수원델타플렉스 입주업체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1단지		2단지		3단지		
		소계	개별공장	지식산업센터	개별공장	소계	개별공장	지식산업센터
계	704	355	121	234	49	300	27	93
제조업	610	286	121	165	49	275	207	68
비제조업	94	69	-	69	-	25	-	25

출처: 김숙희·이중훈, 2019, 「고색역 개동 전후 수원델타플렉스 교통문제 분석과 대책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1쪽.

표 5 수원델타플렉스 입주업체 종업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단지		2단지		3단지		
		소계	개별공장	지식산업센터	개별공장	소계	개별공장	지식산업센터
계	14,288	4,498	3,176	1,322	1,052	8,738	8,209	529
제조업	13,761	4,066	3,176	890	1,052	8,643	8,209	434
비제조업	527	432	-	432	-	95	-	95

출처: 김숙희·이중훈, 2019, 「고색역 개동 전후 수원델타플렉스 교통문제 분석과 대책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1쪽.

수원델타플렉스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1단지에 2곳, 3단지에 1곳에 위치해 있다. 1단지에 위치한 수원첨단벤처벨리와 수원휴먼스카이벨리는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규모이며, 3단지의 수원벤처벨리는 지하 2층, 지상 8층의 규모이다. 2단지는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1단지의 수원첨단벤처벨리, 수원휴먼스카이벨리와 인접한 입지이다.

표 6 수원델타플렉스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황

구분	수원첨단벤처벨리	수원휴먼스카이벨리	수원벤처벨리
소재지	고색동 958(1단지)	고색동 959(1단지)	고색동 1152(3단지)
부지면적	7,477.00㎡	7,468.60㎡	13,278㎡
건축연면적	40,616㎡ (지하 1층, 지상 10층)	41,645㎡ (지하 1층, 지상 10층)	84,831㎡ (지하 2층, 지상 8층)
준공일	2008. 04. 02.	2010. 0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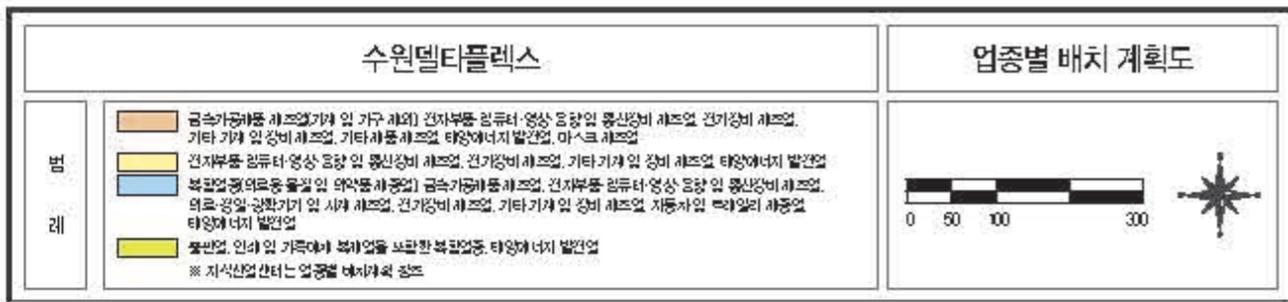
출처: 김숙희·이중훈, 2019, 「고색역 개동 전후 수원델타플렉스 교통문제 분석과 대책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4쪽.



수원첨단벤처벨리(김승일 제공)



수원벤처벨리(김승일 제공)



수원델타플렉스 업종별 배치계획도

표 7 수원델타플렉스 1-2단지 업종 현황

단지	업종	단지	업종
개발 공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단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단지	마스크 제조업	2단지	연구개발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기장비 제조업
지식 산업 센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단지	태양에너지 발전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출산업		태양에너지 발전업

표 8 수원델타플렉스 3단지 업종 현황

단지	업종	단지	업종
개발 공장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단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차금속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단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단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출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식 산업 센터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3단지	가구 제조업
	이복, 이복 액세스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전기통신업

출처 :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홈페이지(www.swdcm.or.kr)

## 2) 업체 세부사례 : 프리시스와 삼정솔루션

수원델타플렉스에 입주한 업체와 기업들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하이테크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원델타플렉스의 조성 기획단계에서부터 첨단산업 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악취나 오염을 초래하는 산업은 입주를 엄격히 금지하였기 때문이다.<sup>6</sup> 개별 입주기업들을 보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주목받고 있는 삼성의 폴더블폰의 핵심부품인 고성능 폴딩용 시능설 필름을 제조하는 세경하이테크, 전기차 충전기 및 전장품,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원익피앤이 등 이른바 4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미래를 주도할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수원델타플렉스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기업의 입주와 성장 과정을 통해 수원델타플렉스 입주업체들의 현황과 산업 클러스터로서 수원델타플렉스의 장점들을 세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기업은 현재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서진천 대표가 경영하고 있는 프리시스이다. 프리시스는 1997년 설립된 회사로 원래 수원시 원천동에 위치에 있다가 수원델타플렉스 1단지가 조성된 직후 이곳에 입주하여 수원델타플렉스 산업

황구지천 옆에 위치한 프리시스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프리시스 사옥 전경(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단지과 그 역사를 같이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리시스는 진공밸브 전문 제조사로, 반도체 제조나 우주산업에 필요한 진공 시스템 유지를 위한 첨단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다. 서진천 대표에 따르면, 진공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제일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대만, 일본의 굴지의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프리시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수원델타플렉스에 입주하게 되었을까? 업체들이 수원델타플렉스에 입주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개별 분양으로 입주업체가 필요한 부지를 분양받은 후 필요에 맞게 업체의 사옥과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수원델타플렉스 전경에 보이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개별 분양을 통해 입주한 업체이다.

*서진천* 일단 개별 분양이라고 그러죠. 개별 부지 분양으로 이렇게 딱딱 블록을 잘라서 분양을 한 데가 있고 지금 저기 보시면 델타원이나 그리고 벤처밸리 완투가 있습니다. (중략) 그 자리는 말 그대로 지식산업



2012년 수원시의 수원산업단지 분양업체 설명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센터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작은 업체들이 창업하는 업체들이 또 같이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 200개 300개 기업, 10개 20개 기업들이 막 같이 들어오죠.

프리스리스도 이러한 개별 분양방식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개별 분양방식으로 수원델타플렉스에 입주한 업체의 경우는 입주 초기에 기업이 토지분양비용, 건축비용, 시설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입주한 후에는 확장 이전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전에 대한 염려는 없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공간을 점유할 수 있다.

**서진천** 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R&D도 하고 창업할 때 인원이 소수 인원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진짜 이제 R&D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성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지. 장소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시스템 구축도 돼야 돼. 장소도 더 넓은 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생태적인 어떤 논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더 규모 큰 내 회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 열 몇 명에서 창업했다면 지금 벌써 한 450명이 됐는데 그만큼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곳이 이제 우리 산업단지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수원에는 이런 개별 단지 구역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니까.



수원시 부시장에게 프리시스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서진천 대표(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프리스리스 제품 갤러리(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프릭시스 제품 설명(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서진천 대표의 구술에서 왜 수원델타플렉스에 입주하는지에 대한 업체들의 시각과 입장을 알 수 있었다. 수원델타플렉스 입주의 주요한 동기는 바로 업체의 성장, 특히 규모의 성장이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작은 규모로 창업을 하게 된다. 그러다 매출과 거래처가 늘면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직원이 늘어나고, 별도의 개발시설이나 연구소가 필요해진다. 또한 제조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생산 물건을 보관할 물류창고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확충하려면 당연히 물리적인 공간이 더 필요해진다. 사례 기업들도 적은 규모로 창업했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부분이 수원델타플렉스의 입주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서진천** 이렇게 개별분양이 돼 있는 업체들은 자체 연구소와 R&D와 생산과 그리고 모든 구매 행위나 입출 행위를 다 여기서 컨스텀으로 하는 데는 개별분양을 받죠.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 개별분양을 통해서 입주하게 되면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분양을 통해서 확보하고, 또 분양받은 부지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형태로 시설을 조성할 수 있

기 때문에 입주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별 분양을 통해서 수원델타플렉스에 입주한 업체는 분양 시점부터 단지 내 자체 시설에서 연구·개발부터 생산·출하까지의 전 과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 입주한 경우가 많았다.<sup>7</sup>

**서진천** 사용처들이 삼성이 특수한 반도체 분야를 개발하고 특수한 아이টে를 쓰게 되니 가장 연고가 깊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경기도 이천이지만 여기서 한 50분 거리고. 그 역시 이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첨단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그래서 여기에서 윽하게 된 거죠. (중략) 인프라에선 그런 교류라든가. 그리고 기업체 간에 동종 업종 간에 꼭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업종 간의 또 여러 가지 시너지 이전 시너지도 생기죠. 분명히 생기고 정보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어요.

한편, 수원델타플렉스가 업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이점은 수원델타플렉스가 산업클러스터라는 점이다. 클러스터 개념을 처음 도입한 포터(M. Porter)의 정의에 따르면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분야의 상호 연관된 기업들과 기관들의 지리적 집적체이다. 산업클러스터의 구성요소는 일군의 연계된 기업들과 함께 부품, 기계, 서비스, 인프라 공급자들, 그리고 정부 부문과 대학, 연구소, 교육 훈련기관 등의 기관 및 제도적 환경을 포함한다. 즉, 클러스터는 특정 혹은 연관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관련 활동들의 집적지로서 이들 간의 분업과 연계가 고도화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sup>8</sup>

이러한 정의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수원델타플렉스는 산업클러스터로 상당히 적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경기도청 소재지이고 법원과 경찰청 등도 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본사가 위치하고, 대학으로는 경기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이 설립되어 있다. 또한 영통구 이의동에는 2000년대 초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첨단산업단지 광교테크노벨리가 있다. 광교테크노벨리에는 대학연구소, 국내 첨단산업기업,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나노소자특화팩센터 등이 위치해 있다. 이런 조건에서 고색동 수원델타플렉스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빠른 행정 접근성, 생산까지 가능한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수원시라는 거대한 산업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수원델타플렉스 입주를 결정할 때 수원시가 산업클러스터 집적체의 조건에 잘 맞는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업체는 최준화 대표가 이끄는 삼정솔루션이다. 삼정솔루션은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의 기업이다. 드론이 점차 산업과 군사용으로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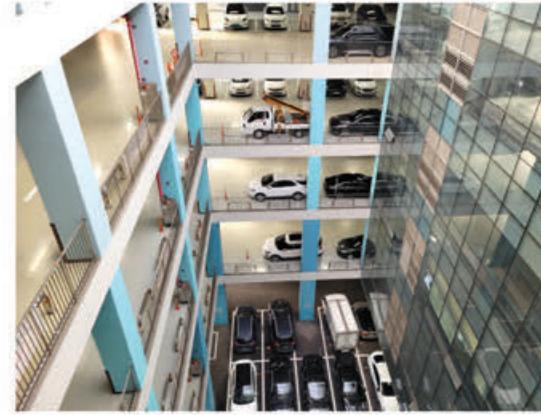


삼성솔루션이 입주해 있는 수원벤처밸리 전경

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나 일상 안전의 잠정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데, 유사시 드론을 방어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국내외적으로 삼성솔루션은 안티드론 관련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중이며, 한국군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각국에도 진출하고 있다.

삼성솔루션은 3단지가 조성된 이후 수원시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우수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어 3단지에 위치한 수원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이다. 프리시스가 수원델타플렉스 내 개별업체 지역에 입주한 업체의 특성을 보여 주었다면, 삼성솔루션을 통해서도 아파트형 산업단지 형태인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사정들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스타트업 기업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수원시의 별도 선별과정을 통해서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수원벤처밸리나 수원첨단벤처밸리에 일정 기간 입차형식으로 입주할 수 있다.

**최준화** 수원시에서 4차 산업에 관련된 선도 기업 그룹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이런 지원 제도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이제 제안을 해서 선정돼서 저도 이제 선정 평가가 좀 많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서로 심사 사전 심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면평가가 따로 있었고 대면평가도 우리가 이제 PPT 대면



수원벤처밸리 내부 시설



삼성솔루션 생산 제품

평가 발표를 좀 했었고요. 평가위원들도 많이 오셔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단계 거쳐서 기업 선정 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수원시청 기업지원센터의 선발을 통해서 벤처밸리에 입주한 업체의 경우는 입주 초기 비용 및 임차 유지비용은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당장의 회사 자금은 충분하지 않아도 아이디어나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원델타플렉스 벤처밸리의 입주가 회사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삼성솔루션은 입주기간에 몇 배의 매출 및 인적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입주기업은 공간을 임차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된 임차기간 후에는 이전을 해야 하고, 이전 후에는 수원벤처밸리에 임차하던 기간에 받았던 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전 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원벤처밸리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대비용의 측면에서 수원델타플렉스 수원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은 다른 일반 임

대를 통해 사업장을 구하는 경우보다 이점이 확실히 크다. 또한 기업지원센터는 공용공간으로 회의실이나 미팅룸 등을 제공하고 3D프린터, 3D스캐너, 진공성형기, 레이저커팅기 등 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갖추기 힘든 장비들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벤처기업은 수원델타플렉스 벤처밸리 입주를 통해 임대비와 같은 고정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연구개발, 직원 고용, 필요 공간 확보 등에 추가로 활용되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종화** 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보증금이 없다는 게 제일 크죠. 시설에 대한 보증금이 없고 정기적으로 이 제 나가는 주차비 같은 것도 지금 절감했고 그다음에 평당 관리 비용이 좀 저렴했던 어떤 R&D 또는 이 제 고용 창출에 제우에 전념하는 데 좀 기회가 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삼성솔루션 홈페이지

### 3) 수원델타플렉스의 공간구조 : 교통, 주차공간, 문화복지공간

수원델타플렉스 내부의 도로망은 주로 반듯반듯한 네모형태의 전형적인 계획형 도로 형태를 가진다. 수원델타플렉스의 도로 중 넓은 도로는 1~2단지와 3단지를 세로로 나누며 가로지르는 서부로, 수원델타플렉스단지 가로로 중간을 가로지르는 산업로이다. 그리고 2차선에서 4차선 정도의 비교적 좁은 도로들이 작은 구획들을 나누며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다. 단지 내부를 차량으로 돌아다녀 보면 도로망이 이동에 상당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는 잘 만들어져 있는 데 비해 주차공간은 전체적으로 부족해 보였다.<sup>8</sup> 차량으로 돌아다녀 보면 내부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거의 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2022년 수원텔타플렉스 전경(김승일 제공)





수원델타플렉스 공영주차장(카카오맵 제공)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노상에 주차된 차량



수원델타플렉스 공영주차장



수원델타플렉스 노상, 임시주차장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이 주차구역에 빈자리는 찾기가 힘들었다. 단지 내 공영주차장도 대부분이 만차 상태였다.

**서진천** 왜 요즘 차들 안 갖고 다니는 직원들이 별로 없죠. 어쩔 수 없이 주차문제가 제일 화두로 여기 시급한 문제예요. (중략) 앞으로 직원들이 만약에 100명, 200명, 300명을 더 받고 싶어도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한계선에 정착된 거예요. 뭐 자리도 없는데, 직원들이 그걸 불편해 하거든요.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원델타플렉스의 입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뽑힌다. 수원델타플렉스가 위치한 서수원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한 지역이다. 물론 지하철역 고색역이 있긴 하지만 고색역에서 산업로와 서부로가 만나는 중간지점까지는 도보로 이동하면 2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라서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다소 부담될 만한 거리였다.<sup>10</sup> 또한 고색역에서 단지를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도 환승을 거쳐야 하는 코스가 많아서 불편하였다. 이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서수원 외부에서 수원델타플렉스로 출퇴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들로 수원델타플렉스의 경우는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주차공간 부족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주차공간의 문제는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서진천 대표도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단지과 입주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원델타플렉스 내에는 문화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상당수 위치하고 있다. 시설에 따라서 자체 품질의 차이가 있었지만 어린이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이용객이 적은 형편이다. 단지 내에 공원이라는 정식명칭이 붙은 경우는 다섯 곳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황구지천을 따라서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고 그 외에도 서부로 양옆의 인도를 따라서 녹지가 길게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에는 이용객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었고, 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눈에 띄었다. 조사시점에는 수변공원이 이용객이 가장 많았다. 다만 조사시점이 코로나 상황이다 11월 초겨울이라서 추운 날씨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에서도 일부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특히 단지 내 위치한 공원 중 눈에 띄는 공원은 중보들공원이었다. 중보들공원의 경우는 가장 긴 면을 기준으로 길이가 1.2km가 되고, 넓이는 약 13만<sup>2</sup>㎡(약 4만 평)가 되는 큰 공원이다. 그리고 고색동의 주거주지에서 길 하나를 건너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조사자들은



배다리공원(김승일 제공)

## SUWON RESEARCH INSTITUTE



중보들공원(김승일 제공)

수원델타플렉스 공원시설



수원  
SUWON  
수원학연구센터

수원델타플렉스 운동시설



정현중보물테니스센터

수원델타플렉스 1단지 내 인조잔디축구장



폐수처리장을 개조하여 만든 고색뉴지엄



2018년 고색뉴지엄 특별기획전(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22년 고색뉴지엄 전시



수원델타플렉스 일대 공원

몇 차례에 걸쳐 차로 공원 앞 도로를 이동하면서 공원의 외부를 관찰해 보았다. 한 마디로 외부에서 본 공원의 인상은 1km 이상 비슷한 나무들이 계속 보이는 단조로운 풍경과 스산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 공원은 나무로 거의 가려져 산책이 가능한 공원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무만 심어져 있는 녹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수원델타플렉스와 고색동 주거지를 나누는 역할을 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도보로 공원을 둘러보았을 때에도 공원은 나무가 심어진 것 이외에 어떤

벤치와 같은 시설물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또한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가 있지만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만나본 상당수의 수원델타플렉스 관계자들은 단지 내 공원의 규모는 크지만 형식적으로 조성한 느낌이 강하고 산책이나 휴식 등의 공원이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기에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토로하였다.

단지 내 문화시설은 고색뉴지움과 고색향토문화전시관이 있다. 조사자가 방문한 당시에 문화시설의 경우 내부에 관람객은 없었다. 근무 중인 관리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코로나의 여파로 휴관 및 입장객의 급감이 있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고색향토문화전시관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경우 연 3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었다고 한다. 고색뉴지움 관리자의 설명에 따르면 방문객은 주로 동네 주민, 수변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었고, 수원델타플렉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일부 방문하였다고 한다. 특히 한번 방문한 관람객들의 재방문 비율이 높다고 한다. 조사자가 고색뉴지움을 둘러보았을 때에도 전시공간이 상당히 넓고 흥미로운 전시물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느껴져서 재방문하는 관람객이 많다는 설명이 충분히 납득되었다. 다만 단지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부족하고 교통이 좋지 못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

며, 이러한 낮은 이용률 때문에 실제로 상당수의 업체 관계자들과 고색동 주민들은 문화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이런 시설들이 잘 활용된다면 수원델타플렉스와 고색동 주민들이 관계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3. 수원델타플렉스의 풀어야 할 문제와 여러 가능성

수원시 산업의 근간이자 주요 세수원이었던 삼성전자의 생산라인이 1990년대부터 2010년 중반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수원델타플렉스는 이를 대체하는 수원의 산업 중심지가 되었다. 즉, 수원델타플렉스의 미래 전망이 수원 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는데, 이러한 입장 차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수원비행장 이전 여부와 이후의 활용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실재현** 저게 비행장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볼 때 아파트는 1순위예요. 비행장 땅에 지금 고도도 안에 딱 거기 비행기 길이 걸렸거든. 그래서 아파트 층이 5층 이상 못 올라가요. 저 비행장이 만약에 화성으로 가게 되면 서수원 지역이 천지개벽 되겠죠. 비행장 포함해서 확 바뀌기 때문에 다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기 그냥 옛 추억이지. 여기 고색동에 대한 정서 이런 걸 역사 속에 저기 없애지는 거죠. 지금 시대 흐름이 그래요. 11

위의 구술을 통해 보면, 고색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비행장 이전 시 아파트 고도 제한과 부지활용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개발이익을 노릴 수 있는 아파트 개발 유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준화** 우리 여기 입주사 중에는 이제 드론 스킨도 좀 전에 보셨지만 경기도하고 서울시 인근에서는 가장 큰 국토부 지정 공식 교육기관이예요. 그런데 (중략) 우리 관내에 경기도 서울 관내에서 제일 큰 드론 스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걸 활성화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냐? 여기가 아시다시피 항공지역이잖아요. 150m라 그정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못 날려요. 또 거기에 못 날리게 또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어떤 이 산업단지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어요. 드론은 AI, ICT 등





첨단 R&D  
IT · BT · NT · ET  
TECHNOLOGY



친환경 생태  
배후주거단지  
ECO



생활친화적  
여가 · 문화공간  
CULTURE



수원군공항 부지 활용계획(안)

합기술의 집합체예요. 앞으로는 항공산업을 기반할 수 있는 기초 기술산업이라고요. (중략) 어느 순간에 이 제 공군에서 이런 통제를 계속하면서 드론에 대한 교육 활동을 통제를 받는 상황이 됐죠. 이 통제 받는다는 거는 거꾸로 이 기업지원센터가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의 산업시설로, 그리고 여기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이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의 산업을 묶어 놨다는 얘기거든요.

**서진천** 수원이 지금 가난해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가난해요. 화성이나 용인보다 최고로 가난한 데가 수원이에요. 수원에 자원이 없어요. 그만큼 산업체가 응집될 수 있는 영역이 없었어요. (중략) 산업체의 형성 벨트를 꾸준히 넓혀 나가 줘야 되거든. 사실 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많이 시키고 그리고 수원에 많은 그 일거리 창출도 시키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웃풋도 내고. 그러면 수원 씨가 더 윤택해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중략) 저는 주민들한테 몇몇 어떤 포심에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은 미래 지향적인 먹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대야지 광고 이상의 판교 이상의 좋은 인프라를 수원에서 구축할 수 있는데 그걸 이미 더 이상하게 지금 다 다른 패턴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고. 마지막에 이제 보수가 이 자리. 이제 서수원이.

수원델타플렉스 입주업체의 대표들도 비행장 이전과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하지만 주택 개발보다는 산업 관련 규제 완화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앞으로 생길 서수원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민들과 업체 간의 입장 차는 양측의 더 많은 대화와 지자체의 중재를 통해 신중한



2016년 수원산업단지 기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8년 수원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식(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17년 수원산업단지 일자리박람회(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협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색동 주민들은 수원시에 수원델타플렉스의 일자리를 주민들에게 연결하고 제공하는 정책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즉, 수원델타플렉스가 수원시의 관점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지만 고색동 주민들에게는 그 이익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원시와 입주업체, 고색동 주민을 포함한 수원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원델타플렉스의 방향을 숙고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어렵지만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수원학연구센터

1.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성격이 한데 합해진 지역으로, 일반 공업지역과는 다르게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2. 서진천은 수원델타플렉스가 조성된 직후부터 입주하여 지금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들을 대표하여 현재 관리단 이사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델타플렉스의 조성 과정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거시적 의미를 상세히 구술해 주었다.
3. 최초 계획 당시에는 '신규공업단지'라고 불렀으나 조성단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4. 전 고색동정년회장 심재현의 인터뷰에 따르면, 1994년 계획 당시 수원시와 주민들 사이의 논의에서 이야기되었던 공업단지의 부지는 약 7만 평 정도였다. 이는 최초 조성된 1단지의 면적이 8만 7,000평(28만 7,248㎡)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1단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5. 화학, 피혁, 염색업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전 청년회장과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입주 불가업종은 산업단지조성 계획단계에서 고색동 주민들과 수원시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한다.
6. 약취나 오염을 초래하는 마그네슘 및 광학소재 제조업,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도체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등의 입주를 금지시키고 있다.
7. 이 지점에서 같은 수원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인 광고테크노밸리와 차이가 있다. 광고테크노밸리의 경우는 주로 연구개발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비해 고색동 수원델타플렉스의 기업들은 연구개발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이 단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눈에 띄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8. 권오혁, 2017,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범위」,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제1호.
9. 공영주차장은 총 5개로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제3공영주차장, 고색뉴지업공영주차장, 임시공영주차장이 있다. 그리고 도로 가장자리를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10. 더욱이 고색역에서 수원델타플렉스 사이의 도보가 유동인구가 매우 적어서 해가 진 이후에는 도보로 이용하는 부담감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11. 심재현의 전망은 개인적 의견이나 바람이 아니라 주민들의 보편적 시각을 설명하는 것임을 밝힌다.

#### 집필

강신혜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김정환 아주대학교 응용사회학과 박사과정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김형아 설날 대표  
설명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과정  
윤정민 아주대학교 응용사회학과 석사 졸업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기획·편집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SRI

- 수원시 마을지 시리즈 19 -

## 고색동

② 수원시 대표 산업지대

발행일 : 2022년 12월 30일

발행처 :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책arei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화 031-220-8068,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or.kr>

디자인 및 인쇄 : 경인 M&E(전화 031-231-5522~7)

ISBN 979-11-6819-127-3 94910

ISBN 979-11-90343-99-2 (세트)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